

2017 DECEMBER

Contents

특집 : 도시재생

- | | | |
|-----|---------------------------|---------|
| 004 | 인간적 도시재생 제고 | 유재우 교수 |
| 008 | 도시재생 뉴딜정책 시행을 위한 과제와 추진방향 | 서수정 본부장 |

Review : 국내외 선진사례

- | | | |
|-----|----------------------------------|------------|
| 016 | 몬드리안의 조형방식이 적용된 로테르담 도시 디자인 | 이충훈 선임연구위원 |
| 032 | 공공시설물과 디자인 | 김동하 교수 |
| 042 | 건축과 조경의 하모니 '게티센터(Getty Center)' | 방재성 센터장 |
| 052 | 부여군 신동엽 문학관 | 오병찬 책임연구위원 |

Level up : 컨설팅 사례

- | | | |
|-----|---------------------|----------|
| 062 | 서해안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전시디자인 | 충청남도 |
| 064 | 당진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 당진시 |
| 066 | 예천초등학교 내부 색채디자인 | 충청남도 교육청 |
| 068 | 세도중학교 학생친화적 환경조성사업 | 충청남도 교육청 |
| 070 | 당진 오수처리집하장 디자인 개선사업 | 당진시 |
| 072 | 홍성군의회 차량 색채디자인계획 | 홍성군 |

Team : 태안군

- | | | |
|-----|--------------------|--------|
| 076 | 일상의 삶에서 함께하는 공공디자인 | 박상현 팀장 |
|-----|--------------------|--------|

국내 정책동향

- | | |
|-----|---------------|
| 080 | 중앙부처 |
| 090 | 광역지방자치단체 |
| 102 |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

vol. 05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소식지

인간적 도시재생 제고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유재우 교수



도시는 시민 생활을 위한 공간이므로 도시 형태도 공익적 가치가 구현될 수 있는 유기적인 형태가 되어야 한다. 도시는 시민에게 ‘함께 산다’는 원초적인 안정감과 행복감을 자아내고 인간다운 존엄성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삶을 본뜻 구조가 되어야 한다. 현재 이러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도시재생’이라 부를 수 있다.

밀레니엄 이후의 도시, 도시의 가치

과거 봉건적 농경 사회에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 나타났다. 혁명 이후 개발과 성장, 효율과 자본이 중심이 되는 근대적 세계가 열리고, 도시의 변화가 나타났다. 근대성(modernity)이라는 가치관은 도시를 새롭게 변모시켰고, 도시는 다시 근대인의 삶의 질서를 변화시켰다.

근대 이후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굴뚝 산업의 개발과 팽창, 파괴와 대량 소비의 시대의 도시는 쇠퇴하며 새로운 경제적 동력을 찾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지속과 순환, 문화와 친환경적 가치가 갖는 세계로 관심 축이 이동되고 있다. 새로운 꿈과 욕망은 과거 근대가 만든 도시적 바탕 위에 새로운 지적·문화적 가치로 변혁을 이뤄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도시재생’이라고도 표현되는데,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착생된다. 그래서 근대의 획일적인 모습이 아니라 각 국가의 도시는 저마다의 환경에서 달라지고 있다.

유럽의 도시 변화 운동

서구의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요구에 맞는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도시 공간 정책이 필요해졌다. 과거로부터의 흔적이 적층된 기존 도시가 갖는 잠재력과 특성을 기반으로 도시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개조를 추진했다.

돌이켜보면, 영국 등에서는 주로 1980년대부터 근대기 산업시설이나 철도역, 공공건축물, 낡은 고딕교회 등 공적인 유휴 도시자원들은 예술적인 공공디자인으로 해석되고 창의적인 도시 공공 콘텐츠로 재활용되었다. 주변의 쇠퇴한 시설과 공간들이 복지와 문화를 위한 공공공간으로 활용되고, 쇠퇴한 환경은 활기를 띠도록 개선되어 삶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졌다. 지역 외부로부터 청년 인재까지 모여들고 일자리도 창출되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었다. 도시 변화는 도시 문화를 촉진하고 장소적 가치를 풍부하게 하여 관광산업의 발전으로까지 연쇄적인 부가효과를 나타냈다. 유럽의 낡은 시설물은 도시에 필요한 용도로 다시 태어나고, 다양한 부류의 도시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되며, 도시 시민운동으로 이어졌다.

동아시아의 도시 변화

인근 동아시아 일본은 1990년대 버블경제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새로운 사회적 동력을 창출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마을에 최소한의 동기를 제공하기 위한 공적 지원을 통해, 주민들은 협력하여 달성할 수 있는 생활의 활기와 가치 변화를 추구하였다. 이는 주민참여 형태로 도시개조에 참여하거나 경관협정 수준의 ‘마찌쯔꾸리’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적 영역에서는 도시 재개조 등의 수준으로 민간 자본 참여와 공공에서 추진하고 있다. 일본다운 방법을 찾아내어 무리 없이 진행 중인 것이다.

중국의 경우 문화혁명 이후 과거 역사적 문화와 유구들을 제거해 왔고, 그 연장선 위에서 도시 현대화 정책으로 재건축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베이징과 상하이(上海)의 경우, 개발 중심의 도시정책을 추진하였다. 이후 국제적인 개항도시가 지닌 도시 역사문화적 자원의 경제적 효과와 가치를 인식하게 되며, 개발과 함께 보존·활용 정책을 병행해 왔다. 그 결과 황포강을 사이로 푸서 지역의 근대 식민과 전통 중국의 옛 상하이와 푸둥 지역의 현대 상하이가 극렬히 대비된다. 방문객들은 시공간적으로 반전된 대비를 통해 더욱 중국 속으로 깊숙이 끌려들어 간다. 그동안 상하이시에서는 상업, 패션, 예술, 창작을 테마로 130여 개 지구를 설정해 단지나 건축물을 등급별로 관리하고, 강력한 지자체의 의지와 자본으로 강력하고 다양한 실험을 모색하였다. 지자체 재생센터에서는 재생단지의 인적·정보 관계망으로 경험을 공유해오고 있다. 중국은 중국적인 사회적 가치와 방식으로 도시재생 범위와 방법들을 확대하고 경제적, 문화적 효과를 재생산시켜 온 결과로 현재의 다채로운 도시 공간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도 도시, 건축, 예술, 사회, 경제 전문가들이 참여해 도시적 혁신과 변화를 추진해 지혜를 더해왔다. 오래된 도시의 가치를 새로운 역동성으로 드러낸다.

이후 우리의 도시환경과 도시재생

우리의 근대는 20세기 초, 주로 일제에 의해 시작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도시가 파괴되었고,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도로개설 등 도시화 과정의 개발로 거의 철거되었다. 그 자리는 새로운 건물로 대체되었다. 1960년대 이후 건축된 산업 근대기 공장이나 창고 등의 산업시설물들은 사적 소유물로 아직 사용되고 있

어 매입하거나 용도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현재 산업 근대기의 낙후된 군산, 인천 등 일부를 제외하고, 가치 있는 근대기 건축물은 일부 공공건물이 초기 형태로 복구되거나 극히 일부만 재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도시재생을 시작할 때, 유럽의 도시처럼 형태만이라도 꾸미려는 목적으로 사업대상 지역에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도시-건축적 유산을 포함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가치를 가진 부지와 건물 매입을 위해 예산 대부분을 소진하고, 남은 예산으로 구색을 갖추려다가 대부분 무늬만 흉내를 내게 되었다. 그 사이 근대 건축물이 가진 가치, 혹은 향후 발생할 문화적 가치나 장소성은 사업을 위한 제물로 소비되었다. 이를 제안하는 전문가도 문제이지만 이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사업지로 선정해 주는 과정도 석연치 않다. 결국, 외국인은 물론 국내 방문객들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문법에 맞지 않은 이상한 장소의 거리를 두 번 다시 찾지 않을 것이라 짐작된다.

대한민국 도시재생의 시작과 끝

한국의 도시재생은 1990년대 중반에 나타나 2000년대 이후에도 제도적 보완을 거치며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직전까지도 대도시에서는 재건축-재개발에 이어 뉴타운 사업 등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지방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고령화 사회, 경기침체를 인지하고, 도시재생이라는 도시정책으로 급선회한 듯하다.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급작스러운 선회는 이루어졌지만, 과거 정부가 재개발 시기에 수십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한 것에 비해, 도시재생은 매년 약 1,500억 원이라는 소액 예산으로 진행되어왔다.

우리의 도시재생은 공공-산업시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해외와 달리 사적 공간인 노후 주거지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경제개발기인 1960년대 중반 이후 근대 산업재료와 기술로 과거 목조 주택이나 건물을 철거하거나 훼손시켜 왔다. 그래서 대부분 주택은 1960년대 이후 시멘트 블록이나 벽돌집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주택가에 시작된 도시재생의 시작은 석아 허물어져 가는 블록 위의 벽화로 점화되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 포장과 빈집 철거, 범죄 예방을 위한 가로등 달기, CCTV 달기, 주민센터 건립 등의 방법도 도입되고 있다. 몇 가지 획일적인 아이템이 포함된 사업계획서가 채택되었고, 미비한 제도와 빈곤한 경험에 지자체의 욕망이 더해지며, 여러 마을사업에 복제되기 시작하였다. 시민 의식 형성이나 기술적 환경이 뒤따라주지 않은 상황에서 관이나 전문가 주도(?)로 사회적 공동체, 경제적 공동체의 청사진이 제시되었지만, 예산 지원 기간에만 시행된 한시적인 처방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으니 기다려 보자고 한다. 발 빠른 전문가는 조금 다른 형태로 모델사업을 제안해 먼저 예산을 타고 보자는 식으로 더 달려간다.

우리의 도시재생은 복지사업인지, 환경 정비 아니면 일자리 사업인지 그 개념부터 모호하다. 복지의 기준은 균등한 기회가, 환경 정비나 일자리의 기준은 실효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이라는 울타리에서 여러 욕망이 꿈틀대고, 세금이 투입된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대상과 목적, 과정은 물론 결과마저 모호하니, 애매한 취지와 대상이 비슷하기만 하면 사업을 제안하여 예산을 쓸 기회가 생긴다. 앞다투어 추진해서, 사업에 명기된 기간 내에 제안서를 만들어 낸다. 모두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생각하니 뒤탈 생길 일도 없다. 도시재생이 아니라 도시사업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줄 모른다.

예기치 않은 갈등과 해소

최근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대체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 정부-시·구·군 지자체에서 취약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실체가 불분명한 도시재생 전문 업체나 전문가를 재능기부라는 빌미로 붙여 시작한 것이 현실이다. 이들이 세운 주민센터나 복지관들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없어 유휴시설물이 되는 일도 있다. 취약지역은 고령자를 포함해 사회적 약자가 밀집된 사유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후주거지 벽화 골목에 관광객의 소란이 더해진다. 참는다. 집값이 더 오를 때까지. 주민 간의 불만이나 세를 올리는 외지 상인들과의 갈등도 생긴다. 노후 마을의 소외에 소외가 더해진다. 얼마 전까지의 도시재생은 해외와 달리 복잡한 절차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복지사업인지 정책 사업인지 애매하니 정치적 표심에 민감한 지자체 주체는 의원이나 발언권이 있는 몇몇 주민 의견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다. 그 프로세스를 아는 소수 전문가나 전문 업체가 계속 대행을 해 주고 있다. ‘성공’이라는 성과를 위해서는 사업의 선정과 관리라는 관계망이 폐쇄적으로 흐를 수 있다. 초기의 도시재생은 재능기부로 시작되어 이제는 호출구조로 결속되어, 참여의 통로가 고착되어 가고 있다. 실적관리나 나눠주기 위한 사업 중심의 도시재생은 이웃과 유사한 도시형태로 복제 생산될 수 있다. 이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책임 있는 참여자, 그리고 전문가는 사업의 결과가 도시 공간을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형태로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업 중심에서 시민운동으로

현시대는 우리의 삶과 공간을 한국적인 도시재생 형태로 바꾸어 더욱 가치 있게 변화시키고, 시민들을 도시 변화 운동에 참여시켜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듯하다. 현 정부에서는 기존과 생각이 다를 것이라 믿는다. 뉴딜정책을 보면 청년 일자리와 보금자리, 농어촌복지, 공유자산 활용과 혁신적 공간 창출 등의 가능성을 제도에 담아 도시나 농어촌을 변화시켜 가고자 한다. 하지만 현재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는 여러 사업모델과 유형의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메뉴가 사람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려면, ‘사업’이나 ‘정비’라는 범주보다는 사람과 지역적 가치를 먼저 살피고 사람의 가치가 더 빛나도록 공간적 구조를 고치고 꾸러가는 일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의 가치와 지역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연구 기간을 전제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대상과 목적, 과정, 결과에 대한 가치와 노선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방안들은 지자체장 임기 내에 끝내야 하는 급박한 줄속 사업보다는 더디더라도 공존-공유의 가치를 가진 도시 운동으로 스며들고 번져가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도시 본연의 가치, 지혜의 도시로

이제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작이다. 우리의 많은 노력 끝에 언젠가는, ‘세계 도시 변화 운동이 대한민국의 불꽃에서 번졌다’고 모두에게 기억되기를 염원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도시재생의 경험을 축적해 왔다. 도시재생 운동은 앞으로 더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겠지만, 한국적인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도시 운동 방식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투명한 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결과로 도시가 더 인간다운 가치로 향하게 해야 한다. 결국, 도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시민운동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도시는 안정된 거주 환경, 사회적·경제적 공동체가 지속되도록 유기적인 관계망이 형성되고 끊임없이 교류하는, 생명의 조직을 닮아가야 한다. 이러한 ‘지혜의 도시’는 인간다운 가치를 더하는 희망과 활력의 삶터가 되고, 시민들은 ‘도시의 지혜’를 사랑하게 되기를 바란다.

도시재생

뉴딜정책 시행을 위한 과제와 추진방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연구본부_서수정 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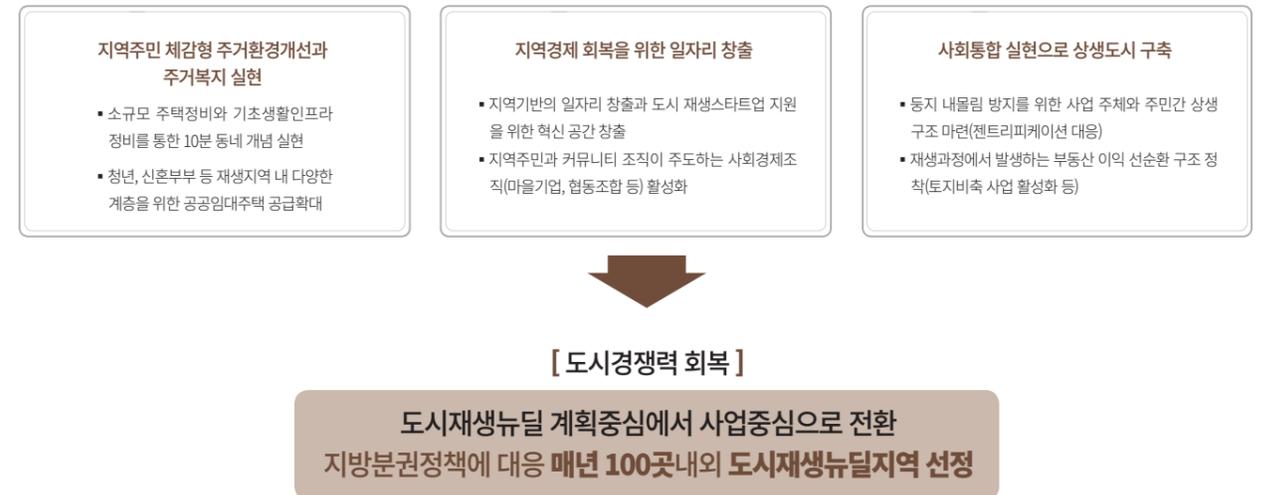


이제 다시 시작하는 도시재생

올해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과 함께 시작한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마무리되는 시기이다. 엄밀히 말하면 국비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이지 도시재생이 마무리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제 막 교육받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설립하기 시작했고 문화시설이나 커뮤니티 공간, 경제 활성화 거점시설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선도지역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활동가들 모두가 입을 모아 “시간이 부족하다. 이제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선도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진단하기도 전에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발표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앞다투어 마중물 예산을 받아야 한다는 행정적인 의무감에 준비과정이 미흡하고 역량 있는 지역주민이 부족하다면서도 떠밀리듯이 도시재생 뉴딜 공모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사실 2014년과 2015년에 있었던 마중물 공모과정에서 밀려난 지자체 입장에서 도시재생 뉴딜은 반가운 단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정부의 설명과 가이드라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차분히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의미와 과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기존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과 다른 점은 지역분권 원칙에 입각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모든 사업대상 지역을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에서 다루지 못했던 주거복지정책을 도시재생정책과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고무할 만하다. 특히 행복주택이나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임대주택건설과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와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주거지재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재원을 도시재생사업에 투입하면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행력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복지실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동지 내몰림 방지를 위한 상생 구조 마련으로 상생 도시를 실현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에서 발표한 5가지 사업유형(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과 모델은 도시재생 뉴딜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가지 도시재생 사업모델은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만을 대상으로 제안되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많다. 그렇다면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현장에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 것인가?

우선 인구감소로 소멸 가능성이 높은 도시¹⁾와 인구유입이 지속되는 서울이나 대도시에서의 대응전략이 달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지수가 높고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지방 중소도시는 공모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할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할지라도 지역 차원의 주택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행복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건설 규모와 입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이러한 도시에서는 빈집을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51~79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

도시재생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7가지 원칙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지역주민과 상인, 행정, 전문가, 공공기관, 지역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각자 자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느슨하면서도 협력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조건이다. 거버넌스를 전제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원칙을 고려하면서 사업을 시행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주민과 지역커뮤니티에 권한과 책임(Empowerment)을 부여하는 것이다. 도시재생은 지역주민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커뮤니티 단체나 청년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역량 있는 주체가 부족하다 보니 행정이나 전문가가 도시재생대학을 열어 주민을 이끌었고 교육받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특산품을 판매하거나 카페, 문화시설, 레지던시 등을 운영할 준비를 하였으나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기획부터 참여하지 못하고 의사결정 권한이 미흡할 뿐 아니라 책임을 갖지 못함으로써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를 발굴하고 이들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주민과 지역 커뮤니티가 수용할 수 있는 부담가능성(Affordability)를 견지하는 것이다. 도시재생 사업뿐 아니라 지역개발사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비 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활동공간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거점시설뿐 아니라 청년창업시설, 공동작업장이나 특산품 가공식품 공장이나 매장 등을 조성한다. 예산이다 보니 대부분 예산 범위에서 최대 규모로 시설을 만든다. 시설이 준공된 이후에는 운영자를 찾지 못해 애쓰는 경우도 많고 오랫동안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아 비워두는 경우도 많다. 이제 시설을 조성하는 것보다 공간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지역주민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의 접근성과 향유도를 높이는 데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도시재생 뉴딜의 핵심 목표이기도 하다.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서는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부족한 시설을 새로 조성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존 노후청사나 유휴 국·공유재산을 우선 파악하고 부족한 기능과 잉여기능, 물리적 노후 정도, 기존 건축물의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국·공유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기능 재배치 전략 차원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는 필요한 시설이지만 인근 지역에는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다면 뉴딜 지역으로 필요한 기능을 옮기고, 대신 그 지역에 있는 시설에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른 기능을 갖도록 조정한다면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사업대상 지역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공공재원의 최소투입과 지역 자원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역마다 100억~500억이 투자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각 사업유형별로 규모와 예산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효율적인 것은 공공재원은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되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자원의 가치를 찾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빈집 등 유휴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지역에 있는 기업의 투자가 선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작은 일자리 만들기과 지역기업의 변화이다. 쇠퇴지역의 근본적인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일자리만 있으면 굳이 주거비 부담이 높은 서울이

나 대도시로 청년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작은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고 지역의 기업이 경쟁력이 있어야 지역주민들을 고용하고 지역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안경산업으로 유명했던 일본의 사바에 마을은 중국의 저가 안경산업 발전으로 침체기를 겪다가 티타늄 가공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일본에서 98% 시장점유율을 갖는 소규모 강소기업이 많은 안경생산도시로 거듭났다. 이처럼 지역의 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 번째로 좋은 공간환경과 커뮤니티 디자인을 실현하는 것이다. 좋은 공간은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 쇠퇴지역은 우범지역도 많고 기반시설도 낡아 쉽게 발길이 가지 않는 장소가 많다. 범죄예방환경설계나 보행 안전을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 디자인, 고령자가 많다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무장애 공간 설계 등 공간환경의 질을 확보할 수 있어야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물리적 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은 우수한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가격입찰 방식을 지양하고 우수한 설계자가 선정될 수 있는 공모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이 거점시설 조성과정에 참여하여 주민 스스로 공간의 이용주체이자 관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고 조정해 가는 커뮤니티 디자인 기법은 주민참여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궁극적으로는 지역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지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면서 노후 환경을 개선해 가는 일로서 ‘일상의 삶’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지역성(Locality)은 ‘삶터로서 로컬(공간)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역사적 경험(시간)을 통해 만들어 가는 다양한 관계의 총체이며, 매우 유동적이고 중층적이며 가치 지향적인 것을 의미’(문재원, 2017)하는 것처럼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방향을 제안한 것으로 결코 정답이 될 수 없다. 필자의 짧은 경험과 소견으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바라며 몇 가지 방향을 보탠 것에 불과하다. 언젠가 일본 요코하마 모토마치 상인회장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발전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잘 하면 된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셨다. 또 수십 년 동안 마을 만들기에 참여한 세타가야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한 분은 “실개천을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중학교 수영장 물을 끌어다가 실개천을 만들어서 환경은 좋아졌는데 역전에서 상점가로 오던 사람들이 실개천길로 동선을 바꾸는 바람에 상점가가 쇠퇴하는 데 일조를 했다. 우리도 해 보지 않아서 당시에는 잘 몰랐다. 계속해서 문제를 발견해 가면서 보완하면서 마을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다. 결국,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도시재생 뉴딜에 투입되는 예산이 아파하는 도시를 치유할 수 있는 영양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서두르지 말고 한발 한발 준비해야 할 것이다.

REVIEW

국내외 선진사례

016 몬드리안의 조형방식이 적용된 로테르담 도시 디자인

이충훈 선임연구위원

032 공공시설물과 디자인

김동하 교수

042 건축과 조경의 하모니 '게티센터(Getty Center)'

방재성 센터장

052 부여군 신동엽 문학관

오병찬 책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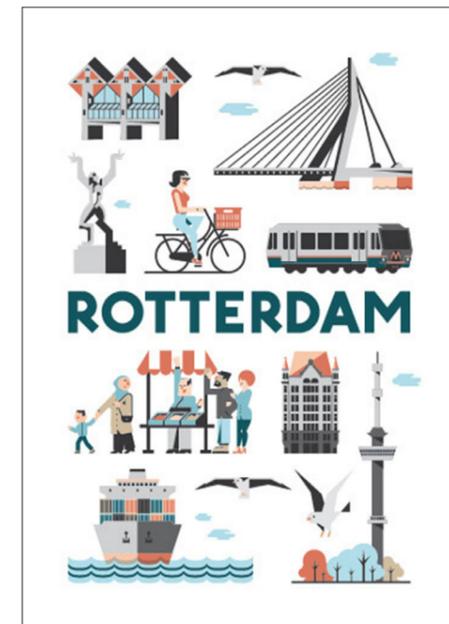
몬드리안의 조형방식이 적용된

로테르담 도시 디자인

충남연구원_이충훈 선임연구위원

도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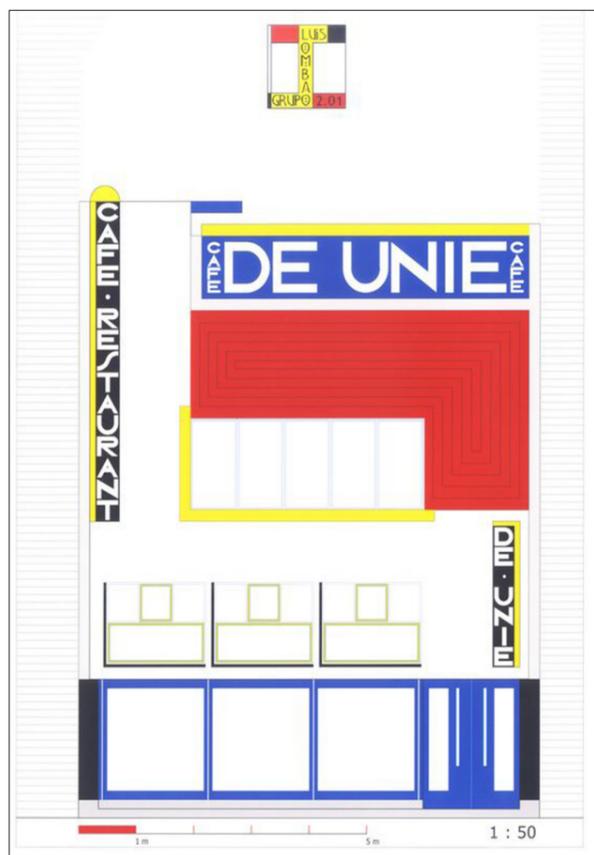
로테르담(Rotterdam)은 네덜란드 자위트홀란트(ZuidHolland) 주에 속해 있으며, 인구는 약 63만 명(네덜란드 2위)으로 다양한 인종, 문화, 민족이 융합된 도시이다. 이 도시의 융합적 특성은 북해재즈(North Sea Jazz), 썸머 카니발(Summer Carnival)과 같은 유명한 축제나 많은 수의 이국적인 상점, 식당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다양함에서도 잘 나타난다.



▲ 출처 : www.pinterest.com

로테르담은 비넨로테(Binnenrotte) 주에서 형성되었다. 이곳은 1270년쯤에 맴이 건설되었고, 작은 어촌의 중심이 되어 무역과 운송업으로 번창하였다. 그리고 1866년과 1872년 사이에 북해와 라인강을 직접 연결하는 수로가 완공된 이후 로테르담은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로 성장했다.

하지만 1940년 5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로테르담의 도시 중심부는 독일군의 폭격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로테르담 시민들은 폐허로 변한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러한 노력은 전쟁이 끝난 2주 뒤부터 곧장 도시 재건을 시작되었다. 로테르담은 아픈 과거와 단절하기 위해서 폭넓은 디자인과 현대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창조하기 위해 획기적인 건축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을 실천해왔다.



로테르담 도시특징

로테르담을 상징하는 키워드는 ‘현대건축의 실험장’이다. 로테르담은 혁신적 건축을 통해 폐허가 된 도시를 되살렸고, 그 실험적 작업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건축물뿐 아니라 길거리, 광장, 역사, 박물관 등 도시에서 만나는 시설 대부분은 ‘유머러스한 해체주의’를 담고 있다. 방문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유머’와 맞닥뜨리고 주목하게 된다. 단순히 달라서가 아니라 재미있게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건축물들은 시민 또는 방문자들에게 상상 이상의 영감을 준다.¹⁾ 로테르담의 도시 전체는 네덜란드 신조형주의 운동인 ‘데 스틸(de-Still)’²⁾ 디자인 양식이 적용되어 있다. 몬드리안(Piet Mondrian)은 이곳 로테르담 출신으로, 그의 작품 속 파격적인 조형방식은 모더니즘의 기초적 형태 언어로 인식되었다. 그의 조형방식은 수많은 예술가에게 원색의 강렬한 조합과 기하 형태의 다양한 조합으로 해석되어 로테르담 건축 전체에 반영되고 있다.³⁾ 그리고 파격과 혁신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로테르담의 특징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중 스카이라인은 ‘현대 건축양식에 대한 찬미’로서 국제적인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로테르담에는 아직 발견되지 못한 것들이 가득하다.

◀ 오우드(J.J.P.Oud)가 디자인한 로테르담 Cafe De Unie(1925) 데스틸의 원리인 기하학적 연구성과 3원색을 건물 전면에 적용하였다. (출처 : www.pinterest.com)

- 1) 이영근, 조금 깊은 도시 네덜란드 로테르담, 매일경제, 2015
- 2) 신조형주의 운동인 ‘데 스틸(de Still)’은 1917년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미술, 건축, 조각, 디자인 등 예술 분야에 걸쳐서 형성된 조형예술 운동으로서, 몬드리안이 참여하면서 데 스틸 운동은 더욱 빠르게 전파되었다. 데 스틸의 원리는 회화, 건축, 디자인을 막론하고, 모든 공간을 평면으로 간주하고, 기하학적 형태와 삼원색(빨강, 노랑, 파랑)을 기본색조로 사용하였다.
- 3) 최성호, 세계의 도시철도 디자인 탐방



▲ 건물에 적용한 몬드리안의 원색을 적용한 연구성



▲ 조각상길(Westersingel Sculpture Route)의 비정형 형태 건축물



▲ 파울루스(Pauluskerk) 교회건축물(출처 : www.pinterest.com)



▲ 오피스 빌딩인 유니레버 네덜란드(Unilever Nederland) 호숫가에 건립된 테이블 탑(Table Top)이라는 새로운 조형 콘셉트에 의한 건축물(건축설계 JHK Architecten:2007)(출처 : www.pinterest.com)

로테르담 건축물 디자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로테르담 건축에 적용한 철학은 '해체주의'⁴⁾이다. 해체주의는 기존의 생각들이 혁신적이지 못하고 획일적이어서 그것을 대체할 '새 판을 만들자'라는 것이 그 핵심이다. 기존의 문명에 지루함을 느끼던 예술, 문학, 건축계에는 해체주의를 빠르게 받아들였다. 그 결과, 직육면체, 수직 상승, 첨탑 공법 등 기존의 상식적인 건축 디자인에서 벗어나 건축물을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여 짓거나 비대칭 설계로 상상을 뛰어넘는 디자인을 시도⁵⁾하였다.

4) 1960년대, 로고스 중심의 철학 체계에 대한 반기를 든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퍼트린 개념이다. 예술과 건축학적으로는 파괴 또는 해체, 풀어헤침의 행위적 관점에서의 부정적 경향이 강한 예술 사조로 포스트모더니즘의 대안으로 '해체'에 대한 통속적인 이해는 조립 또는 조형에 반하여 분해 또는 풀어헤침, 그리고 건설에 반하여 파괴를 지칭하는 행위와 직결되어 있다.

5) 이영근, 매일경제, 2015

▼ 해체주의적 건축물인 노랑색 배관이 보이는 로테르담 중앙도서관과(좌) 연필모양의 펜슬하우스(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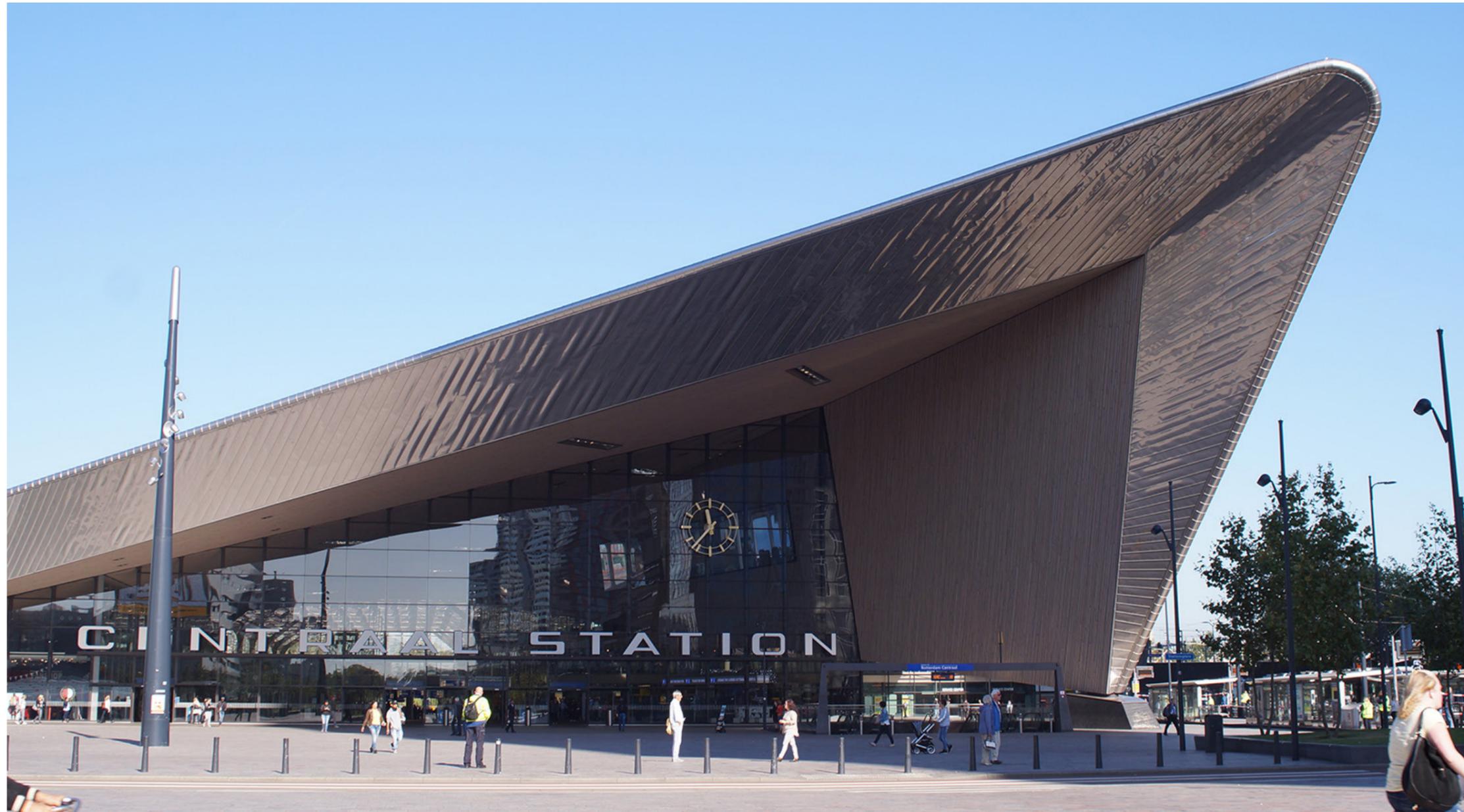


로테르담 중앙역(Rotterdam Central Station)

매일 110,000명이 이용하는 로테르담 중앙역의 트랙 위 지붕은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만들어져있다. 부분적으로 태양전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역의 지붕으로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다. 비대칭적인 형태가 특징인 이 건물 지붕의 뾰족한 모서리 부분은 도시 중심부를 가리키고 있다. 사이볼드 반 라베스테인(Sybold van ravesteyn)가 1957년 설계했던 이전 역사(驛舍)의 역사적인 요소들은 유지되고 있다.

로테르담 중앙역의 리노베이션에서 인상 깊은 시퀀스(sequence)를 연출하는 캐노피디자인(Canopy Design)은 도시와 건축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새로운 캐릭터를 로테르담에 부여한다. 중앙역 리노베이션은 도심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주위에 흩어진 여반 컨텍스트를 하나로 묶는 밴드 역할을 수행한다.⁶⁾ 공공교통 터미널로 2013년에 신축된 중앙역 건물은 네덜란드 건축사무소 벤템 크뤼벨(Bentham Crouwel Architekten)과 MVSA(네덜란드 건축 및 디자인 회사), 팀 CS(Team CS)의 디자인이다. 건물 정면에 있는 중앙역 서체와 시계는 기존의 역사에 있던 것을 옮겨놓았다.

6) <http://sosa.com> 로테르담 센트럴 스테이션 리노베이션



비대칭 형태의 중앙역 건물은 기존의 역사를 리모델링함 ▶



▲ 네덜란드 건축사무소 MVRDA에서 설계한 마켓 홀(Market Hall)건물은 아파트 겸용 주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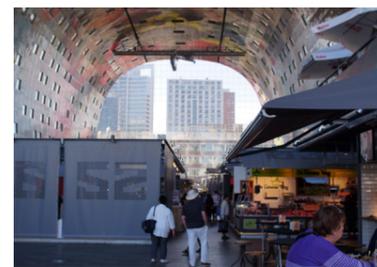
▲ 마켓 홀 내부 천정의 일루미네이션 조각 판넬에 그려진 대형벽화는 농산물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마켓 홀(Market Hall)

네덜란드의 개정된 위생법에 따르면 고기와 생선을 파는 전통적인 야외 시장은 지붕을 덮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신설된 이후 최초로 시행된 시장 재생 프로젝트 '마켓 홀(Market Hall)'은 로테르담 전후 센터(Rotterdam Post War Centre) 내 로렌스 지구의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⁷⁾ 네덜란드 건축사무소(MVRDV)가 설계한 마켓 홀은 재래시장과 주택 200가구 이상의 복합건물로서, 총 10만 평방m² 규모의 건축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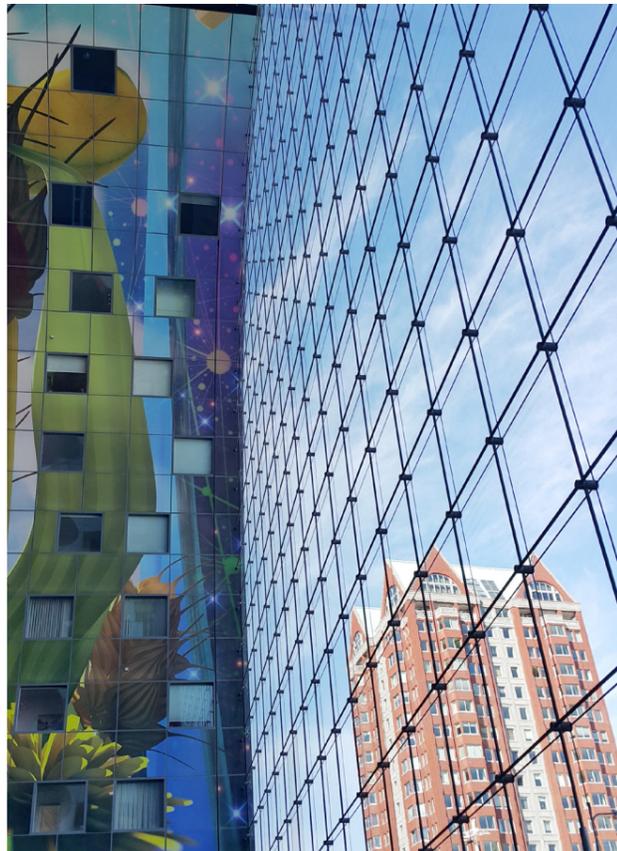
지붕이 덮인 시장은 전 세계 여러 도시에 있지만, 시장과 주택을 이러한 방식으로 결합한 것은 매우 독특하다. 말의 편자 모양을 닮은 아치 형태 아파트는 건물 내부에 설치된 시장을 감싸 안듯 펼쳐져 있다.

아치형 건물에는 총 228가구의 주택이 들어서 있으며 건물 내 아래 2개 층은 상점 및 식당과 같은 공공공간으로 사용된다. 메인홀에는 상점들과 식당들, 슈퍼마켓, 그리고 지하 4층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다. 마켓 위로는 네덜란드 미술가 아르노 쿠넨(Arno Coenen)과 이리스 로스캄(Iris Roskam)의 작품인 '풍요의 뿔'이 설치되어 있다.



▲ 지상 1층 마켓 홀 내부

7) 박치원, 유럽재래시장의 미래를 암시하는 로테르담, 유로저널, 2010



▲ 출입구 외벽 공간을 커튼월 형태의 투명유리로 마감



▲ (위) 시인성이 높게 디자인된 지하1층 화장실 안내 픽토그램
(아래) 지하상가

큐브하우스(Cube Houses)

큐브하우스는 독일 출신 건축가 피터 블룸(Piet Blom)이 1984년에 설계한 공동주택으로, 큐빅 원리를 이용해 '케이크 퀴버스(De Kijk-kubus)'라고도 불린다. 이 건물은 1997~1998년에 리노베이션했지만, 피터 블룸의 건축적 모토인 "도시 지붕으로서의 주거"는 계승되고 있다. 그의 작품 속에는 작은 마을이 반드시 존재한다. 큐브하우스에도 가옥들이 서로 모여 마을의 지붕을 형성해주는 형태로 그의 건축세계가 그대로 담겨 있다.⁸⁾

큐브하우스는 45° 기울인 사각형 건물로 계획되었다. 건물의 사각형 모서리 부분은 서로 겹치게 하고, 내부의 벽과 창문은 54°로 설계되었다. 그렇게 38개의 작은 큐브와 2개의 대형 큐브, 14개의 상점 및 사무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름모꼴의 반복적인 조합은 나무의 모습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큐브하우스 아래에는 자동차와 전차가 통행한다.

오래된 항구(Old Harbour)의 재개발 계획에 의해 건설된 큐브하우스는 기능보다 시각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는 건물 그 자체로서 흥미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8) blog.naver.com/whmao486.do





▲ 큐브하우스는 사각기둥 위에 정육면체가 올려져 있는 형태로, 내부 구조는 대표적인 신조형주의로 구성됨 (출처: www.pinterest.com)

참고자료

- 1) www.skyscrapercity.com
- 2) www.archdaily.com
- 3) www.flickr.com
- 4) https://nl.wikipedia.org
- 5) www.Rotterdam.nl



※ 본 원고는 「로테르담 공중육교 루크심」(2018. 2. 발간예정)의 내용 중 일부임

공공시설물과 디자인

청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_김동하 교수

디자인의 의미

인류는 곡식을 재배하면서 정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마을 단 위에서 거대한 사회적 집단체제와 정치제도를 기반으로 한 도시를 형성하였다. 현재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나타난 복잡성의 증대는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낳고 있음은 물론이고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도시기능의 더 나은 효율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많은 도시의 요소들이 정비되고 제 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19세기 후반 디자인이란 용어의 현대적 사용 이후 디자인은 많은 분야에서 각 영역의 고유 속성과 조합되어 다양하게 해석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례로 어떤 대상물을 꾸미고 쓰임을 부여하는 미(美)적 기능의 수단에서부터 무언가를 계획하거나 해결책 모색, 설계, 조직구조 개편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디자인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과 구체화가 핵심이며, 실행됨으로써 대상물의 가치를 견인하는 매개체이다.

이런 측면에서 특히 디자인은 도시에서 우리 주변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대상들의 미는 엄청난 네트워크의 유기체인 도시의 복잡함

을 더 가중하곤 한다. 따라서 디자인은 미와 기능의 유기적 조화라는 본질적 수단을 전체에서 세부까지 가능할 수 있는 잣대로 활용되어야 한다. 즉 공공시설물, 건축물, 경관 등 도시의 구성요소들을 슬기롭게 다룸으로써 주변 환경에 순응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방법론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도심 속에서 해결책을 구체화하는 장치이자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근본적 처방제로 활용되어야 한다.

디자인은 미(微)화의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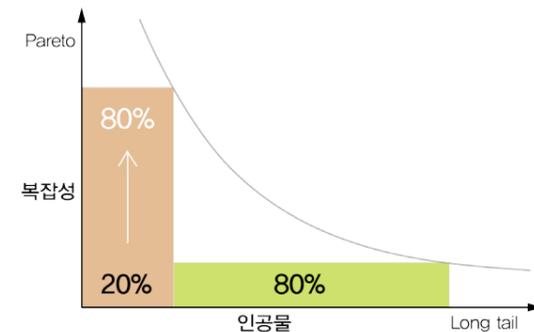
현재 세계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 머지않아 70%에 도달할 것이라는 점을 보더라도 우리 주변과 환경, 그리고 도시에서의 삶 자체는 인공물 산더미 속에 늘 노출됐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자연물을 활용·가공해왔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새로운 인공물들로 우리 주변을 채워 나가고 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더 채울 수 없는 포화상태가 되어 무언가를 덜어내거나 치워야 한다. 우리 도심 속의 환경은 지금 후자 쪽에 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복잡성(complexity)¹⁾이 증대되어 우리의 환경을 카오스(chaos)적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많은 전문가가 이점에 동의하고 있는데, 경제학 분야에서 인용되고 있는 두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Vilfredo Pareto)의 주장에 따르면 원인 20%가 나머지 80%의 결과로 나타난다. 파레토의 법칙은 대부분의 사회현상을 관련된 중요 원인 20%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미국의 유력 기술전문지인 와이어드(Wired) 편집장이었던 크리스 앤더슨(Chris Anderson)의 롱테일 법칙은 하위 80%가 상위 20%보다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다. 즉 파레토의 법칙에 근거한 하위 80%가 상대적으로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 부분도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두 이론을 우리 도시의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입해 볼 필요가 있다. 위 상반된 두 이론의 가부(可否)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 도시의 환경문제의 원인은 ‘혼란스러운 복잡성’, ‘넘쳐나는 무질서’와 ‘조잡함의 다수화’로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는 동시에 해결책의 실마리도 잡아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복잡성은 20%의 인공물에 의해서 80%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반대로 꼬리 부분인 80%의 사소한 부분은 상위 20%보다도 가치 있게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디자인은 BC 500년 전후 노자가 설파했던 미(微)의 개념과 흡사하다. 원서에서는 상덕(上德)이 있는 사람을 미묘현통(微妙玄通)이라고 말하였다. ‘미가 묘하게 되면 심오하여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 이다.²⁾ 여기에서 ‘미’는 조잡한 것이 없어진 상태에서 거추장스러움을 덜어내고 본질에 충실한 현대 디자인의 미학(美學)과 닮았다.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에 있어 심미, 기능, 사용, 제조, 시공, 관리 등은 필히 고려되어야 사항들이다. 디자인 요소들은 단계마다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배합과 균형을 맞추거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 상황의 해결책이 형성화된다. 디자인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미적 호소력이 강한 디자인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지만 호불호(好不好)를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군더더기를 거둬내고 사용자를 고려한 디자인은 통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대체로 아름답다. 즐거우면 미소도 짓지만 미소 지으면 즐거워진다.

1) 복잡성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 복잡성은 무질서를 포함한 의미로 혼란스러운Disorder이 극도로 가중된 상태를 말한다.

2) 노자, 남만성 역, 도덕경(道德經), 서울 : 을유문화사, 2015



▲ 이 그래프는 롱테일 곡선을 근거로 20%의 복잡성이 하위 80%의 복잡성에 영향을 미치는 파레토의 법칙과 롱테일의 가치재고를 설명한다.

공공시설물에 있어 디자인의 역할

공공시설물은 공공의 사용을 목적으로 한 설치물이나 구조물로서, 편의도모와 복리 증진은 물론 도시의 경제·사회 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거리의 가구이자 환경제품이다. 공공 사용의 목적에 따라 교통, 휴게, 위생, 판매, 관리, 서비스, 녹화 등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부의 세부 시설물들은 표지판에서 제품, 공간,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세밀한 기능을 담당한다.

도시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공공시설물은 도시 전체를 보는 거시적 관점에서는 작은 제로 도시의 삶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인공물이다. 따라서 거주민들이나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편의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이미지 형성과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상징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런던의 빨간색 공중전화부스나 로테르담의 주황색 우체통은 21세기 이전의 전유물이지만 아직도 그 도시를 표방한다. 또한, 모든 사람의 안녕과 행복과 연계된 도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이와 같은 물리적 사용 편의성 향상과 사회·문화적 가치의 추구를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갖게 되고 결과로써 공공시설물은 그 도시의 격(格)을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 즉 의복을 단정하게 갖춰 입은 신사의 모습은 다양하게 개성이 표출될 뿐만 아니라 품격 또한 유지된다.

그렇다면 단정하고 편한 의복은 어디에서 어떻게 재단(tailored)해야 할 것인가. 그 플랫폼이 바로 디자인이다. 공공시설물이 도시구성요소 일부로서 적재적소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돕고 주변 환경에 순응하도록 하는 계획과 방법론, 그리고 실천과 완수의 원스톱(one-stop) 프로세스가 디자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은 단지 그럴듯한 콘셉트이거나 화장법 일부로서 다루질 때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설계 및 제조, 설치·시공 단계에서 디자인 의도가 온전히 전달되지 않거나 제조나 시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전 단계로 피드백되지 않아 옥스퍼드 정장화가 보트슈즈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물의 계획에서 시공, 그리고 사용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참여자들의 협업마인드 재고와 디자인의 총체적 역할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다. 그리고 전체 프로세스의 단계마다 피드백장치와 유연한 행정적 연계체계로 확정된 디자인 의도가 온전히 구현(제조·설치)되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문화적 가치 재고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시 거주민들의 선진적식은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될 것이며, 도시는 비로소 제 모습을 찾고 정체성과 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 런던

▲ 피렌체

▲ 로테르담

▼ (위), (아래) 런던



▼ 로테르담



▼ 파리





▲ 수원시



▲ 세종시



▲ 맨체스터



▶ 노팅엄

해결책으로서의 디자인

도시가 발달하면서 복잡성이 증대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여되고 있다. 이런 과정은 앞으로도 도시의 생성과 확장이 계속되는 한 거듭될 것이다. 하지만 대중 속에서 공공성이 상업성에 무분별하게 혼합되거나 훼손되면서 디자인은 ‘혼란스러운 복잡성’으로 포장되고 있다. 이제는 디자인을 통해 복잡성을 줄이는 지혜를 발휘하여 어떻게 자원을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효율적인 시간과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그 해결책은 난해할지 모르지만, 핵심은 간단하다. ‘단순화(simplification)’이다. 복잡성을 조절하는 단순화는 고도의 디자인 역량이 집결되어야만 가능하다. 단순하거나 간결하게 하는 것은 복잡성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복잡성을 능숙하게 다루고 높은 완성도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명료한 해결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은 피쳐폰보다 훨씬 단순한 형상과 인터페이스로 직관적이고 우수한 사용성을 제공하지만, 피쳐폰보다 훨씬 복잡한 알고리즘과 정교한 메커니즘으로 작동된다. 자동차의 자



▲ 런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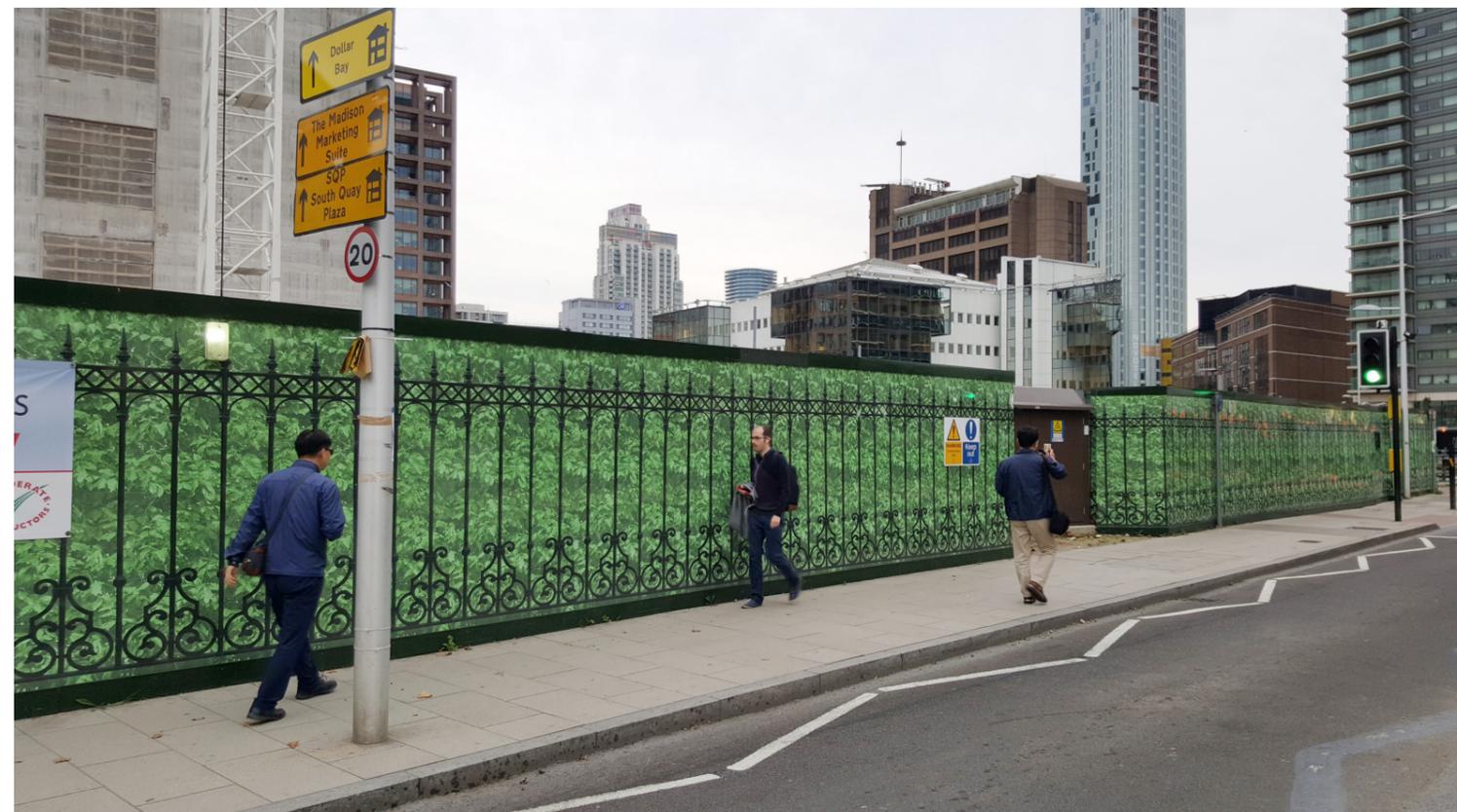


▲ 암스테르담

동변속기와 수동변속기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복잡함에서 쉽고 편리한 사용을 위한 단순화는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다. 즉 도시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동변속기의 내부 구조보다 복잡한 도시의 속성을 정교하게 다루고 자동변속기의 사용처럼 쉽고 편리한 사용성 같은 단순화로 표출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파레토와 앤더슨의 이론을 단순화라는 방정식에 대입시켜 도시환경의 무질서와 시각공해의 주범인 복잡성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두 이론을 적절히 배합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 우선 20%의 복잡성이 우리 환경 대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다. 첫째, 20%에 해당하는 복잡성을 개선하거나 제거 혹은 축소함으로써 도시 본연의 모습과 특색을 갖추게 되고 도시 삶의 질을 향

상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시설물을 거리와 합치(合致)시키는 것이다. 즉 도시를 가리지 않으면서 세심하게 사용자 중심의 본 기능과 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방감을 부여하는 소재와 구조를 적용하고 점유공간을 최소화한 공중전화부스, 버스정류장 등은 도시를 도시답게 드러낸다. 교통의 한 축으로서 제 위치에 적절히 설치된 자전거 통합시스템은 도시의 거주자들은 물론 방문객들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친환경적 도시 이미지 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 안내표지판 테두리의 곡면 두께 처리는 도시 안전의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그리고 보행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쓰레기통이나 안내사인 등의 시설물 등을 건물과 인접한 보행로 안쪽으로 설치하거나 보행 방향과 일치하게 배치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이 조성된다.



▲ (위) 피렌체, (아래) 런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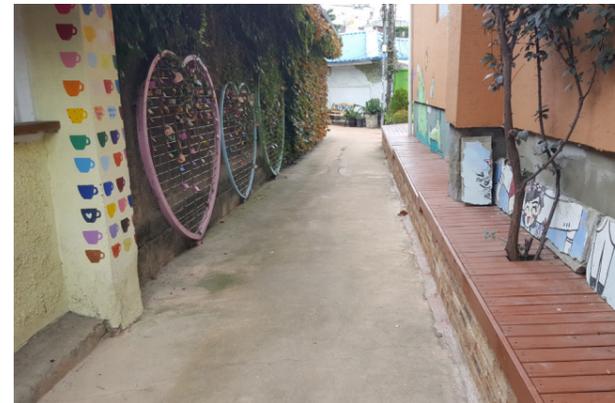
▲ 트루먼 양조장 주변, 런던

또한, 지역의 특성이 묻어나올 수 있도록 그 도시와 연계된 메타포를 활용할 수 있다. 도시의 특화된 권역에 걸맞은 형상과 소재를 적용한 볼라드 및 공사장 가림막 등은 안전한 도시환경과 개성을 유지하는데 한 축을 담당한다. 그럼으로써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격을 갖추게 되며 동시에 도시의 다양성이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요약하면 공공시설물은 ‘보이되 보이지 않아야 한다’.

둘째, 80%의 꼬리 부분을 다루는 것이다. 즉 사소하거나 중요치 않게 생각됐던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소소하지만 민첩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그곳을 중심으로 일어난 작은 변화가 지역 문화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차별화된 도시이미지 형성과 환경개선을 이룰 수 있다. 일례로 수원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권역 보존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들 수 있다. 주민들과 예술가들의 협업을 통해 역사와 전통, 지역의 콘텐츠를 접목한 작은 설치물과 벽화 등을 활용해 풍자와 재치, 재미를 부여하여 도시환경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로써 주민들의 자발적 환경정화 활동, 애향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많은 부분에 기여하게 되었다. 다른 예는 런던의 트루먼 양조장 주변 및 슬럼가를 중심으로 생성된 ‘브릭레인(Brick Lane) 문화예술지구’이다. 예술인들의 정착을 유도하고 창조적인 커뮤니티의 형성과 의미 있고 해학적인 공공조형물(오브제)들이 설치되는 등 팝아트의 소호 거리가 형성되어 런던의 명물 중 하나가 되었다. 사소하지만 작은 변화의 유도, 즉 시설 및 공간의 재해석은 공공환경의 정비와 아울러 그 안에서 다양한 콘텐츠가 공존하면서 창조적인 지역으로 발돋움했다. 후자는 문화 젠트리피케이션(Cultural Gentrification)³⁾의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두 사례 모두

3) 1960년대 영국의 지리학자인 루스 글래스(Ruth Glass)가 제창한 용어로서 낮은 건물의 소유주가 바뀌고 중산 계층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세입자가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 한다. (참조: 위키백과)



▲ 수원시

최근 화두가 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과 맥락을 같이한다. 중요한 점은, 위 해결방법이 단순화를 구심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디자인은 ‘빼기(Subtraction)의 미학’이며 ‘단순화의 프로세스’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시설물의 정비와 개선을 통한 도시환경의 질 향상과 정체성 형성의 플랫폼은 ‘디자인’이며 ‘단순화’가 해결책의 핵심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 da Vinci)의 격언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단순함은 정교함(세련)의 궁극적 형태이다(Simplicity is the ultimate form of sophistication).”

건축과 조경의 하모니

‘게티센터(Getty Center)’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_방재성 센터장

늦은 여름이 되어서야 휴가를 다녀왔다. 가족과 미국 여행 중에 LA 게티센터에 잠시 들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LA의 명소로 유니버설 스튜디오, 디즈니랜드, 할리우드, 코리아타운 등을 떠올리지만 혹자는 선진 디자인이 숨 쉬는 게티센터를 먼저 꼽는다.

게티센터가 선진 디자인 사례로 언급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첫째, 기능적·미학적 완결성이 뛰어난 건축 사례이며, 둘째로는 건축과 조경설계가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아름답고 쾌적한 외부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셋째, 이러한 성과는 좋은 설계자(건축가, 조경가)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발주처의 안목에 따라 좌우됨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으로 조성된 건축과 공간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¹⁾

게티센터는 건축을 공부한 이들과 조경을 공부한 이들 모두에게 상징적이다. 건축을 공부한 이들에게는 리처드 마이어(Richard Meier)²⁾의 작품으로, 조경을 공부한 이들에게는 로리 올린(Laurie Olin)³⁾의 조경설계와 조각가 로버트 어윈(Robert Irwin)의 ‘센트럴 가든’으로 유명하다. 지면 특성상 건축설계와 조경설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다루기보다는 사진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건축이 자본에 종속된 시대이지만 공간의 공공성은 자본의 성격보다 건축가와 조경가와 같은 환경디자이너들의 역할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는 문화적, 사회적 여건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게티센터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2) 1970년대 초 뉴욕의 진보적인 건축가 그룹 뉴욕파이브 멤버로 건축활동을 시작하였고 198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축가가 되었다. 1984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하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하였다. 2015년 강릉에 개관한 씨마크 호텔이 그의 작품이다.
3) 로리 올린은 영화감독 조지 루카스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2015년에 국가예술훈장을 수여받았다. 이 훈장은 미국 정부가 예술가에게 주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다. 브라이언트 파크, 콜럼버스 서클, 배터리 파크 시티, 게티 센터, 워싱턴 모뉴먼트 등 기념비적인 조경작업을 해 왔다.



▲ (위) 리처드 마이어(건축가), (아래) 로리 올린(조경가) ▲ 로버트 어윈(조각가)

1997년에 완공된 게티센터는 LA의 북서측 405번 고속도로변 산타 모니카 산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주차장 조성으로 인한 녹지 훼손과 경관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차량은 산 아래 지하주차장에 두고 트램을 이용해 미술관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다.

건축물 외부는 경관을 고려하여 이탈리아산 대리석(트레버틴)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백색의 알루미늄 패널이 쓰였다. 알루미늄은 표면이 빛을 흡수하여 반짝이지 않도록 처리하였고, 밝은 회색으로 매끄럽게 마감하여 금속의 느낌을 줄이고 대리석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했다.



▲ 게티센터 전경 (자료: <https://www.timeout.com>)



▲ 게티센터 입구. 트램에서 내리면 바로 접하는 주 계단이다. 계단이 전시공간과 조경공간의 역할도 겸하고 있어 많은 방문객에게 포토존으로 이용되고 있다.



▲ 게티센터의 전시관. 금속과 석재를 사용하면서도 질감의 차이를 최소화하였다.



▲ 전시실 내부. 관람객들이 편안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동선과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전시공간 내부는 여러 개의 공간이 연속된 구성으로 되어 있다. 바닥 마감은 목재이고, 벽은 목재 프레임을 돌린 후 회반죽이나 천(실크, 울 등)으로 마감하여 고전적인 분위기를 살렸다.



▲ 진입동 메인 로비.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유입시켜 밝은 공간을 연출하고 있으며 이벤트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단과 출입구를 통해 전시동으로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동선을 제공한다.



▲ 센터 남쪽에 위치한 선인장 정원과 멀리 보이는 LA 다운타운



▲ 조각품, 플랜터, 화랑을 적절히 활용하며 계획한 옥상 정원

건축가는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제공하고, 미적 고풍을 차분히 새길 수 있는 미술관이자 휴게공간을 조성해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옥상정원을 조경공간이자 조망 장소로 활용하였다.

6동으로 이루어진 미술관 건물군의 중정은 야외 공연과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 다수의 관객이 모일 수 있게 설계되었다. 인파의 효율적인 분산과 조절 기능을 갖춘 복합적인 공간이다. 그리고 대지 내에 물과 돌과 나무라는 자연적 요소를 반복해 사용함으로써 이채롭지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위) 식재를 통해 그늘을 제공한 휴게공간
(아래) 바위 정원이 있는 중정. 인공적인 정방형의 건물과 자연 암석의 조화, 석재와 단풍나무, 아이버의 조화가 이채롭다.



▲ (위) 조망공간이자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게 설계한 경사로, (아래) 지형을 활용하여 조성한 경사로와 계단. 식재와 조각 작품 배치를 통해 또 하나의 멋진 전시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 (위) 센트럴 가든 상부에 설치된 나무 조형물, (아래) 다채로운 식재를 활용한 정원

게티센터의 또 하나의 장점은 모든 시점에서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열린 시야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단설치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레벨 이동 시설에 경사로를 설치해 다양한 공간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게티센터는 로버트 어윈이 설계한 정원 '센트럴 가든'으로도 유명한데, 원형의 가든과 직육면체의 건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 원형의 가든과 직육면체의 건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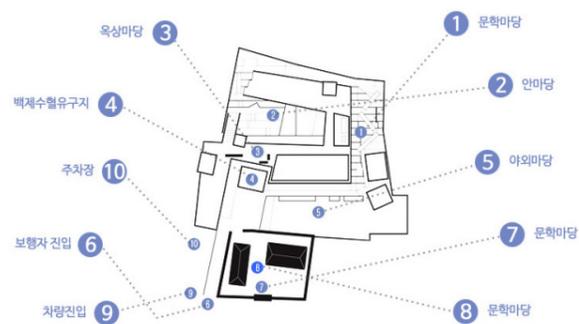
▲ 중정에 위치한 분수 정원

부여군 신동엽 문학관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_오병찬 책임연구원

“시인의 시어가 휘날리는 깃발들의 광장. 여기에 아름다운 언어는 허공에 흩뿌려지고 그 파편에 취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출발한 지점에 다시 도달하게 된다. 이 기념관의 건축은 그런 과정을 만드는 매개체일 뿐이니, 형태는 존재하지 않아야 옳다. 그래서 거친 콘크리트의 물성만 있을 뿐 스스로를 기념하지 않는 건축이다. 그게 껍데기를 질타한 시인에 대한 존경과 예의였다.” - 「신동엽 문학관」 중에서





신동엽 문학관은 시인 신동엽의 문학정신을 추억하고 기리기 위해 2013년 5월 충청남도 부여군 동남리 신동엽 생가 뒤편에 개관되었다. 신동엽 문학관은 승효상 건축가에 의해 약 4년의 설계 및 공사 기간을 거쳐 완공되었다.



생가와 연계해 관람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부지면적 2,026㎡의 대지에 연면적 800.08㎡의 규모로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수장고, 북카페,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 계획부지가 주변 대지보다 약 4.5m 높은 지형임을 고려하여, 시인의 발자취를 따라 경사진 대지가 길이 되고 공간이 되며 문학관이 다시 대지와 하나가 되는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계획되었다.



진입로와 만나는 바깥마당은 생가와 문학관 사이의 전이 공간으로서, 관람 전이나 관람 후의 휴식공간, 또는 북카페와 연결되는 다양한 야외행사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건물을 둘러싸는 문학동산은 산책로를 따라 건물 상부로 연결되고, 수반이 있는 안마당을 통해 다시 문학관 내부로 연결되어 내외부의 관람 동선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하였다.



신동업문학관은 아름다운 우리말과 서정적인 감성을 통해 자유를 향한 시민정신을 계승한 민족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지역주민들의 문화 생활공간을 만들고자 한 부여군 및 시인, 미술가, 조각가 등 많은 예술인의 뜻이 모여 완성될 수 있었다. 현재까지도 회자되는 시인의 옛이야기가 신동업 문학관에 표현된 현대의 스토리와 하나 되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내용 출처 1) 승효상, 승효상 도큐먼트, 2015
2) wikipedia, 신동업 문학관
3) www.shindongyeop.com
4) 이로제(履露濟) newsletter, 2013, vol123

LEVEL UP

컨설팅 사례

062	서해안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전시디자인	충청남도
064	당진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당진시
066	예천초등학교 내부 색채디자인	충청남도 교육청
068	세도중학교 학생친화적 환경조성사업	충청남도 교육청
070	당진 오수처리집하장 디자인 개선사업	당진시
072	홍성군의회 차량 색채디자인계획	홍성군

서해안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전시디자인

사업유형 공공건축
신청기관 충청남도
신청시기 실시설계 및 추가공사단계
자문위원 황진찬 팀장(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사업내용 및 현황분석

- 2007년 12월에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발생한 홍콩의 허베이스 피리트(Hebei Spirit)號 원유 유출사고로 정부의 특별법 제정 및 민간차원에 약 123만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가 피해복구활동에 참여
- 해양환경 보존 중요성과 전국민의 자원봉사와 지역협력 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유류피해극복기념공간을 설립

▼ 컨설팅 적용 후



▲ 컨설팅 전

컨설팅 방향

- 컨설팅시기
: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추가공사 전시디자인컨설팅 추진
- 추진방법
: 일반적 자문은 배제하고, 디자인 아이디어 전개→실시설계→시공, 기존의 주관적인 디자인 의견 재해석 및 객관적 디자인 적용
: 워킹그룹 실무단 운영
- 디자인컨셉
: 함께살린 바다, 희망으로 되돌아오다

컨설팅 내용

- 전시관 추가공사 전시디자인 아이템 재구성 및 준공
 - 123만명의 자원봉사자 명예의전당 조성
 - 전시관의 전시, 조경, 건축의 객관적 디자인적 관점으로 개선
 - 기존 자원봉사자 조형물 철거 및 재구성
: 자원봉사자의 땀·눈물 조형물디자인
: 자원봉사자“인간 띠”디자인, 우물스크린 영상디자인
 - 사인물 Identity 디자인
 -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개관(2017.9.15)
 - VIP방문과 관람객 참관

▼ 컨설팅 전



▼ 컨설팅 후



당진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사업유형 공공건축
신청기관 당진시 건축과
신청시기 실시설계단계
자문위원 오형석 교수(공주대학교)

사업내용 및 현황분석

- 노후화된 현재의 문화원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므로 기존 건축물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
- 사업의 주요 내용이 외장재료 교체 및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평면계획 변경이므로 입면계획 변경과 공간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컨설팅을 진행
- 기존의 조적벽을 존치한 채 감싸는 방식의 리모델링이므로 외장재 선택시 방수계획에 유의



기존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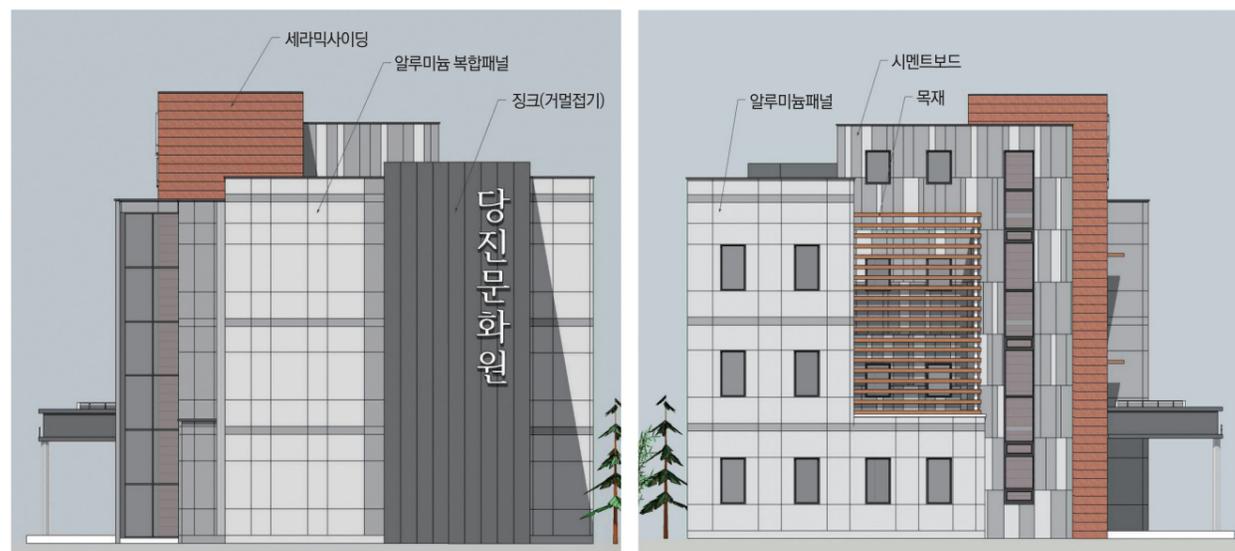


▲ (좌) 현황사진, (우)컨설팅 전 계획안

컨설팅 내용

- 문화시설의 상징성을 살리고 주변 건축물의 성격에 부합하는 입면구성
-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기보다는 주, 부재료의 적절한 조화가 요구됨
- 원경(무수동로)에서의 상징성을 감안한 측벽 디자인이 필요
-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입면계획과 외장재료 위주의 대안 제시
- 목재 등 습기에 취약한 자재의 직접적인 사용은 지양
- 기존 복측건물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공공건축의 성격에 부합하는 조경부분 개선이 필요. 건축물의 배면에 조경식재 제안

▼ 디자인 컨설팅안



예천초등학교 내부 색채디자인

사업유형 공공건축
신청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신청시기 기본구상단계
자문위원 정민 교수(호서대학교)

사업내용 및 현황분석

- 학교 건축물은 3개동 4개의 층으로 된 복잡한 구조의 초등학교 건물로서 도장이 이루어진 지 10년이 지난 상황으로 도장상태가 불량함
- 기존 색채는 내부의 경우 파스텔 톤의 파랑, 노랑, 녹색의 3가지 색을 투톤으로 배열한 상태였으며, 계단실은 다채무늬 도료 포장이 되어 있어 색채 배색은 무난함
- 학생들의 의견 수렴 조사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선호색과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하여, 이를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색채 계획을 제시하고자 함



디자인 현장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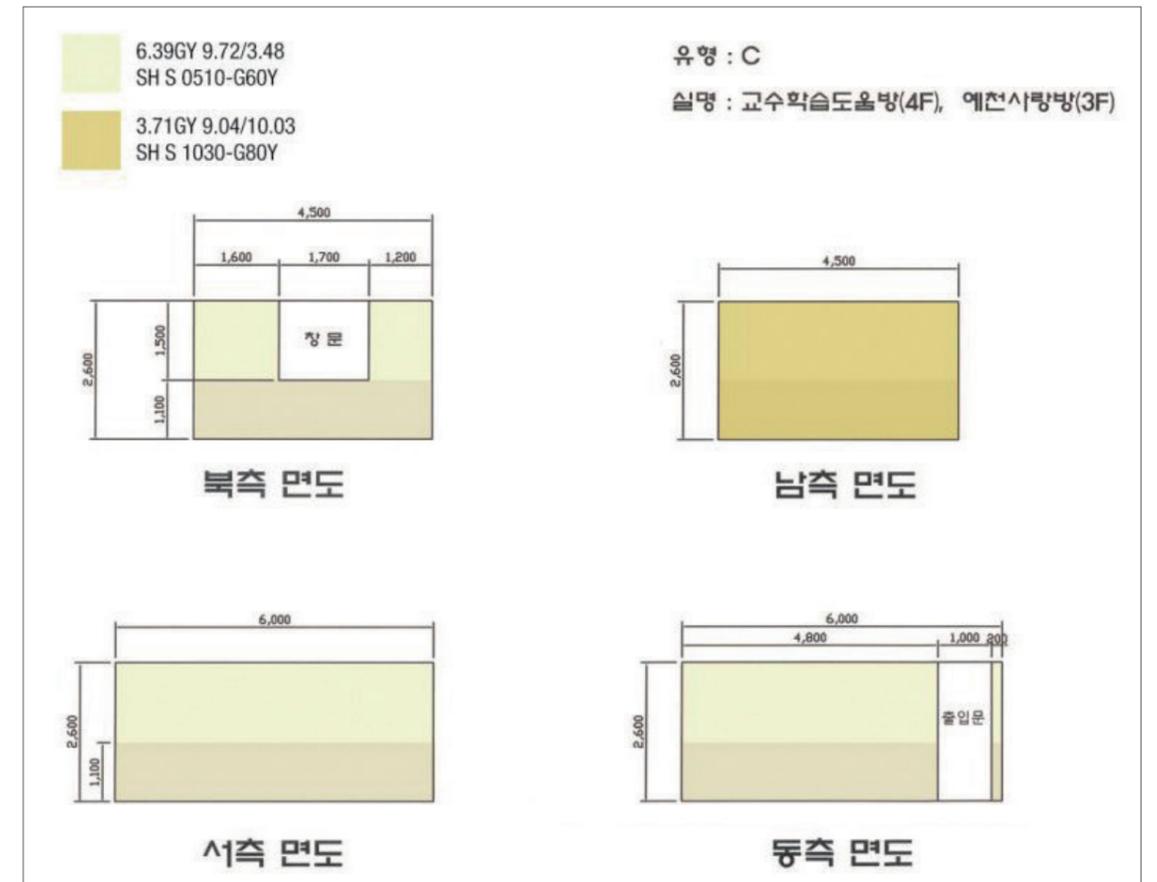


▲ 현황사진

컨설팅 내용

- 건축물의 복잡한 구조를 고려하여, 홀수층과 짝수층 색채를 달리 적용하여 층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 3개 동 복도를 구분할 수 있도록 채도에서 차이를 두도록 하고, 바닥으로부터 1,200(H)까지 투명 낙서방지 페인트를 덧칠함으로써 투톤의 효과를 적용하도록 함
- 교실, 특별실, 관리실의 색상은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색채를 선정함

▼ 교수학습도움방/예천사랑방 시안



세도중학교 학생친화적 환경조성사업

사업유형 공공건축
신청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신청시기 기본구상단계
자문위원 박혜은 전임연구원, 김성희 연구원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사업내용 및 현황분석

- 대상 학교는 1, 2층 규모의 작은 학교로 최근에 리모델링한 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색채가 없어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음
- 세도중학교의 밝은 이미지 부여를 위한 색채디자인계획을 진행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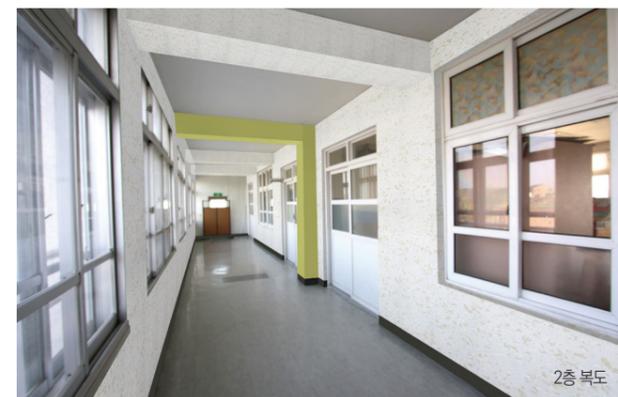


▲ 현황사진

컨설팅 내용

- 전체적으로 기존에 적용되어 있는 색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디자인을 제시함
- 학교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Y, YR, GY계열의 색상을 층별 강조색으로 적용하여 인지성을 확보함
- 중앙현관의 벽체는 기존 바닥 패턴과 YR계열의 색상을 활용한 조화로운 패턴을 적용하여 학교 이용자(교사 및 학생, 방문객)에게 밝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함

▼ 디자인 제안



당진시 오수처리집하장 디자인 개선사업

사업유형 공공건축
신청기관 당진시 건축과
신청시기 기본구상단계
자문위원 김준연 교수(나사렛대학교)

사업내용 및 현황분석

- 혐오시설인 오수처리집하장 주변 환경에 적합한 식물 수종을 선정하여 화단을 조성하고, 펜스 및 기타 시설들의 도색을 새롭게 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디자인이 되도록 방향을 제시함



디자인 현장적용



▲ 현황사진

컨설팅 내용

• 시설부분

- 메쉬망 주변 20cm 높이의 콘크리트 블록을 철거한 후, 그 공간에 플랜트 박스를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블록 철거가 불가능할 경우 그 위에 플랜트 박스를 설치함
- 1안의 경우, 기존 바닥콘크리트블록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전면부에 플랜트 박스가 많이 보이는 단점이 있음
- 2안의 경우에는 15~20cm 정도의 바닥 콘크리트 블록을 제거 후에 설치함으로 인해 화단 전면부의 목재 부분이 부분적으로 보여서 자연스러운 녹화가 이뤄질 수 있음
- 웬스는 기존의 밝은 녹색은 주변의 경관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짙은 갈색으로 도장하도록 하고 목재를 부착하여 자연친화적인 느낌이 나도록 함

▼ 플랜트 박스 1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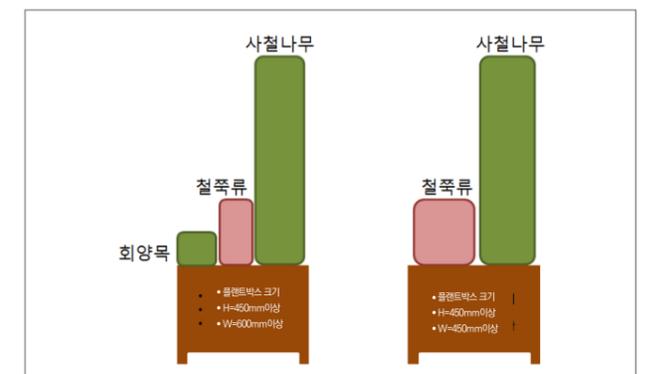


▼ 플랜트 박스 2안



• 식재부분

- 화단의 식재방식은 회양목, 철쭉, 사철나무 3종을 식재하는 방법과 철쭉류와 사철나무 2종을 식재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3종 식재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화단의 폭이 60cm 이상 확보가 되었을 경우 권장함



▲ 식재 1안

▲ 식재 2안

홍성군의의회 차량 색채디자인계획

사업유형 공공매체
신청기관 홍성군의회사무국
신청시기 기본구상단계
자문위원 오병찬 책임연구원, 김성희 연구원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사업내용 및 현황분석

- 홍성군의의회 이동 수단 및 대외적인 홍보를 위한 차량 외부디자인에 대한 컨설팅 진행
- 기존 제시안은 높은 채도의 다양한 색상이 적용되어 시각적인 혼란을 주며, 단조로운 패턴으로 홍성군의의회 성격이 결여된 디자인임

컨설팅 내용

- 홍성군의의회가 갖는 역할과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디자인 계획을 제시함
- 의회를 상징하는 YR계열 색상을 주조색으로 하고, 홍성을 상징하는 '조양문'과 '홍주천년' 엠블럼을 단순한 실루엣으로 적용하여 홍성군의의회 상징을 부여함



▲ 기존 제시안



디자인 현장적용



Team

태안군

일상의 삶에서 함께하는 공공디자인

아이들과의 교감으로
함께 만드는 공감 공간



태안군 도시건축과_박상현 팀장



▲ 어린이10호공원 조감도



▲ 어린이들이 희망한 놀이터 놀이기구 그림



주인에게 휴식을 주는 ‘소중한 쉼터’인 공원은 일반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정책에 따라, 공공복리 증진과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을 목표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조성한다.

태안군에서는 공원의 입지적 특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구역마다 주제를 도입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성향을 충족시킬 차별화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모아 2015년 10월에 ‘태안군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해 녹지의 환경적 가치를 전하는 동시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경제적 공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89번지 일원에 원도심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남형 공원 조성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어린이10호 공원’을 조성하게 되었다.

어린이공원은 그동안 수요계층인 어린이의 의사 또는 요구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계획자 주도로 조성돼 안전성과 흥미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에 컨설팅을 의뢰하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기본구상부터 기본계획, 실시설계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며 기존 어린이공원과 접근을 달리할 수 있었다. 우선 기본구상 단계에서 공원을 실제로 이용하는 어린이들

이 ‘가고 싶고, 놀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원 예정지 인근의 유치원 등 유아시설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어린이들은 ‘놀고(이용하고) 싶은 어린이공원’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고, 이를 토대로 어린이공원의 이용 주체인 어린이들이 실제로 원하는 공원의 모습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를 놀이시설 및 바닥재의 선정 시 반영하는 한편,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노인들도 쉽게 접근하고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하였다.

또한, 보행 동선을 파악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태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고성능 CCTV를 설치했다. 이처럼 많은 고민과 공감, 이용 주체인 어린이들과의 교감을 거쳐 태안군 최초의 이용자 중심 공원을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어린이10호 공원은 태안군 어린이공원 중 최초로 공공디자인을 반영하는 공간으로, 어린이는 물론 노약자와 장애인까지 함께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조성 중인 어린이10호 공원은 2018년 상반기 내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지역민들 모두가 공원을 비롯한 모든 ‘삶의 공간’에서 소중한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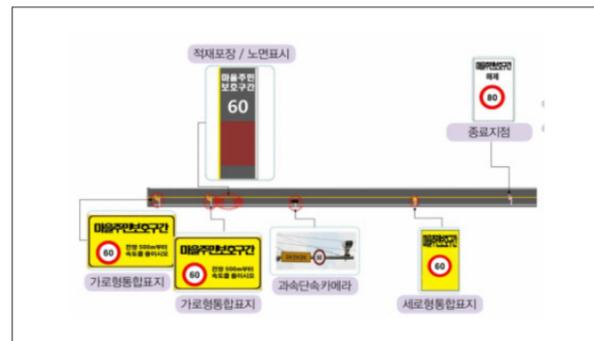
국내 정책동향

-
- 080 중앙부처
 - 090 광역지방자치단체
 - 102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국토부, '2016년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 완료 2017.12. | 국토교통부 | 뉴스테이정책과

국토교통부는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군, 20개 구간을 대상으로 '2016년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을 추진해,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미끄럼 방지 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했다. 또한, 해당 구간에 신호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최고 제한속도를 약 10~20km/h 하향 조정했다.

▼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



국토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 계획 수립 2017.07.13.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선도사업 계획 수립을 통해 조속한 공사 재개와 체계적 정비계획 수립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과천 우정병원의 선도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존 병원 건물을 철거하고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을 200호 내외로 신축, ②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물(미정)을 별도의 부지에 설치하여 사업의 공공성 강화 예정, ③ 정비사업 추진 및 사업비 조달을 위해 위탁개발 방식으로 진행, ④ 사업 후 위탁사업자 수수료를 제외한 개발 수익금은 정비기금에 적립하여 타 정비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선도사업 계획 수립이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마중물이 되어 다양한 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지원 이후 2차 선도사업으로 추진한 광진구 공동주택도 공사가 재개되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향후 사업절차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 공청회 개최 2017.07.16. | 국토교통부 | 도로운영과

국토교통부는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에 대한 관계기관·전문가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

회를 개최한다. 이는 도로의 상공·지하 공간에 민간 등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도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도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입체보행로 등을 통해 이동 편의가 개선되고, 연계된 설계로 공간을 보다 복합적,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각형으로 짜인 기존 구획에서 벗어나 창의적 건축물 조성도 가능해진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는 이 최종안을 토대로 입법 예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정부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7. 07. 19. | 국토교통부 | 건축문화경관과

국토교통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주기 변경, ② 건축자산 기초조사의 탄력적 운영, ③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시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 의무화, ④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특정 시설, 업소의 설치 제한 근거 마련, 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자산에 대해 건폐율 완화를 위한 특례규정을 상호성 있게 개정하여 건축자산 진흥구역 활성화를 위한 건축자산특별회계 설치 주체의 확대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지자체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법 제정 이후 최초의 제도적 보완이며, 여기에 상호성 있는 특례규정 마련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포함하여 건축자산 관련 제도 및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데 필요한 추진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 공포·시행 2017.07.31. | 국토교통부 | 건축문화경관과

국토교통부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근거 마련, ② 설계자 선정 및 심사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③ 설계공모 운영의 자율성 강화, ④ 설계비 감액 지급 관행 개선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여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14. 6. 12.)이 시행된 이후 최초의 제도적 보완이며, 공공건축 설계 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추가된 만큼 지속성장 가능한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평가로 재난을 사전대비한다 2017.08.03.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7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주재하여,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대책」 등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는 지난 런던에서 발생한 고층 아파트 화재사고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화재안전성능 평가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화재안전성능 평가는 ① 화재 안전시설, ② 건축물 마감 재료, ③ 건물의 인명 피난 능력, ④ 건물 방화구획 등에 대해 전문기관이 평가해 건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등급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 결과를 건물 거주자, 지자체, 소방관서에 공개하여 건축물 화재 위험요소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행 건축법이 신축 건물에 관한 규정 위주로 이루어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에 미비점이 있다고 보고,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위해 머리 맞댄다 2017.09.11. |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도시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과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52종)로서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의미하며, 장기 미집행시설은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정책 방향은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① 난개발 우려가 없는 시설 등의 단계적 해제, ② 조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집행방안 모색, ③ 집행이 곤란한 경우 난개발 등 실효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 ④ 향후 장기 미집행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제도개선 등으로 구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자체와 정책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20년 실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지자체가 '사전해제·집행·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유도하고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각계 전문가들,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운영에 머리를 모으다 2017. 09. 12.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추진 경과 보고 후에 향후 농업체험관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이 수원에서 전주로 이전하면서, 그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체험 중심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을 추진해 왔고, 각계 최고 전문가들이 높은 경륜과 지혜를 모아

유물수집 및 전시기획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것이며,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공감대 형성에 힘써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2017.09.12. | 국토교통부 | 뉴스테이정책과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민간임대 주택의 임차인 모집 사전신고 방법 마련, ② 다가구주택의 실별 임대 사례에 대한 임대주택 인정, ③ 기업형 임대주택과 함께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 범위 확대 등이다.

'2017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에 이승환·전보림 건축사 2017.09.17. | 국토교통부 | 건축문화경관과

'2017년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대상은 '매곡도서관'으로 내부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 높은 공간 활용도 및 도전적인 공간 프로그램과 동선 유도 등 공간 구성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인 '멋진 할아버지집'은 자연 속의 경관과 조화된 절제된 디자인, 시공자와의 소통을 통한 섬세한 시공, 대나무와 같이 새로운 자재를 활용한 입면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다른 최우수상 수상작인 '마주집'은 택지 내에 채광 등 불리한 대지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공용공간을 2층으로 하고 실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한쪽 면을 기둥이 없는 캔틸레버(Cantilever) 구조로 시공하는 등 건축사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노력이 돋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출품작들도 신진건축사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었고, 건축주와 시공자와의 소통으로 건축적 완성도를 이루고자 노력한 작품이 많아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신진건축사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 매곡도서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2017.09.25. | 국토교통부 | 기획총괄과/자원정책과/도심재생과/경제거점재생과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과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활성화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은 기존 중앙 주도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주도(Bottom-up) 방식으로 전국에 걸쳐 추진, ② 지난 2016년 4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지역 33곳 중 16곳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도 심의를 거쳐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약 9천억 원 규모의 국가 지원사항 확정 등이다. 이번 뉴딜사업은 단순 주거환경의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기능을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에 기반을 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며, 재생 과정에서 소유주와 임차인 간 상생체계를 구축해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한옥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린다

2017.09.26. | 문화체육관광부 | 특구기획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계기로 강릉시와 함께 강릉오죽한옥마을에 한옥체험시설 14개 동을 추가로 조성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강릉오죽한옥마을은 지난 2016년 11월 1단계 사업에 이어, 이번 2단계 사업을 통해 한옥체험시설을 추가로 확충하여 총 34개 동 규모로 운영된다. 2단계 사업은 국토부가 주도한 1단계 ‘신한옥 연구개발(R&D) 사업’에서 개발된 기술로 바탕으로 전통한옥의 고유한 특성을 가미해 건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 기간에 강릉 전통한옥체험단지 내에서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한옥의 아름다움과 한국 전통문화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올림픽 이후에도 인근의 오죽헌과 함께 강릉 농악전수교육관, 선비문화체험관 등의 문화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강릉오죽한옥마을



전국 11곳 복합개발 선도사업 선정, 29일부터 지자체 공모

2017.09.28. | 국토교통부 | 행복주택정책과

국토교통부는 도심에 위치한 지자체 소유의 노후 공공청사를 임대 주택·청사·수익시설로 개발하는 ‘노후 청사 복합개발 사업’의 선도사업지 11곳을 선정하였다. 이번 선도사업지는 조속한 성공모델 창출과 확산을 위해 선정하였으며, 대도시를 위주로 사업성, 지자체의 사업 의지, 사업모델 등을 종합 고려하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지역	대상	면적	용도지역
수도권	서울시 구로구	오류1동 주민센터	1,048㎡	일반상업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주민센터	2,115㎡	2종 일반주거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종합사회복지관 등	2,049㎡	준주거
	경기도 안양시	범계동 주민센터	612㎡	중심상업
강원, 제주권	경기도 의왕시	재향군인회관	993㎡	3종 일반
	인천시 동구	동구보건소 주민센터	3,996㎡	준공업
	제주도 제주시	일도이동주민센터	2,917㎡	일반상업
호남권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포중앙동 주민센터	1,705㎡	일반상업
	광주시 남구	남구청	26,733㎡	2종 일반주거
영남권	부산시 남구	여성회관	5,047㎡	일반상업
	울산시 남구	공관어린이집	1,696㎡	일반상업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지난 7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것으로, 올해부터 선도사업 물량(약 3천 호 내외)을 포함하여 1만 호 공급에 우선 착수하고 성과 확산을 통해 1만 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재생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입지가 양호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 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도입

2017.10.09. | 행정안전부 | 지진방재정책과

행정안전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정기회 본 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시행되면, 민간건축물과 시설물 등의 소유·자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 받고, 시설물 등에 인증표시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공공성을 갖춘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의 내진보강 적용대상을 ‘지자체’에서 ‘재난관리 주관기관’ 및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까지 확대하고,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 분과별 전문위원회 및 청문제도 등도 신설하였다.

분양광고 시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

2017.10.17. | 국토교통부 | 부동산개발정책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따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양 광고 시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 방문 점검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분양 광고에 내진 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받은 자의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 표시, ②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는 분양 광고를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하여 갈음할 수 있으며, ③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으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는 해약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에 의왕시 선정, 17개 지자체 수상

2017.10.17. | 국토교통부 | 도시정책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도시의 날’ 행사의 「2017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한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에서 경기도 의왕시가 대통령 상을 받았다. 경기도 의왕시는 택지개발, 재개발 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종합적 장래인구 추계를 고려하였으며, 의왕 테크노파크 조성 및 통합부채관리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범죄 예방환경설계(CPTED) 디자인을 적용한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사

업, 여성 안전을 위한 공원·등산로 지원 근무 실시 등 사회적 안전을 추구하고,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업인 ‘온(溫)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하여 사람 중심의 더불어 잘 사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 도시재생 뉴딜사업,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사업 등 정부의 핵심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최대 850호 규모의 예술인 주택 부천시에 건설

2017.10.19. | 국토교통부 | 행복주택정책과

국토교통부는 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예술인주택과 웹툰융합센터 복합건립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부천 예술인 주택은 부천의 지역 전략산업인 웹툰·애니메이션·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을 위해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내에 850호(행복주택) 규모로 공급된다. 그간 공급된 예술인 주택 사례 중 국내 최대 규모이며, 인근에 웹툰융합센터가 함께 건립되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전략산업 지원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국내 최초 사례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천 예술인 주택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이와 같은 부천시 모델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칠보 청소년 문화의 집’ 공공건축상 대상 수상

2017.10.25. | 국토교통부 | 건축문화경관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제11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에서 경기도 수원시 ‘칠보 청소년 문화의 집’이 대상(국무총리표창)으로 선정되었다. ‘칠보 청소년 문화의 집’은 발주기관 담당자가 새로운 청소년 수련 시설 조성을 위해 설계공모지침을 직접 만들고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설계 공모를 시행하여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였다. 특히,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세 차례나 교체되고 용도 및 재료가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존 설계안을 존중하여 설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준 높은 공공건축물을 실현한 점이 돋보였다. 공공건축상은 공공건축물 및 기반시설의 품격 향상에 이바지한 공공발주자의 노력과 성과를 발굴하여 격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수 공공건축물 조성 주체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공공발주자의 바람직한 역할을 정립해가고 있다.

▼ 수원시 '철보 청소년 문화의 집'



포용적이고 안전한 도시를 위한 도시계획 제도 개선

2017.08.23. | 국토교통부 | 도시정책과

국토교통부는 포용적 도시성장,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강화 등 최근의 여건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여 도시계획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용도지구 체계를 개편(통·폐합, 신설 등)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7.8.24.~17.10.10.)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용도를 완화할 수 있는 복합용도지구가 도입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과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토지의 복합적인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복합용도지구 지정을 통하여 완화되는 건축물 허용 용도는 문화, 업무, 판매시설 등의 시설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지시설 확충, 안전한 도시 조성 등 최근의 사회적 요구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용도지구 체계도 정비되어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7.11.07. | 국토교통부 | 기획총괄과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① 이전 지역인재 채용비율 및 채용기준, ② 지역인재 채용의무 적용 예외, ③ 지역인재 채용 노력 의무 부과, ④ 의무채용 비율 산정방법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7.11.14. | 행정안전부 | 생활공간정책과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① 화장실 남녀분리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 ②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개정사항은 기존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대수선 또는 증축)하는 시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향후 연간 1,200여 개의 남녀분리 화장실과 1,000여 개의 기저귀 교환대 설치 화장실이 보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녹색건축대전 대상에 ‘삼양 디스커버리센터’

2017.11.14.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17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대상 수상작으로 경기도 성남의 「삼양 디스커버리센터」를 선정했다. ‘삼양 디스커버리센터’는 민간기업과 건축가의 자발적인 녹색건축 실현 의지가 돋보이는 건축물로, 녹색건축의 저변 확대와 파급에 기여하고 녹색건축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학생과 건축주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전은 에너지이용 효율을 고려한 패시브 디자인을 적용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으며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녹색건축을 적극적으로 실현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모하였다.

▼ 삼양 디스커버리센터



경관 및 공공공간

태백·산청·영동 등 지역수요 맞춤형사업 19개 선정

2017.08.22. | 국토교통부 | 지역정책과

국토교통부는 낙후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지역수요 맞춤형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태백 슬로우 트레일 조성, 산청 향노화 산들길 조성, 영동 햇살 다담길 조성 등 19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사업들은 지역산업, 지역경관, 지역생활복지(BIS 사업 포함), 지역관광·체험 등 총 4개 유형의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실현 가능성이 크고, 주민 생활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내 파급 효과가 뛰어난 사업들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사업(20억원 미만, 15개)

사군	사업명	사업내용
태백	매봉산 슬로우트레일 조성	태백을 대표하는 사계절 자연친화형 생태관광지 조성(주차장 조성, 자작나무 숲길 생태탐방로 정비 등)
영동	영동 햇살 다담길 조성사업	스토리가 있는 철도면 사면 정비로 문화관광자원 조성(경부선 철도변 옹벽 정비, 다담길 정비 등)
부여	시인 신동엽과 부여를 걷다	신동엽문학관 일대를 상상력과 사색이 살아있는 거리로 조성(신동엽 시인 길 조성, 시인 언덕 조성, 마을 갤러리 조성)
임실	임실천 경관개선사업	식재, 스토리텔링 자원 활용을 통한 임실천 공원화(임실천 천변공원화, 하천변 경관개선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조성사업	연중 관광객 유입이 가능한 체험형 관광지 조성(짚트랙 설치, 캠핑파크 조성, 사계절 정원 조성 등)
진안	진안 Ind-culture 복합공간 조성	시장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확충(공영주차장, 문화의 거리 조성, 휴식공간 설치 등)
강진	탐진 동성리 프로젝트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으로 쇠퇴지역 활력 증진(암곡창고 외관정비, 주차장 휴게공간 조성, 정원 조성 등)
곡성	6070 낭만곡성	자이분화된 관광지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허브공간 조성(곡성 영화거리 조성, 창작 및 청년일자리 창출공간 조성)
장성	원님골 도시락 시간여행	노후된 옛 중심지의 주거 환경 정비 및 경관 조성사업(문화 및 역사길, 상생장터 기반시설, 원님골 테마공원 조성)
고흥	고흥군 버스 정보시스템 사업	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및 이용 활성화
고령	대가야의 목금토 꿈꾸는 시간여행자 센터 조성	대가야의 역사자원을 도시 활력의 자양분으로 활용(문화시설 건축 및 경관개선, 가로경관 개선 등)

군위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	방치된 폐교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기능 부여(어울림센터 리모델링, 다목적 공원 조성, 체험팜 조성 등)
봉화	역지춘향 나들터 조성사업	운곡전을 중심으로 한 춘양연의 관광자원 발굴 육성(백두대간수목원 첫걸음길, 역지춘향 다목적 광장 조성)
고성	공룡이 지나간 길 조성사업	상족암근립공원 공룡 탐방로와 연계한 인프라 정비확충(주차장, 지질쇼 탐방로, 공룡 탐방로 등)
산청	향노화 산들길 조성사업	산재된 한방 향노화 자원을 결합할 수 있는 구성체 조성(향노화 산들길 조성, 한방축육장 조성 등)

② 지역개발 연계사업(30억원 미만, 4개)

단양	영월	하나의 자연이 품은 단양,영월 한줄기 한자락	김삿갓 묘, 외씨버선길 등 도계지역 주변 관광자원 연계(연결로 설치, 캠핑장 편익시설 정비, 홍보관 설치)
순창	담양	순창 meta-circle 프로젝트	순창-담양군 간 국내 최장의 메타세카이어길 조성(메타세카이어길 조성, 순창 tour-station 설치 등)
영양	영덕	영&영 에코힐링 관광권역 조성사업	영양-영덕의 관광권역화를 위한 해안-내륙자원연계(멸종위기종 자연생태 체험장, 산바람, 바닷바람 전망대 등)
하동	광양	섬진강 여행의 베이스캠프 조성	섬진강 여행의 통합관광거점 창출(방문자센터, 이화만지 나루터, 입체횡단 보행교 등)

국토교통부는 사업 사전조사, 양방향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 지역 특화사업들이 많이 발굴되었으며, 이 중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동 연수 등을 통해 타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알려 지자체 사업역량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력 주역 「야시장, 골목경제」 뜨거운 관심 속에 최종 선정

2017.06.29. | 행정안전부 | 지역경제과

행정자치부는 2017년도 ‘야시장’ 및 ‘주민주도형 골목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야시장 4개소, 골목경제 5개소를 최종 선정하였다. 2013년 부산부평깡통시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9개소 야시장이 운영중이고 올해 4개소가 추가로 개장할 예정이다. 야시장 조성사업은 전통시장의 경관 조성, 판매대 제작, 청년몰 설치, 고객 편의시설 등을 통해 젊은 층과 관광객을 야시장으로 끌어모으며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긴밀히 연계된 지역 대표 관광명소를 만들어가고 있다.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은 주민주도하에 지역의 골목 특수성과 보유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쇠퇴한 골목상권의 명성을 다시 화려하게 되살리는 사업으로, 작년 부산백년송도골목과 경북 영주학사골목이 최초 개장했다. 행정자치부는 금년 공모사업이 지자체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아쉽게 최종 선정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맞춤형 컨설팅 지원할 예정이다.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관광·휴양 자원’으로

2017.08.01. | 국토교통부 | 기획총괄과

국토교통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 규제 완화 등이 담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관광진흥 지구는 수려한 경관을 보유한 해안지역을 규제 완화와 민간투자 등을 통해 관광·휴양의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 도입 가능 시설 확대,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을 구체화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①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 마련, ② 설치 가능한 시설의 종류 확대, ③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 완화이다. 국토교통부는 아름다운 해안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경관을 살리는 친환경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미 훼손된 지역을 지구 지정에 우선 고려하고, 환경 관련 평가 및 위원회의 심의를 엄격히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및 컨설팅을 거쳐, 지구 지정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차장 및 공원 활용하여 도시재생 경쟁력 높이기로

2017.09.13.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 분야의 미래 이슈를 공유하고 대응전략 등을 논의하는 「미래건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차장, 공원, 주민공동시설과 같은 공공공간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그 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공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김현아 국회의원은 공공공간이 공공성을 갖는 콘텐츠가 담기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그 의미를 되짚었다. 제해성 국건위 위원장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주차장 등과 같은 필수 공공공간이 주민 생활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만 하며, 앞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만들기

폐교 유휴지가 지역명소로 새 옷을 갈아입는다

2017.09.24. | 행정안전부 | 생활공간정책과

행정안전부는 지역 내 유휴부지를 활용, 이웃과 함께 꽃밭 등을 가꾸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의 경관 향상을 도모하는 ‘2017년 마을공동체 정원 사업’ 대상지 13개소를 선정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5년 추진한 ‘마을공동체 정원 사업’에 선정된 강원도 삼척의 미로정원은 폐교에서 공원으로 탈바꿈되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유휴부지의 정원 조성을 계기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경관개선 효과를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지역과 인구가 급격히 위축되어 가는 지역이 선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마을공동체 정원 사업이 주민참여를 높여 침체된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고 생활공간에 대한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증대한다는 계획이다.

▼ 강원도 삼척 미로정원



행자부, ‘2017년 마을공방 육성사업’ 대상 선정

2017.06.26. | 행정자치부 | 지역공동체과

행정자치부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지역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해 ‘2017년 마을공방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은 서울 양천구 청년 취창업 지원공간, 인천 남구 빈집 리모델링 지원공간, 대구 남구 마을문화창작소, 경남 김해 폐자원 업사이클링 제품 생산·판매, 전북 완주 로컬 아트 팝업 레스토랑, 전남 장성 편백 목공예 체험생산 등 총 11개다.

인공·자연환경이 조화로운 부산 청사포, 대통령상 수상

2017.07.10. | 국토교통부 | 건축문화경관과

부산 청사포가 올해 ‘품격 있는 국토, 아름다운 경관’으로 뽑혀 대통

령상을 받게 되었다. 대통령상으로 선정된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는 마을회관 및 청사포 마켓 건립 등을 통해 커뮤니티 회복을 꾀하고, 진입도로 정비, 공영주차장 건립 등을 추진해 방문객 접근성을 개선하였으며, 청사포 마을 내에 있는 시설물을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배치하여 인지성·접근성·편의성을 높인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도시·건축·토목·조경·공공디자인 등 경관 및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가 총망라되었으며, 올해 수상작들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경관디자인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행복한 농촌마을 20개, 우수한 마을 만드는 5개 시·군 선정

2017.09.19.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마을 만들기 사례를 발표·평가하는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마을 만들기 활동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평가·공유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콘테스트 결과, 마을경연 소득·체험 분야에 임실군 치즈마을, 문화복지 분야에 상주시 정양리마을, 경관·환경 분야에 밀양시 봉대마을이, 깨끗한 농촌만들기 분야에 합천군 내촌마을이 가장 우수한 마을로 선정되었다. 시·군경연(마을 만들기)에서는 충남 홍성군이 가장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농식품부는 활력있는 농촌과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농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콘테스트를 계기로 발현된 마을 주민들의 노력과 열정이 농촌을 재도약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참가자들을 포함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공공시설물 및 매체

전국 20개 지역, 명품 간판으로 아름다운 거리 만든다

2017.08.09. | 행정안전부 | 생활공간정책과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2018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 대상지 20개소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의 미관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간판이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린 아름다운 명품 간판으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간판개선 시범사업은 노후화되고 원색적인 간판과 창문이용 광고물을 정비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경관특성에 맞

게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디자인한 간판을 설치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간판과 창문이용 광고물 등을 개선하여 해당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방문객이 걷고 싶은 거리, 기억에 남는 거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횡계 버스터미널, 공공디자인으로 다시 찾고 싶은 장소 된다

2017.07.27. | 문화체육관광부 | 시각예술디자인과

문화체육관광부는 평창·강릉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자인 버스터미널 4곳의 개선 작업을 추진했다. 횡계 시외버스터미널은 옥외 간판과 안내표지를 개선, 대합실·매표소·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재배치하고, 누구나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디자인도 개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가온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진부와 장평 등 평창 버스터미널 2곳과 강릉 버스터미널 1곳의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또한 안내표지와 공간구조 개선, 편의시설물 재배치, 시설물 디자인 등 버스터미널 개선 과정들을 기록한 지침(매뉴얼)을 제작해 향후 버스터미널 개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원도와 전국에 보급할 예정이다.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운행 정보 등 안내 표지와 매표소 개선	 읽기 어려운 운행 정보와 비좁은 매표소	 읽기 쉬운 운행 정보와 편리한 매표소
대합실과 내부 시설물 개선	 대합실 내에서 버스 출발·도착 확인 불가, 고객센터 공간 부재	 대합실 내부에서 버스 출발·도착 확인 가능, 고객센터 공간 마련
버스 승차장과 외관 개선	 혼잡하고 승하차가 불편한 승강장	 안전하고 편리한 승강장

광역지방자치단체

건축 및 도시

서울시, 「2017년 서울시 건축상」 대상에 ‘한내 지혜의 숲’ 선정
2017.08.18. | 서울특별시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서울시는 「2017년 서울시 건축상」 대상에 ‘한내 지혜의 숲’이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건축상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 환경을 장려’하기 위한 상이다. 선정된 ‘한내 지혜의 숲’은 복합문화공간을 제 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을 진전시키고 한내근린공원을 활성화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또한, 자치구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분담 운영하여, 공공이 지어 주민에게 돌려주고 주민 스스로 운영·발전 시키는 주민자치 공간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 건축상 시상 과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서울시의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누리고 건축문화 확대에 관심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서울시 건축상 대상 ‘한내 지혜의 숲’



서울시, 「제2회 서울 우수 한옥 인증제」 시행
2017.08.02. | 서울특별시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서울시는 올해 「제2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통의 고유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서울시 한옥의 이정표 역할을 할 한옥을 선정하여 널리 알리고 지원하는 제도이다. 인증 여부는 서울우수한옥 인증심사위원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인증된 한옥에 대해서는 인증표식 및 인증서 시상과 정기적인 시설 점검 및 소규모 수선 지원 등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한옥의 품격과 미를 잘 살리고 실생활의 지혜를 담은 한옥, 안전한 주거환경을 담은 건강한 한옥에 대한 건축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

하고, 이러한 한옥 만들기에 참여한 장인의 이력관리 등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석유 대신 문화를 품다’ 문화비축기지 9월 개방
2017.08.24. | 서울특별시 | 공원조성과

석유비축 1급 보안시설 ‘마포 석유비축기지’가 ‘문화비축기지’로 다시 태어난다. 마포 석유비축기지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건설된 1급 보안시설로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되었으며, 상암월드컵경기장을 건설하면서 인근 위험시설로 분류되어 폐쇄됐다. 이를 생태문화 체험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해 9월 1일 정식개원했다. 건축물은 설계단계에서부터 녹색건축인증(한국산업기술인증원) 우수등급과 에너지효율등급(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최우수등급으로 예비인증을 받았으며, 준공 이후 본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재생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산업화시대에 철저히 통제되던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돌려주고, 문화비축기지가 도시 재생의 대표적인 명소로 기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 문화비축지기 전경



서울시, 도시재생 현장·사업·정책 총괄 ‘광역 자원센터’ 개소
2017.09.21. | 서울특별시 |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서울시 내 도시재생 사업과 정책, 현장, 정보를 종합하고 동시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개소했다.

서울 전역의 14개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를 총괄하는 광역센터로서 각 현장의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하고도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전담업무는 ①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추진, ② 주거환경 개선, ③ 전문인력 양성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며, 저층 주거지 중심의 소외 지역 원주민들이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으로 녹색건축물 인증 대상 확대

2017. 09. 28. | 서울특별시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서울시가 건축물 분야의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녹색건축물은 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 ② 단열·기밀 같은 건축물의 기본성능을 높여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 최소화, ③ 태양광·지열 등을 사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소비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① 적용대상 확대 및 성능평가 간소화, ② 소규모 건물(연면적 3,000㎡ 미만) 요구성능 현실화, ③ 신재생에너지 대체부지 설치 인정, ④ 친환경 보일러, 저공해자동차 설치기준 신설 등이다. 서울시는 친환경 녹색건축이 대기오염 감소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들에게는 관리비용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녹색건축 기준을 설계 단계부터 꼼꼼히 적용해 새는 에너지가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2018 회현동 ‘남촌’…북촌·서촌 안부럽다
2017.06.07. | 서울특별시 | 도시재생과

서울시는 회현동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남촌재생플랜’에 158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남촌재생플랜은 회현동(남촌), 중림동, 서계동, 남대문시장, 서울역 일대 등 총 5개 권역을 아우르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세부 내용 중 하나다. 사업 내용은 ① 남촌 5대 거점 재생, ② 남촌을 보행 중심가로 재생, ③ 남촌 가치공유 프로젝트 등 3개 부문, 15개 세부사업이다. 서울시는 숨은 이야기와 역사·문화자산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옛 남촌, 회현동이 북촌과는 또 다른 특색 있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다.

▼ 남촌재생플랜 사업(안)



상도동 노후주택주거지에 ‘10분 생활권’ 조성
2017.10.13. | 서울특별시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가 내년 11월 동작구 상도동에 들어선다.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수 없는 소규모 주거지 10필지를 하나로 묶어 재개발하고, 작은도서관과 같은 생활편의시설을 도보 10분 이내에 이용하는 ‘10분 생활권’을 목표로 조성하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이다. 또한, 개발로 인한 주택값 상승으로 원주민이 떠나지 않도록, 설계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해 재정착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사업 SH공사가 프로젝트 매니저(PM)를 맡아 설계·시공분양 등 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하며, 새로 지어지는 40세대 가운데 11세대는 기존 토지 등 소유자가 재입주하고 나머지 29세대는 SH공사가 선 매입해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



부산시-KISTI, 「도시정보 초연결 지능데이터 생태계 구축사업」 MOU 체결
2017. 06. 14. | 부산광역시 | ICT융합과

부산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초연결 지능 데이터 생태계 구축과 IoT융합 스마트시티 서비스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버스, 택시 등에 이동형

서 국내 최초로 바이모달 트램이 운행되면, 인천시로서도 차별화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주권을 확보하게 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그동안 차량 도입 지연에도 많은 이해를 해주신 청라 주민들의 불편을 일부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 청라국제도시전시 운행중인 바이모달 트램



인천시 37만 주거약자 위한 주거정책 밀그림, 주거복지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2017. 06. 29. | 인천광역시 | 도시계획국 건축계획과

인천시는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37만 명에 달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주거복지 정책 비전을 세웠다.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5대 추진 전략으로 ① 주거점유형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 ② 계층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③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공급, ④ 인천형 최저 주거기준 설정, ⑤ 주거복지지원센터를 통한 포용적 주거서비스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인천시,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만들기’ 중간보고회 개최

2017.07.19. | 인천광역시 | 도시계획국 도시경관과

인천시는 야간경관 조성을 위한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만들기」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는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시행했던 ‘2016 공무원제안 우수과제’로 선정된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야간경관 형성계획 수립, 10대 명소 선정(체험코스 포함), 시범사업 디자인개발 등이다. 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8억 원을 투입하여 인천시의 중앙공원 문화예술회관 일원을 야간경관 명소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내년에는 군·구와 협의를 통해 10대 야간경관 명소를 조성할 예정이며, 기존 조명방식 개선, 새로운 야간경관 형성, 포토존 조성, 체험코스 개발, 시티투어 버스 연계 등을 시행한다. 인천시는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야간경관 10대 명소 발굴과 특화사업을 통하여 인천을 국제적인 빛

의 도시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 2017년 시범사업 디자인



인천시,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 ‘2017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7. 09. 04. | 인천광역시 | 도시계획국 도시경관과

인천시는 ‘2017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에서 최우수상 수상의 쾌거를 거뒀다고 전했다. 출품한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인천형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주민참여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지속가능한 디자인 등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원도심의 특성을 살린 지역별 맞춤형 디자인을 통해 주거환경개선과 더불어 역사, 문화, 관광 활성화 등을 유발하는 지역 활력 사업이다. 원도심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디자인을 통한 원도심 활력 증진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올해에는 많은 이들의 기대 속에서 3개 지역이 디자인 마을로 재탄생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새로운 디자인 마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마을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2017 인천시 건축상’ 수상작 발표

2017.10.11. | 인천광역시 | 도시계획국 건축계획과

인천시는 ‘2017 인천시 건축상’ 대상을 선정했다. 대상 수상작인 ‘트리플 스트리트’는 분리된 대지를 연결하는 아이디어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고, 우수상 수상작인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은 미술관에 온 듯한 예술성과 저층으로 계획하였음에도 우수한 공간 활용에 큰 호평을 얻었다.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에게 상장 및 기념동판을 수여하고, 해당 건축물을 각종 홈페이지 및 홍보콘텐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 행정정보 Map서비스를 통해 현장 위치 및 건축물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 대상) 트리플 스트리트



▼ 우수상)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인천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에 시비 1조 원 투입

2017.10.24. | 인천광역시 | 도시균형건설국 도시재생과

인천시는 중구·부평구 등 원도심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원도심을 대상으로 원주민이 삶의 터전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설치, 공공임대수가 영세상인 우선 입주, 공가를 활용한 학습공간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 공영주차장 확대, 교통 사각지대 버스노선 투입, 마을 공공디자인 사업도 벌인다. 도시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완화, 노외주차장 폐지 등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을 짓고 주거 취약계층에 인천형 연구임대주택 ‘우리집’ 1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과 연계한 도로 주변 노후주택 개량, 인천 내항 1·8부두 상업·관광개발, 인천항 주변 개항창조도시 개발, 화수부두 수산관광지 개발, 부평 십정동 폐공장 영상문화 밸리 조성 사업 등도 주요 도시재생 사업이다. 또한, 산업 구조화를 위한 남동공단 재생, 전통시장의 현대화·특성화 사업, 폐쇄된 부평 은광의 역사관광 명소 개발 등도 추진한다.

광주시, 도시재생·공동체 사업 발굴 및 마을정책 연구를 위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설립 추진

2017. 06. 12. | 광주광역시 | 참여혁신단

도시재생과 공동체 사업을 발굴하고 마을정책을 연구하게 될 광주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설립이 본격화된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①

다양한 도시재생·공동체 사업을 발굴하고 도시재생·마을정책 연구 및 전략을 만들어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수렴과 조정 역할, ②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마을코디네이터 및 청년활동가 운영 등 협력사업 관련 교육업무, ③ 도시재생 종합체계 구축 및 관리, 도시재생 및 마을 네트워크 구축, 도시재생·공동체 자원 및 현장조사, 주민 역량 강화 및 사업 컨설팅 업무도 맡는다. 윤장현 시장은 우리 시민과 더불어 광주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고려인과 외국인노동자, 난민들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전 원도심 제2의 탄생! 특구로 새길 열다

2017.06.05. | 광주광역시 | 도시재생과

대전원도심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대전(동구,중구) 근대문화예술특구 선포식이 개최되었다. 대전시는 지난 4월 25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동구 삼성동, 중앙동, 신인동 일원과 중구 은행선화동, 대흥동 일원 1.8km²를 대전(동구,중구) 근대문화예술 특구로 지정받고, 오는 2021년까지 약 4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대건축유산과 문화예술자원의 융·복합을 통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선포식은 원도심의 근대건축유산과 문화예술을 특성화하는 특구 목적에 따라, 원도심 예술가들이 구심점이 되어 식전공연, 축하퍼포먼스, 특구 선포 방식 등 모든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여 그동안의 행사 관행을 과감히 탈피한 무대로 참석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대전시, 도시재생 이렇게 진행된다

2017.06.28. | 대전광역시 | 도시재생본부 도시정비과

대전광역시는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홍보와 대전시의 대응 방안을 관계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설명하고자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구역에서 해제된 정비구역 등에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 정비와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에 따른 주거 생활의 질 향상에 대한 부분을 소개했다. 시는 그동안 추진됐던 원도심 활성화와 새 정부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연계해 살고 싶은 원도심을 건설하겠다고 하였다.

대전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완료

2017.06. | 대전광역시 | 도시경관과

대전광역시가 서구 뒷단지 어린이공원과 대덕구 대화동마을에 시행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을 완료했다. 대화동마을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문화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추진됐으며, 야외무대, 커뮤니티 시설, 운동시설 및 운동코스 등 문화시설과 공폐가 가림막, CCTV, 비상벨, 그림자 조명 등 범죄 예방시설을 설치했다.

대전시,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추진

2017.08.11. | 대전광역시 | 도시정비과

대전광역시는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 사용검사(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빈집 등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사업에 따른 설계비와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공유 공간(주차장, 화단, 텃밭, 쉼터)을 설계에 반영해 시공할 경우에 설계비가 지원되며, 리모델링 사업은 개별세입자의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3년간 임대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에 추진되는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전문가(지역건축사 등)의 기술지원을 받아 대전시가 자금을 부담하는 상향식(Bottom Up) 사업방식이라는 데 의미가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서민의 주거환경개선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건물주는 임대수익 등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제19회 대전광역시 건축상’ 수상작 선정

2017.09.26. | 대전광역시 | 주택정책과

대전광역시는 올해의 ‘건축상’에 ‘한국타이어 테크노돔’ 등 5개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민간건축물 부문 금상으로 선정된 ‘한국타이어 테크노돔’은 타이어의 형태를 돔으로 형상화해 미래지향적인 하이테크 건물 이미지를 구현했고, 공공건축물 부문 금상으로 선정된 ‘효문화진흥원’은 효를 테마로 주변 자연과 어우러진 대지의 길을 통해 효의 공간을 표현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대전광역시 건축상은 지역의 건축문화 창달과 도시경관 증진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을 선정·시상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건축 관계자들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 민간건축물 부문 금상 : 한국타이어테크노돔



▼ 공공건축물 부문 금상 : 효문화진흥원



대전시, ‘중앙로 프로젝트 사업’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최종 심사 통과

2017. 09. 29. | 대전광역시 | 도시정비과

대전광역시는 중앙로 프로젝트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① 도심형 산업지원플랫폼은 인쇄산업 등 지역산업 인프라를 활용하고 선진형 도심산업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인쇄협업공장, 만화웹툰 창작실, 창업공간, 뷰티케어 등 도심 산업을 유치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250대)을 설치하며, ② 중앙로 산구 지하상가 연결사업은 대전천으로 단절된 산구 지하상가를 연결(약 100m)하게 되며, 아트공방, 청년 창업실 등 청년창업지원 공간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개소한 중앙동 청춘다락 등과 연계해 원도심 청년 거점 공간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계단만 설치된 지하상가와 지상의 연결동로에는 노약자 등 보행약자들이 걷기 편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 6개소와 엘리베이터 1개소가 설치된다. 시는 힘들게 국토교통부 관문심사가 통과된 만큼 실시설계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중앙로 프로젝트가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 건축물 내외부 안내표지판 디자인 개발 추진

2017.10.10. | 대전광역시 | 도시경관과

대전광역시는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알기 쉬운 건축물 내외부 안내표지판 디자인을 자체 개발해 내년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디자인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한 ① 주차장 내외부 안내, ② 공용공간 내 주요시설(피난시설, 소방시설, 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등) 안내, ③ 그림표지(픽토그램) 등 안내표지판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또한 안내표지판을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는 크게(Big), 그래픽 디자인은 단순하게(Simple), 필요한 정보는 반복적으로(Again), 그림표지는 하나로 통일되도록(Unity) 기획하여 가시성과 가독성이 뛰어난 안내표지판 디자인을 개발할 예정이다. 시는 건축물 설계 및 시공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디자인 적용을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확정

2017.10.30. | 대전광역시 | 도시계획과

대전광역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대덕구 회덕동 일원 장동-상서 간 도로개설사업 등 11개 사업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본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발굴하고 공청회를 거쳐 계획을 확정했으며, 지속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과정을 거쳐 11개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고, 사업비 392억 원(국비 196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2년까지 사업 기간이 연장되면서 신규 발굴사업들이 많이 반영되었으며 도로개설, 인도교 설치, 소화천 정비, 공원 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을 통해 낙후된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울산시, ‘2017년 울산광역시 건축상’ 당선작 발표

2017.10.27. | 울산광역시 | 건축주택과

울산광역시는 ‘2017년 울산광역시 건축상’ 대상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상에 선정된 ‘매곡도서관’은 북구 매곡로 138-19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애인인 지형을 정확히 활용한 입체적 설계방식이 탁월하고 마을 ‘공공도서관’의 기능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축상으로 선정된 7개의 작품에 대한 시상식은 11월 2일 ‘제1회 건축문화제’ 개막식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선정된 건축물에는 동판을 부착하고 건축주 및 설계자 등에 대하여는 상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시는 우수한 건축물이 많이 건립되어 시민들의 생활공간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다양한 건축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세종시, ‘주거복지 종합계획’ 수립 추진

2017.10.17. | 세종특별자치시 | 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가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주거복지 종합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세종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 등 주거복지 지원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주거실태 조사를 통하여 주

택 현황 및 변동, 가구 특성을 고려한 주택 수요를 예측하고, 주거복지 수요를 파악하여 주거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세종시에 적합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주거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세종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경관 및 공공공간

서울시, 성수동 레미콘 공장 부지에 서울숲 조성 추진

2017.07.10. | 서울특별시 |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서울시는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이 완전 이전·철거되며, 공장이 사라진 부지에 미완의 서울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공원 조성뿐만 아니라 승마장, 유수지 등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주변 시설 용지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공간 계획을 세운다는 구상이다. 또한, 철도차고지 터를 미국 시카고의 밀레니엄파크의 사례처럼 공원과 문화시설이 융복합된 공간으로 되살리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밀레니엄파크는 유명 건축가인 프랭크게리의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다양한 문화 활동이 촉발된 세계적인 명소이다. 시는 시민들과 숲의 구상단계부터 함께 고민해, 한강과 종량천 그리고 공원이 만나 이루는 장소적 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트렌드 등을 반영한 세계적 문화명소로 조성해나가겠다고 하였다.

서울시, 도심속에 공공미술을 적용한 열린 휴식공간 조성

2017.10.10. | 서울특별시 |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도심활력 프로젝트’가 주민참여 도심권 소규모 도시재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건물주나 상인 등 지역의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비용을 투자해 인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형태의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이다. 지난 5월에는 지역 내 어린이재단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비용을 투자해 서울시 도로부지에 ‘도심속 휴식공간’을 조성했고, 이어 다동무교동에도 만들어진다. 시는 공공주도로 계획을 수립한 후, 단계적 사업실행에서 소단위 개별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내 건물주, 상인들과 함께 전문성 있는 관련 부서와 협업해 최적의 솔루션을 마련하고 실행함으로써 신속하게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끌어올려, 다동무교동이 그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단과 구체적인 공공미술 적용 방안을 논의해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재탄생 시킨다는 계획이다.

대구시, 올해 9개소에 '옥상텃밭 조성사업' 실시 2017.07.14. | 대구광역시 | 건설도시국 균형발전사업단

대구시는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옥상텃밭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유휴공간인 건물 옥상을 활용한 옥상텃밭을 조성해, 도심 속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지역공동체 복원을 도모한다. 그간 사업을 통해 조성된 옥상텃밭 중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곳은 달서구 월성종합사회복지관의 '월성하늘정원'이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수확한 작물을 무료급식소 또는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등 도심 속 녹지공간 확보 및 생활환경 개선,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 주민 간 소통과 지역공동체 복원의 역할로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에 대구시는 지속적인 옥상텃밭 조성 지원사업을 통해 도심 속 녹지공간을 확보해 주민들이 함께 텃밭을 가꾸며 삶을 즐기고 교류와 소통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복원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즐거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 달서구 월성종합사회복지관의 '월성하늘정원'



대구시, 동대구로 주변 간판 정비사업 완료 2017.09.07. | 대구광역시 | 도시디자인과

대구시가 품격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한 '동대구로 주변 간판 정비사업'이 완료됐다. 이는 올해 5월부터 88개 점포의 120개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간판을 제작했으며 8월 말에 설치까지 완료하였다. 한 업소당 최대 가로간판 1개와 돌출 간판 1개씩을 제작·설치하였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시행됐다. 시는 동대구로 주변 간판 정비사업으로 지역의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되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품격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 아름답고 특색 있는 광고물이 제작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좌)정비전, (우)정비후



대구시, 팔달시장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2017.09.11. | 대구광역시 | 도시정비과

대구시는 공공주도로 추진 중인 노원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팔달시장 주변 지역 환경이 개선되어, 새롭게 활기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팔달시장 주변은 2008년 대구시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4년에 'LH노원 천년나무' 공사를 시작했으며 이달 중순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해당 지역은 재래시장, 도시철도 역세권을 접하고 있으며 침산생활권과 인접한 지역으로 교통여건이 탁월해 양호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어 불량한 가로환경과 위험한 보행로 등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이에 시는 도심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입주가 시작되는 올해 9월 중순에는 대규모의 인구가 유입되어 팔달시장 및 주변 지역이 활기를 띠고 주거환경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복지 증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갈 것이며, 지속적인 사업 시행으로 더욱 나은 도시공간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하였다.

▼ 노원1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후 전경



대구시, 대구 관문경관 개선사업 착공 2017.09.27. | 대구광역시 | 도시디자인과

대구시는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 및 경관창출을 위해 관문경관 개선사업에 착공했다. 주요 사업대상지는 북대구 톨게이트와 시내로

진입하는 연결교량인 서변대교로, 총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된다. 북대구 톨게이트는 북대구 톨게이트 특성화사업을 통해 톨게이트 구조물 리모델링 및 경관조명 개선이 이뤄지고, 북대구를 대표하는 야간 경관명소인 서변대교는 노후한 경관조명 시설물을 개선해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상징물로 탈바꿈된다. 시는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대구의 정체성과 독창성이 반영된 디자인으로 관문경관을 새롭게 조성해 대구의 첫인상과 도시브랜드 가치를 크게 향상하겠다는 계획이다.

▼ 북대구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



▼ 서변대교 야간경관 개선사업



울산시, '2018년 도시경관 형성 시범사업' 선정 2017.07.28. | 울산광역시 | 도시창조과

울산시는 남구 '삼호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북구 '바다와 같이 걷는 해안 산책로 조성 사업'이 '2018년 도시경관 형성 시범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남구 '삼호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환경 개선과 무거천 1교를 정비하여 정주환경과 하천 경관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북구 '바다와 같이 걷는 해안 산책로 조성 사업'은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산책로 및 쉼터를 조성하며, 강동해안 산책로와 강동누리길을 연결하여 북구 해안관광루트를 완성하기 위한 해안경관 개선사업이다. 시는 선정된 2개의 사업이 하천과 해안의 경관적 특성을 살리는 조화로운 경관 형성 목적에 부합했고, 사업의 성과목표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관 사업으로 제시되어 심사위원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였다.

▼ 디자인안



울산시, 행안부 '2018년도 간판개선 시범 공모사업' 선정 2017.08.10. | 울산광역시 | 도시창조과

울산시의 '중구 중앙길'과 '동구 방어진 구시가지'가 행정안전부의 '2018년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간판개선사업에 총 9억1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2018년 1월에 착수에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중구 중앙길 간판개선사업'은 64개 업소의 간판 120개를, '동구 방어진 구시가지 디자인 간판개선사업'은 간판 257개를 정비한다. 한편 울산시는 명품 언양길, 동구 대학길, 중구 중앙길, 중구 문화의 거리, 남구 왕생로등 5곳에 대한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완료했다.

마을만들기

서울시, 홍제동 문화마을에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2017.07.13. | 서울특별시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서울시는 서대문구 홍제3동 5번지 일대 '홍제문화마을'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문가를 파견하고, 주민공동체 운영비 및 주민역량 강화 비용을 지원하며, 주민주도의 마을계획이 수립·조성될 수 있도록 서대문구와 함께 맞춤형 행정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홍제문화마을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민관합치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게 되며, 주민주도의 마을계획 수립 지원과 공동체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선진지역 답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다른 주거환경관리구역 주민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여 공동체 마을이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홍제문화마을 주민들은 정기적인 주민 워크숍 등을 통하여 직접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주

민공동체운영회 구성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 상도4동에 ‘함께 사는 골목동네’ 조성 추진

2017.07.14. | 서울특별시 |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서울시는 ‘동작구 상도4동 도시재생시범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 됐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역발전과 공동체활성화 및 주거지 통합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한다.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르면 2018년까지 총 100억 원을 투입해서, ① 어르신-어린이가 ‘오순도순’ 함께 사는 마을, ② 자연-역사자원과 ‘파릇파릇’ 함께하는 마을, ③ 마을경제-공동체가 ‘무럭무럭’ 함께 성장하는 마을을 주제로, 3개 분야에서 총 10개의 마중물사업을 실행하게 된다. 마중물사업 외에도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를 비롯한 상도근린공원 정비, 까치 생태놀이터 조성,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총 31개의 사업을 발굴하여 연계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활성화계획(안)이 고시되면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의 ‘上道(상도) 4동’에서 어린이-어르신이 함께 살고, 마을의 역사-자연자원과 함께하고, 마을경제-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함께 사는 골목동네 ‘相道(상도) 4동’>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장위13구역에 ‘골목마다 이야기를 품은 장위마을’ 조성 추진

2017. 07. 14. | 서울특별시 |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서울시는 ‘성북구 장위동 도시재생시범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 됐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① 가로환경 개선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마을길을 조성하며, 테마골목길 조성을 통한 골목보행환경을 개선, ② 장위동의 지역자원을 발굴 활용한 주민편의시설 및 복지문화거점 조성, ③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진행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주민 요구 공간에 다양한 거점시설을 조성, ④ 기존 노외주차장 부지에는 주민편의시설, 창업지원시설, 맞춤형임대주택(도전숙),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용도가 도입되는 복합용도의 시설로 조성한다. 이중 4개의 거점시설은 지역관리기업(CRC)을 통하여 운영-관리해 나가며, 향후 시설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도시재생의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장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고시를 통해 각 단위사업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장위13구역을 기반으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구역 전체에 자생력 높이고 공동체 회복이라는 도시재생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동주택, 도서관, 도시텃밭 등 ‘공동체주택 마을’ 첫 조성 추진

2017. 09. 06. | 서울특별시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서울시가 면목사거리~중랑천 일대에 공동체주택, 도서관, 도시텃밭 등이 들어서는 ‘공동체주택 마을’을 처음으로 조성한다. 이 마을의 특징은 공유공간, 거리, 도서관, 공원에 이르기까지 ‘책’을 테마로 조성된다는 점이다. 면목사거리와 중랑천 사이 가로변은 색선별로 ① 자연+책으로 힐링, ② 아날로그, ③ 삶+책, ④ 활력을 테마로 ‘책 익는 거리’가 조성된다. 시는 시 소유의 부지 제공, 보도 등 기반시설 지원, 공동체주택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건립 및 운영 등을 맡는다. 시는 노후 다세대다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살자리+일자리+지역공동체가 결합된 지역 맞춤형 공동체 주택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 주거문화를 확산하고자 이번 마을을 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공동체주택 마을



부산시, 매축지마을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행복마을사업’ 추진

2017. 07. 11. | 부산광역시 | 도시재생과

부산광역시가 마을 단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4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해 ‘친환경 에너지마을’을 조성한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마을단위 공동체에 발전시설을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로써 시민역량이 강화되고 ‘클린에너지 도시, 부산!’의 입지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보였다.

대전시, 원도심 청년거점 공간 및 마을공동체 허브, 청춘다락 개소식 개최

2017. 09. 27. | 대전광역시 | 도시재생과

대전광역시가 원도심 청년거점 공간 및 마을공동체 허브로 조성한 청춘다락이 개소식을 하고 ‘청춘, 대전을 만나다’를 주제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청춘다락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지난해 7월부터 청년, 전문가 등 시민과 함께 기획단을 구성해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용자 중심으로 조성했다. 청춘다락 1층의 공유서가는 권선택 시장을 비롯해 시민 40여 명이 기증한 도서 800여 권으로 채워졌다. 시는 청춘다락에서 청년들이 함께 꿈꾸고 활동하며 마을공동체를 형성해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심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 청춘다락



광주광역시, ‘다가치 그린’ 동네 만들기 사업 추진

2017.06. | 광주광역시 | 환경정책과

광주광역시가 시민 주도형 동네 환경공동체 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다가치 그린’ 동네 만들기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다가치 그린’은 모바일 앱을 통해 환경지킴이 활동을 하고 포인트를 쌓아 동네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시민 주도형 동네 관계망이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12개 단체는 포인트 펀딩 방식으로 환경지킴이 활동을 한 시민들로부터 기부받은 포인트로 동네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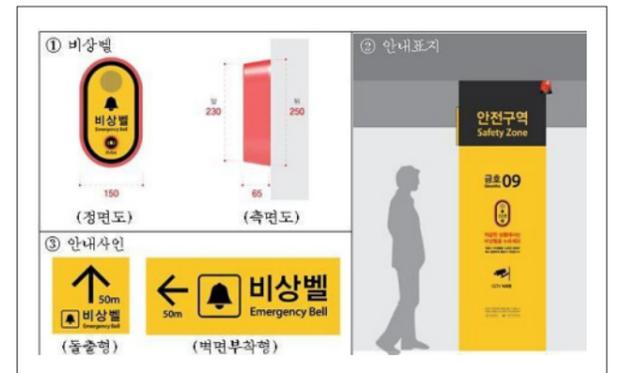
공공시설물 및 매체

서울시, ‘비상벨 표준형 디자인’ 개발 완료

2017.06.13. | 서울특별시 | 도시공간개선단 도로시설과

서울시내의 통일성 없는 비상벨이 눈에 잘 띄는 ‘표준형 디자인’으로 통일된다. 새 비상벨은 서울시가 범죄예방디자인 색채로도 사용 중인 안전상징색 ‘코닥엘로우’를 채택하여 타 안전시설과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또한, 인지성 향상을 위해 비상벨 이미지를 그림 문자로 도안했다. 비상벨 표준형 디자인은 향후 비상벨을 신규 설치하거나 개보수 및 교체 시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새 디자인이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나 단번에 비상벨을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는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의 일종이며, 조속히 시 전역으로 확대해 시민안전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 비상벨, 안내표지, 안내사인 디자인



부산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 추진

2017.05.25. | 부산광역시 | 도시경관과

부산시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① 스마트폰 활용 신고체계 구축, ② 민-관-경 합동 단속 및 캠페인 전개, ③ 불법 현수막 등 수거 보상제 시행, ④ 대량 게시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단속정비강화, ⑤ 공공목적 광고물 실태점검 및 정비, ⑥ 불법 유동광고물 구군 합동 점검 등을 추진한다. 한편, 부동산 경기 상승에 편승한 아파트 분양, 주택조합 설립·회원모집 등의 불법 현수막이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불편이 증가하여 집중 정비에 나선다.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다운 부산, 살기 좋은 부산, 다시 찾고 싶은 부산’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종로에 세계최초 이동형 정류소 신설

2017.08.28. | 서울특별시 | 교통운영과

서울시는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도로공간재편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9월 초 공사를 시작해 오는 12월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큰 틀에서 ①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신설, ② 도로 공간 재편을 통한 대중교통 중심의 보행 친화 공간 조성, ③ 바깥 차로 폭을 넓혀 조업공간 확보, 교차로, 유턴 등 교통여건 개선, ④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민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등 네 가지로 추진된다. 시는 이해관계자 및 지역 주민과 꾸준히 소통하여, 공사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도로공간재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 세계 최초로 설치되는 이동형중앙버스정류소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건축 및 도시

백제역사 살아 숨 쉬는 공주역 만든다

2017.06.29. | 충청남도 | 국토교통국 건설정책과

충청남도가 '백제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관광 테마역' 조성해 나선다. 주요 내용은, 공주역사와 광장 등 유희부지를 활용하여 ① 백제

역사 다목적 회의실과 백제 이야기 공원 조성, ② 도자기 제작 및 VR관 등 체험시설 등을 설치한다. 충청남도는 6월 중에 계획수립을 마무리하고 향후 국토교통부,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과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을 협의하여 공주 테마역 조성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주역에 백제를 주제로 한 공원과 다양한 체험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지역민뿐만 아니라 백제문화역사 탐방 관광객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주역이 백제 역사문화 유적지구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견고히 하고, 논산, 계룡, 청양지역 관광지와 연계하여 충청지역의 관광플랫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KTX 공주테마역, 백제역사 주제 디자인과 전시 공간 계획도



'슬레이트 처리 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

2017.07.13. | 충청남도 | 국토교통국 건축도시과

충청남도가 '2016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슬레이트 처리사업 실적을 토대로 목표대비 철거율, 예산 집행률, 지자체 참여율, 사업비 잔액 활용 여부, 추가 예산확보 여부 등 총 5개 항목으로 나눠 시행됐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주택에 한해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가구당 최대 336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2011년도부터 철거사업을 시작하여 지난해에만 1,804동 철거하는 등 총 8,031동을 철거했다. 올해도 1,600동의 주택을 정비하여 서민층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정주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노후 영구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추진

2017.08.06. | 충청남도 | 국토교통국 건축도시과

충청남도가 도내 15년이 경과한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노후

화된 아파트 내 ① 좌변기 주변 안전 손잡이 설치, ② 상하 이동 가능한 샤워기 설치, ③ 현관 센서 등 및 안전 손잡이 설치, ④ 레버형 손잡이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과 벽지 개선, ⑤ 발코니 새시 교체 등 세대 내부 환경 개선, ⑥ 아파트 외벽 도장, ⑦ 외벽 단열, ⑧ 단지 내 아스콘 재포장, ⑨ 기계-전기설비 보수 등 안전사고 예방과 공용 시설 개선을 위한 개보수이다. 이번 사업추진으로 입주민의 주거 환경과 편의시설이 개선되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세대 내 안전성 확보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주거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남도, 국토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4개 지구 670호 선정

2017. 08. 21. | 충청남도 | 국토교통국 건축도시과

충청남도가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서 도내 4개 지구 670호가 대상지로 선정, 전국 광역시·도 중 1위에 올랐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마을정비계획과 연계해 근린재생을 도모하는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 모델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지방 중소도시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150호 내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 및 공급, ②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도로, 광장, 복합커뮤니티시설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경우 공공주택건설사업과 함께 대상지 주변의 낙후된 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해 주변 지역 정비 계획 수립에도 지원받게 된다. 충청남도는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그동안 소외됐던 중소도시 읍면 지역의 활성화와 인구 유입 등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도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 맞춤형 주거복지가 실현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인구감소 시대' 도시계획 다시 세운다

2017.09.06. | 충청남도 | 국토교통국 건설정책과

충청남도가 저성장, 인구감소 등 미래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계획인구 중심에서 주민참여 중심으로 전환한 '충남형 도시계획 수립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주요 내용으로 ① 시군 도시계획 운영실태 및 국토부 수립지침의 문제점 분석, ② 인구감소 및 저성장 시대 도시계획 수립 방안, ③ 주민밀착형 생활 인프라 공급 방안, ④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 및 시설 결정 기준 등 점검, ⑤ 환경계획과 연동된 도시계획 수립 방안, ⑥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계획 수립 등을 통해 기존 수립된 도시계획과 충남형 도시계획 수립의 차별성 확보, ⑦ 계룡시 엄사면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형 도시계획 수립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사람 중심의 공간, 분권과 자립 시대에 걸맞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 공간을 조성하여, 이러한 기초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포, 자연생태 체험학습 중심지로 키운다

2017.09.08. | 충청남도 | 복지보건국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충청남도는 역사 문화 자원과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춘 내포신도시 지역에 자연생태 중심의 영유아 체험학습장 '가칭)자연놀이뜰'을 2021년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자연놀이뜰은 '어린이 인성 함양을 위한 꿈 실현 공간 조성'을 비전으로 하며, 인성학습 실천의 장, 지역공동체 형성, 내포신도시 브랜드화를 목표로 조성된다. 또한, 자연 놀이, 자연체험, 자연 가꿈, 건강 안전, 문화예술 등 다섯 가지 테마를 내포신도시 내 홍예공원 인근 부지에 구현할 계획이다. 자연놀이뜰 조성으로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자연생태 중심의 체험학습장이 마련되면 도내 영유아의 인성학습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7년 신규 도시재생 뉴딜 공모선정 계획' 수립

2017.10.17. | 충청남도 | 국토교통국 건축도시과

충청남도가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응한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50곳 이상 유치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다. 지난달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2017년 신규 도시재생 뉴딜 공모선정 계획'에 따르면, 올해에는 전국 70곳에 국비 4,600억 원을 지원하여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공모 유형은 ① 우리 동네 살리기형(소규모주거), ② 주거지 지원형(주거), ③ 일반 근린형(준주거), ④ 중심 시가지형(상업), ⑤ 경제 기반형(산업·역세권)이 있다. 충청남도는 올해 시범사업 5곳을 유치, 국비 4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제도 마련에 집중하며, 도민 모두를 위한 도시재생에 필요한 기반을 만들어, 2018년 이후부터 매년 10곳 이상의 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셋개 뱃길 되살리고 드론 테마파크 조성

2017.10.31 | 충청남도 | 미래성장본부 미래정책과

충청남도는 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제3기 충남도 균형발전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시·군별 주요 사업 및 주요 내용은 ① 공주 : 생태 문화지구 내 녹색치유 관광자원 확충 사업, 폐교 활용 휴양마을 조성, 도시농업 활성화 거점 조성, ② 보령 : 남포방조제 조류지 해양

레포트 체험장 조성, 셋개포구 뱃길 복원사업, 보령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체계 구축, ③ 논산: 호반의 도시, 휴양 관광 산업 활성화, ④ 금산: 금산인삼약초 산업 구조 고도화 사업, ⑤ 부여: 123사비 청년 공예인 창작클러스터 구축, 양송이 첨단 농업 생산단지 구축, ⑥ 서천: 장항 6080 골목길 프로젝트, 장항 역사문화 시공간 ‘도선장 가는 길’ 조성, 행복나눔 마을공동체 활성화, 한산모시관 연구센터 리모델링, ⑦ 청양군: 장곡천 수변생태체험파크 조성 사업, 휴양랜드 보안사업, 백제문화 체험박물관 콘텐츠 강화사업, ⑧ 태안: UV랜드 조성 및 활성화, 가로림만 해양 생태 문화 복원이다. 충청남도는 제3기 균형발전 개발계획을 도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는 사업과 지역 성장 동력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앞으로 사군 특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내 전체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물 없는 민간건축물 ‘BF 인증’ 지원

2017.11.01. | 충청남도 |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충청남도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내에 신축하는 민간건축물이 BF인증을 취득할 경우 수수료의 50%를 지원한다. BF인증은 예비인증과 본 인증으로 나뉜다. 예비인증은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 인증 전에 신청하며, 본 인증은 개별시설 공사 완료 후에 신청해 전문기관이 설계도면을 검증토록 한다. 민간건축물 시설주가 인증수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인증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수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함께 인증지원 신청서를 도에 제출해야 한다. 충청남도는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의 BF인증 취득 확대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등 누구나 불편이 없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을 강화하여 나아갈 방침이라고 하였다.

충남광역외국인근로자쉼터 새로 짓는다

2017.11.15. | 충청남도 | 경제통상실 일자리노동정책과

충청남도는 충남광역외국인근로자쉼터 신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남광역외국인근로자쉼터는 지난 4월에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하늘중앙교회 교육관 내에 문을 열어 외국인 근로자 임시 보호, 한국어 교육 및 구직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새롭게 들어서는 충남광역외국인근로자쉼터는 천안시 백성동에 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서게 되며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돌입한다. 충청남도는 새 쉼터가 도내 외국인 근로자 7만여 명에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곳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내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 한국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 기공식 개최

2017.07.07. | 천안시 | 건축과

천안시는 목천읍 서리에서 ‘한국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 기공식을 개최했다. 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 활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모아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사회공헌사업이다. 한국해비타트 충남세종지회는 목천읍 서리에 연립주택 28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며, 이번에 1차로 연립주택 12세대, 향후 16세대를 건립한다. 한편, 천안시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차자금지원,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사회복지 생활시설 개보수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2017.09.04. | 천안시 | 시설공사와

천안시와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는 9월부터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약자 22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싱크대 교체, 욕실리모델링, 단열공사, 창호 교체,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등을 실시한다. 주거복지지원센터는 상반기에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속한 16세대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맞춤형 집수리를 진행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한 바가 있다.

천안시, 도시재생 뉴딜 TF팀 본격 가동

2017.06.23. | 천안시 | 도시재생과

천안시는 도시재생 뉴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앞으로 TF팀은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노후 주거지에 마을주차장,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무인 택배센터 등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지원하게 된다. 또 저층주거지 재생모델 개발, 원도심 상권에 도시경쟁력 제고 자산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낙후된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천안시는 도시주택기금을 투입한 전국 최초의 동남구청사 부지 복합개발사업이 순항하며 대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TF팀 가동으로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산재한 노후 주거지와 쇠퇴 상권 등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천안시 동남구청사 조감도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용역 착수

2017.09.04. | 천안시 | 도시재생과

천안시·LH·코레일은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사업화를 위한 구상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기본 구상안으로는 복합개발을 통해, 창업지원센터, 청년임대주택, 첨단산업 클러스터 등 다양한 기능 도입을 검토했다. 또한, 공간의 효율적이고 집약적 활용을 위해 철도시설을 재배치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코레일, LH와 긴밀히 공조해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모델 중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올해 공모 제안을 신청할 예정이며, 3개 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실무협의회를 통해 용역을 수행할 방침이다. 천안시는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한 전국 최초의 동남구청사 부지 도시재생사업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LH, 코레일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식으로 새 단장

2017.11.14. | 천안시 | 농수산물도매시장

천안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시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1년 농림축산식품부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응모, 선정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설현대화와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했다. 이번 시설현대화사업 마무리로 농수산물 물류 효율화와 유통시스템이 개선되었고, 시장규모보다 협소했던 주차장 확대로 편의성이 증가해 중부권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도매시장이 될 전망이다.

공주시, 고도이미지찾기 한옥지원사업 지속 추진

2017.09.26. | 공주시 | 창조도시과 세계유산팀

공주시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 중인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시행 기간을 당초 2018년 12월에서 2019년 12월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고도(古鄆)지구 내 한옥 등을 신축할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금성동, 반죽동 등 고도 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된 500여 필지이다. 한옥의 경우 최대 1억 원, 한옥 건축 양식 및 가로변 건축물 외관 정비사업은 최대 5천만 원, 담장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문화재청 국고보조 사업으로는 한옥 지원사업 중 최고액을 지원하고 있다. 공주시는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한 건축규제로 수십 년간 개발이 제한되고 낙후된 고도지역 주민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관심 있는 분은 한시라도 빨리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공주시, 웅진백제왕 송덕전 준공

2017.09.29. | 공주시 | 문화재과 문화재정책팀

공주시는 백제문화를 널리 알리고 백제의 전통과 위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웅진백제왕 송덕전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건립된 송덕전은 총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해 4,400㎡의 부지에 송덕전, 전사청, 삼문, 담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 전통의 미를 살려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외관 디자인과 실용적인 공간으로 설계됐다. 시는 이번 송덕전 건립을 통해 백제문화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함은 물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을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관광객 유입이 확대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공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 ‘산업부장관상’ 수상

2017.10.30. | 공주시 | 기업경제과 전통시장팀

공주시는 ‘2017 전국 우수시장박람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시는 중동 공영주차장 건립, 유구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및 광장 조성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 고객들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시장 상인회와 소통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공주 밤마실 야시장을 개장하는 등 시장경쟁력을 강화했다. 한편, 시는 올해 지역선도시장 공모사업에 공주산성시장이 선정돼 25억 원을 확보, 2019년까지 산성시장 스토리텔링개발, 특화상품 고도화 등을 이뤄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충남 대표 선도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공주시, 인구증가 견인차 ‘자족형 전원도시’ 개발 시동

2017.10.31. | 공주시 | 정책사업과 특화단지조성팀

공주시가 전국의 전원생활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주 전원도시(가칭 공주팜그린시티)를 개발하는 금강도시개발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주팜그린시티개발 시범사업지구인 동송지구 시범 마을에는 공주 팜그린시티 홍보관과 더불어 공주 알밤한우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공주한우플라자’가 개발될 예정이다. 앞으로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목표인 내년 초 착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후 12년 동안 매년 4백여 세대의 내진형 목조 단독주택과 전원형 타운하우스 등이 도시의 편리함과 전원생활을 함께 원하는 전국의 전원생활 입주희망자들에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주시, 공주문화관광지 내 민간호텔 건설사업 MOU체결

2017.11.16. | 공주시 | 도시정책과 도시개발팀

공주시가 공주문화관광지 내 민간호텔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주문화관광지 내에 들어서게 될 민간호텔은 (주)공주관광개발이 750억 원을 투자해 약 2만 5천㎡ 부지에 총 11층, 객실 300실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호텔, 스파, 컨벤션 등을 갖추게 된다. 이날 협약을 통해 공주시와 (주)공주관광개발은 공주문화관광지 민간호텔 건설사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로 했으며, 시는 사업에 따른 각종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공주시는 관광객이 편히 머무르고 싶 수 있는 호텔 유치에 박차를 가해 관광발전 기반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당진시, 문화유산 활용해 새로운 가치 창출

2017.08.31. | 당진시 | 홍보팀

당진시가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사업을 잇달아 선보이며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기지시줄다리기의 경우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와 행사장을 찾아 줄다리기를 시연행사를 선보이며 우리의 소중한 줄다리기를 문화로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시는 천주교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제3회 프란치스코데이 행사에서는 충청남도 기념물 제145호로 지정된 합덕성당을 배경으로 건물 외벽에 LED 조명을 비춰 영상을 표현하는 미디어 파사드를 선보여 눈길을 사로잡았다. 시는 문화의 복원과 보존에 그치지 않고 이를 활용한 문화사업을 선보이거나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

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천주교와 무형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더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고 문화육성 브랜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합덕성당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 본격화

2017.07.26. | 당진시 | 건축과

당진시에 따르면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사업 대상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 보상률은 7월 현재 98%이며, 나머지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향후 재결정차를 진행해 수용할 예정이다. 이후 추진 일정은 이르면 올해 10월 중 착공해 2020년 말까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며, 주택용지와 입주민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유치원과 초·중학교, 공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교육시설 주변은 학교시설과 연계해 에듀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어서 개발이 완료되면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당진 시내 남동부지역의 통학난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시는 인근 수청지구와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면 총 1만여 세대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2020년 전후로 완성돼 시의 도시 공간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와 기존 도심 간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



보령시, 평생학습도시 지정 기대감 높아졌다

2017.06.05. | 보령시 | 문화공보실

보령시는 평생학습도시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고 밝혔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사업은 공모를 통해 평생학습 인프라 및 추진 계획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 국비를 지원한다. 시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① 프로그램 예산에 집중 투자해 교육 지원시스템과 네트워크 확충, ② 평생학습도시로서 글로벌 서해안 명품도시 보령에 걸맞은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참여 독려, ③ 농어촌과 도시 특성에 맞는 권역별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 ④ 시민의 자발적인 학습공동체 조성 등 생활 속 학습문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산 중앙도서관, 패시브 건축 선도

2017.06.05. | 아산시 | 공공시설과

아산시는 국토교통부의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대상이자 전국 패시브 공공건축물의 랜드마크로서 기대받는 아산 중앙도서관이 정상 건립 중이라고 밝혔다. 아산 중앙도서관은 지하 1층~지상 5층의 규모로 북카페,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열람실, 문화강좌실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 공간으로 계획된 대규모 공공건축물이다. 향후 시민 문화서비스 제공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아산 도서정책을 주관하는 대표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아산 중앙도서관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과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득하였고 무엇보다 패시브 건축물 설계 인증(2.8L/m²a(연간 난방에너지요구량))을 득하여 전국 최상위 에너지 절약 건축물로 건립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신재생에너지 및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 건축물 에너지관리 시스템) 설치비 약 2.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국가 제로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대표 건축물로 기대되고 있다.

▼ 아산 중앙도서관



지속가능한 환경친화 녹색도시 아산시, 우수환경정책 발표

2017.09.21. | 아산시

지난 9월 19일 한국환경행정학회 주최로 우수환경정책 발표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아산시장은 아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해 타 지자체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주요 내용으로 ① 자연마을에 대한 주민참여형 실개천 복원과 자연정화습지조성 사업을 통한 생태공간으로 회복, ②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 만들기에 선도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아산시 환경정책의 성공 요인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를 한발 앞서 인지하고 신재생 에너지사업, 경축순환형 자원화시설사업, 패시브 및 제로에너지 건축사업, 미세먼지 감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기와 더불어 물에서도 물길 최상류인 실개천 관리의 필요성을 빠르게 인지해 2011년부터 공약사업으로 역점 추진해 왔고, 이 모든 사업을 마을 대표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민과 함께 애향심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갈채를 받았다. 앞으로 아산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실개천 살리기 운동을 2017년 말까지 45개 마을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실개천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8개 마을에 자연정화생태습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조기 매각 완료

2017.06.13. | 아산시

아산시에서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가 100% 매각이 완료된 가운데 단지 조성 공사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아산시는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17필지(8,524㎡)에 대한 매각자 선정 결과, 17필지 모두 매각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산시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낙후된 신정호 일원에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고, 기 조성된 유원지, 국민관광지와 연계되는 계획적 개발로 상권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쾌적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 준공 예정인 2018년 12월까지의 사업을 완료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 소유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아산시 친환경에너지단지 추진 탄력

2017.06.21. | 아산시

아산시가 미래 성장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산시 친환경에너지단지 조성사업’이 충청남도의 ‘청정에너지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소각장에 500Kw급 터빈발전기를 설치,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열과 전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열 병합발전으로 변경, 4인 기준 800세대 대 단위 아파트단지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 이로 인해 연간 1,663톤의 이산화탄소 감소 효과 및 30년산 소나무 252천 그루의 식재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인근 마을에 현재 운영 중인 건물 지붕에 200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소득창출 및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시는 친환경에너지단지 조성사업은 우리가 넘버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소각장 등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 지역 주민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증진하는 사업이며, 친환경에너지 생산과 함께 기존 관광인프라와의 결합을 통해 아산시를 세계적인 친환경에너지 관광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색도시 아산, 지속가능한 자연생태 도시로 우뚝서다

2017.11.08. | 아산시

아산시는 환경과학공원 주변의 생태계가 훼손된 유휴부지를 아산생태곤충원과 연계한 생태공간으로 복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원사업은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을 생태복원 또는 생태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2017년도 환경부 생태보전협력금 반환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4.5억의 전액 국비로 추진됐다. 아산시는 아산생태곤충원과 연계한 나비 등 소생물 서식처 생태복원을 통해 생물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시민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생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아산 생태 휴식공간



아산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승인

2017.11.16. | 아산시

아산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로부터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공식적으로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내년 1월 하순에 공인선포식을 통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와 공인 협정을 체결하여 세계 384번째, 국내에서는 13번째로 국제안전도시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아산시는 그동안 국제안전도시 사업을 통해 아산경찰서, 아산소방서, 아산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안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손상사망을 감소, 안전네트워크 구축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아산시는 앞으로도 국제안전도시의 이념처럼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손상 예방을 위한 안전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아산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년 이상 도심 속 흉물 옛 삼양냉동 건물 정비

2017.06.15. | 서산시 | 건축과

서산시는 20년 이상 폐건물로 방치된 옛 삼양냉동 건물을 철거하고 3,000㎡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정비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 주민대표들은 도시미관 저해, 청소년들의 탈선·우범 장소로 악용, 지가 하락, 도심 공동화 등을 우려하며 철거 후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 2월 건물 소유주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에 전격 합의하면서 마침내 해결방안을 찾게 됐다. 시는 주차장으로 조성될 경우 약 170대의 주차가 가능해 동부시장 등 인근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며, 특히 도심의 흉물이 없어져 미관이 개선되고 청소년 탈선과 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였다.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속도

2017.11.15. | 서산시 | 도시과

서산시는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진행했던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수석지구를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1,403억원이 투자되며, 생산유발액 1,666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602억 원, 취업유발인원 1,249명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내년에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하고 주민공람,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산 동부전통시장 최고의 명품시장으로 급부상…대통령 표창

2017.10.30. | 서산시 | 일자리경제과

서산시는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서산 동부전통시장이 활성화된 전통시장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산 동부전통시장은 경영 및 시설현대화 등을 추진해 현저한 매출 증대와 상인 조직의 활성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통시장의 성공모델로 손꼽혀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 시는 ① 수산동 아케이드 설치, ② 상인복지센터 건립, ③ 야채동 아케이드 설치, ④ 옥상방수공사, ⑤ 상인복지센터 방음공사 및 LED 교체 등을 지원하는 등 시민과 상인들의 편익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서산시는 이번 대통령 표창 수상이 서산시의 관심 및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들의 노력이 더해져 이뤄낸 쾌거이므로, 상인들이 자부심을 품고 친절환 서비스를 유지한다면 전통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겹겹이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논산화지중앙시장, 중소기업청 공모 시설현대화사업 최종 선정

2017.06.02. | 논산시 | 사회적경제과

논산화지중앙시장이 중소기업청이 주관한 2018년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중기청 시설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2018년 3억2천4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20㎡ 규모의 시설현대화(화장실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화지중앙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네 곳뿐인 화장실로 인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며, 이에 따라 시장 고객뿐 아니라 종교전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 역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총사업비 5억4천만 원 중 지방비부담분 2억1천6백만 원은 ‘중고천 물순환형 수변도시 정비사업’의 토지 매입비

를 현물 부담분으로 요구한 부분이 반영되어 지방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 사업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화지중앙시장



동고동락 논산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2017.07.27. | 논산시 | 건강도시지원과

논산시가 지역사회 장애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장애인 가정 내 일상생활과 활동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사업은 문턱 없애기,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조, 화재감지기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등 장애인이 실내공간에서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의 편의에 맞춰 공사를 추진하며, 이번 사업 대상자는 지체장애 5급, 뇌병변장애 2급의 장애인 2가구가 선정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장애인 가구가 안락한 환경에서 재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논산시, 전통시장 활성화 대통령상 수상… 전국 지자체 중 단 두곳

2017.10.27. | 논산시 | 사회적경제과

논산시가 ‘2017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논산시 전통시장이 최우수로 선정, 대통령상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는 주차환경개선사업,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공동마케팅사업 등 공모사업 추진뿐 아니라 자체발굴사업 등을 통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넘어 전통시장의 역량에 따라 고유의 특성을 살리는 시장 육성사업 추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고령화대가는 전통시장에 청년들이 뛰어들어 시장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상인창원 지원사업에도 주력했다. 논산시는 급속한 산업화와 인구의 도시 집중, 대형마트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금산읍 도심활력 프로젝트 박차

2017.06.16. | 금산군 | 문화공보관광과

금산군은 세계인삼엑스포 개최 도시 및 건강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금산읍 도심활력 프로젝트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한전주 지중화, 주거환경 개선, 간판개선, 재래시장 활성화 등 5개 분야로, 총 31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한전주 지중화는 보도철거 및 관로 설치공사, 가로등 기초 및 전선설치, 보도블록 설치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금산읍 선도지구 사업으로 선정된 금산전통시장 역량강화사업은 예비 창업자 오리엔테이션, 작은영화관 기존 건축물 철거 착공 등 순조로운 진척을 보이고 있다. 금산시장 일원에는 작은영화관 및 문화다방 조성, 야시장 조성, 창업 골목 조성, 난전가로조경, 상인 건강다방, 경관개선, 옥상 텃밭 조성 등의 사업이 펼쳐진다. 또한, 금산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의 간판개선도 이뤄진다. 이밖에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외부도색, 엑스포장 및 주변 도시계획시설의 보수 등 이미지 개선에 나선다.

금산군 산림자원 경쟁력 강화 박차

2017.08.09. | 금산군 | 문화공보관광과

금산군이 추진하고 있는 산림자원 경쟁력 강화사업이 순조롭다. 올해에 추진되고 있는 산림 주요 정책은 산림경영, 녹지조경, 산림보호, 산림휴양 등 4개 분야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명품 힐링 숲 조성사업은 기존의 임도를 활용해 터널형, 원형, 사각형 등 다양한 숲길로 바꾸고 이곳에 경관목을 심어 힐링 숲길을 만드는 것이며, ② 사방사업은 제원 신안, 곤북 상곡, 남일 신정 등 3개소와 계류보전이 마무리됐고, 제원 신안, 남이 석동, 남일 신동, 남이 흑암에 대한 사방댐도 완공됐으며, ③ 청정임산물 생산 소득증대 사업은 표고목 구입 및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을 마친 상태며, 대추 등 생산시설 9개소, 표고 재배시설 2개소, 밤 등 생산장비 6개소, 인삼물 상품화 지원 등이 진행 중이며, ④ 이용가치가 적은 불량임지에 대한 경제수 및 큰나무 조림은 계속되고 있고, 향토숲 조성사업을 마무리했다. 군은 산림의 경제성과 수익성, 공공성을 강점을 최대한 살려 산림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통해 주민이 행복한 전국 최고의 산림휴양도시 금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였다.

▼ 산림문화타운 물놀이장



부여군, 방치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2017.06.08. | 부여군

부여군은 장기간 방치된 폐슬레이트를 7월 말까지 처리한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다량 함유한 건축자재로 노후화된 슬레이트에서 흘러 퍼지는 석면을 흡입할 경우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일제 조사를 통해 하천제방과 야산 등에 방치되고 있는 폐슬레이트 약 327톤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전 조사된 수량에 따라 1억8천만 원의 사업비를 읍면에 각각 재배정하여 신속하게 처리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방치 폐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주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 개선에 큰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하였다.

남령(호국)공원, 무궁화 동산으로 변모한다

2017.10.26. | 부여군

부여군은 남령공원이 '2018 무궁화동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은 생활권 주변에서 나라꽃 무궁화를 쉽게 접하고 무궁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시행되는 사업이다.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남령공원 중앙부인 부여읍 동남리 산일원으로 의열사와 애국지사추모비 등의 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다양한 품종의 무궁화를 심고, 해설판 및 표지판 등을 설치, 2018년 상반기에 조성될 계획이다. 특히 선정된 장소는 매년 호국영령에 대한 위령제를 거행하는 장소로 무궁화동산이 조성되면 더욱 의미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부여유림관리소에서 시행한 '도시숲 조성지'와 인접하여 무궁화 교육의 장은 물론 군민의 휴식처로 활용되어 공원 이용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천군,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 '우수상'

2017.06.22. | 서천군

서천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한 '2017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에서 우수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다. 이는 매년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도시계획학회, 경관학회, 공공디자인학회 등 경관디자인분야 대표 기관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경관디자인 대전으로, '품격 있는 국토, 아름다운 경관'을 주제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행사다. 서천군은 장항읍 송림마을 일원 '솔바람에 잠시 쉬어가는 송림마을'이라는 주제로 응모하여 주거단지부분 우수상을 받게 됐다. 송림마을은 그동안 송림마을 리모델링사업, 농어촌 민박선진화사업, 서천군청소년수련관 신축, 장항스카이워크, 솔바람길 맥문동단지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농어촌마을의 아름다운 경관 형성과 관광자원의 활성화, 지역주민소득 창출 등에서 우수한 사례로 인정되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앞으로도 서천군의 경관디자인 발전에 더욱 힘쓰고 노력하여 경쟁력 있는 서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서천군 장항읍 송림마을



청양군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순조롭게 추진

2017.09.18. | 청양군 | 건설도시과 주택팀

청양군이 65세 이상 고령자 및 등록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붕 교체, 벽체 단열, 보일러 수리, 전등 및 배선 교체, 세면장과 주방 리모델링 등 전반적인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은 청양지역자활센터(주거복지센터) 위탁으로 추진돼 현재 기준 당초 계획된 13가구 중 7가구를 완료하고 5가구는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역건축사협회 청양군지회의 건축설계 재능기부를 받아 설계비를 절약해 그만큼 더 많은 시설을 보수해 주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생활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속해서 확대 추진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청양군, 건물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지원사업 순조롭게 추진

2017.07.21. | 청양군 | 건설도시과 주택팀

청양군은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물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지원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년도 12월에 희망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지를 사전조사 후 시행하는 사업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철거), 자가 가구 주거급여사업 등을 연계 추진 중이다. 군은 올해 2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을 슬레이트 철거·지원비로 지원하는데, 한국석면안전협회를 통한 조달청 공개 경쟁입찰로 선정된 전문업체에 지급하며 가구(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하지 않는다. 군은 이번 지원사업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덜어주고, 건강 보호와 깨끗한 농촌 정주 환경을 위한 사업으로, 더 많은 가구에 지속해서 추진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태안군, 안면도 지포지구 본격 개발 '청신호'

2017.06.09. | 태안군

태안군의 '안면도 지포지구' 개발 사업이 태안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순조롭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태안군은 '태안 팜컬처시티 조성사업'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구체적 개발계획을 수립해 충남도에 사업계획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팜컬처시티는 스마트팜과 컬처타운, 페스티벌이 어우러진 신개념 도농 복합관광 도시로, 미래 신성장산업인 스마트 농업을 기반으로 농업과 관광을 매개체로 두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거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이번 협약은 태안군만의 관광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양측은 지역 실정에 맞는 도농 융·복합형 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팜컬처시티에서 다양한 관광상품과 체험형 문화축제를 발굴해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팜랜드와 테마파크, 엔터테인먼트 빌리지, 컬처타운 등의 시설을 도입,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관 및 공공공간

천수만 ‘융복합 발전 로드맵’ 찾는다

2017.10.17. | 충청남도 | 미래성장본부 미래정책과

충남도는 ‘천수만권역 종합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현재 천수만과 그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 해양 생태계 등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천수만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수립 추진 중이다. 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천수만권역 자연환경과 인문·사회 환경, 지역경제 기반시설 환경 및 특성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 전망, 관련 계획 및 제도 분석, 사례 조사 등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여건을 찾는다. 도는 천수만은 경관이 수려하고 어족 자원이 풍부하며, 인근에는 문화유산 등 관광자원이 산재한 천혜의 자원으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천수만 환경 보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찾겠다고 하였다.

▼ 천수만



해양헬스케어 산업, 태안서 물꼬 튼다

2017.10.17. | 충청남도 |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

충남도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치유 가능자원 발굴 및 실용화 기반 연구(R&D) 협력 지자체 선정 공모’에서 태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 비전은 ‘바다와 산림을 아우르는 힐링도시 태안’을, 기본 방향으로 ① 태안 소금, 염지하수 등 해양자원 활용 대표 치유 프로그램 도입, ② 천혜의 해양자원 및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 ③ 다양한 관광·레저·문화 활동을 통한 심신 치유 프로그램 도입 등을 제시했다. 추진 전략은 ① 전문적인 진단을 통한 환자 중심 맞춤형 치유, ② 실내·외 환경 요인을 활용한 다양한 치유, ③ 자연 친화적 환경을 통한 편안한 건강 증진 및 심신 치유 등으로 잡았

다. 도와 태안군은 이번 공모에서 편리한 교통, 국내 유일 해안 국립공원과 해안사구 등 천혜의 자연환경, 수목원, 해수욕장 등 탁월한 자연경관, 국제슬로시티, 소금, 염지하수, 황토, 갯벌, 바닷모래 등 다양한 치유 자원, 토지 확보 용이성, 시설 설치에 제약이 없는 점 등을 내세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로써 충남 태안이 우리나라 해양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할 전진기지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생물 서식지 복원하고 생태놀이터 조성

2017.10.22. | 충청남도 | 기후환경녹지국 기후환경정책과

충남도는 ‘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을 수립, 본격적인 추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태 고향 충남’을 이번 실천계획 비전으로 잡았으며, 주요 내용으로 ① 자연환경 데이터베이스(DB) 지속적 유지관리, ② 중요 야생동물 지속 관리, ③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생태 공간, ④ 자연환경의 효율적 관리 등이다. 세부 실천 과제로 ① 생태지도(비오톱) 작성(갱신), ② 소규모 마을 습지 인벤토리 구축, ③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서식지 보호·관리 강화, ④ 생태계 교란종 퇴치 등 외래 생물 관리 철저, ⑤ 도심 내 자연생태 휴식공간 확충, ⑥ 생태경관 보전 지역 지정, ⑦ 생태계 서비스 사업 발굴 및 생태 관광 지역 육성, ⑧ 주요 서식지 복원 및 조성을 통한 관리, ⑨ 멸종위기·희귀 야생생물 서식지 토지 매입 등 관리 등이다. 도는 각종 난개발과 기후변화로 야생생물 서식처가 파괴되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룬 현명한 환경정책의 추진이 필요해짐에 따라 본 계획을 수립했으며, 실천계획을 토대로 도내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생태계 다양성을 유지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천안시, 풍서천 환경 조성 3억 원 투입

2017.06.29. | 천안시 | 건설도로과

천안시가 풍서천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쾌적하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하천환경을 조성한다. 시는 풍서천을 찾고 싶은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서 3억 원을 확보했으며, 환경 조성 설계를 완료해 식재 적기인 올가을 대대적인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풍서천이 시민에게 다시 찾고 싶은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을 제공토록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 천안 풍서천



신부문화거리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2017.06.14. | 천안시 | 교통과

천안시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통해 신부문화거리 경관개선에 나섰다. 천안시는 지난해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한 ‘2017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흥이 넘치는 젊음의 신부문화거리 보행환경조성사업’을 공모하고 선정돼 총사업비 21억 중 국비 7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중복의 도로 굴착으로 인한 시민불편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등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 보행환경개선사업과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병행한다. 올 하반기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설계, 보행환경개선사업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은 주민과 상인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용역 기간동안 수차례에 걸쳐 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테마공간 조성, 보행교통사고 방지, 쾌적한 보행환경을 갖추게 되어 상업지역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천안의 대표 명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명품 가로숲길 ‘띠녹지 조성’ 확대

2017.06.01. | 천안시 | 공원관리과

천안시는 올해 도로변에 각종 야생화와 관목류가 어우러진 명품 가로숲길을 조성했다. 기존의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간 보도블록을 철거한 후 각종 야생화, 관목류 등 다양한 식물을 심어 다층식 도시 숲을 만들었다. 띠녹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도시 사막화 방지, 건전한 가로수 생육환경 조성, 효율적인 빗물관리, 가로경관 개선, 무단횡단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도블록을 철거한 공간에 띠녹지를 조성하면 기존 가로수의 뿌리 용기로 인한 보도블록 요철 현상을 완화,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녹색 생태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의 효과가 기

대된다고 하였다.

▼ 명품 가로숲길 조성



공주시, 공주대학 문화거리 조성사업 본격 착공

2017.06.21. | 공주시 | 도시정책과 도시기반시설팀

공주시가 산성시장 활성화를 위한 밤마실 야시장 개장과 더불어 강북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신관동 공주대학교 주변에 대학문화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공주대학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으로 ① 도로상의 편의시설을 정비 및 장애 요인 제거, ② 안전시설의 설치 등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 ③ 보도 패턴과 무장애 보도로 걷기 좋은 거리 조성, ④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고려한 디자인 설계 ⑤ 보도턱과 장애물을 제거, ⑥ 스트리트프린터를 활용한 보·차도 구분, ⑦ 주말 등 특정 시간대 차 없는 거리 조성 등 주민 편의와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될 계획이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보행통행을 유도할 수 있는 걷고 싶은 거리, 테마가 있는 거리, 보행 우선 거리를 지정 ‘All 락(樂) street’라는 콘셉트의 쾌적하고 명량한 문화예술의 청춘 대학촌이 조성돼 지역 상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주대학교 주변에 대학문화 특화거리 조성



당진 솔피성지 명소화 사업 본격화

2017.08.07. | 당진시 | 홍보팀

솔피성지의 명소화 사업이 올해 하반기 본격화될 전망이다. 솔피

성지는 지난 2014년 8월 천주교 아시아청년대회가 열렸던 곳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녀간 이후 2015년부터 착수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① 교황 동상 건립과 교황축촌, 토피어리를 설치, ② 우강초등학교부터 합덕사거리까지 약 1.9km 구간을 프란치스코 교황 거리로 지정해 벽화 거리 조성, ③ 김대건 신부와 4대 순교자에 대한 기념탑 설치 완료, ④ 솔피성지 역사공원 조성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도 시작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10월경 천주교 아시아청년대회가 열렸던 곳에 3만8,434㎡ 규모의 공원 조성공사에 착수해 2018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곳에 들어서는 가칭 한국천주교 문화센터에는 순교자의 길과 프란치스코 광장, 타피스트리를 이용한 전시관을 비롯해 로컬푸드 판매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솔피성지를 대한민국 대표 천주교 역사문화 자원으로 만들겠다고 하였다.

▼ 솔피성지 명소화 사업계획도



지역 구석구석 예술과 낭만의 벽화로 가득한 당진

2017.10.10. | 당진시 | 홍보팀

당진시 곳곳에 벽화 거리가 조성돼 시민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 벽화 거리가 조성된 장소는 다음과 같다. ① 당진1동 서문2길 옛 군청사 옆 성당으로 가는 길로, 지난 2012년 손사랑 봉사단이 길 양 옆 구청사 벽면과 가정집 돌담을 이용해 3구간으로 나눠 조성했다. 이후 이곳은 지난 2015년 당진시자원봉사센터가 벽화 거리를 추가로 조성하기도 했다. ② 신도심 지역에 속하는 원당동 한라비발디아파트 방음벽 구간도 지난해 당진3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노력으로 벽화 거리로 변신했다. ③ 시내권은 아니지만 기지시리문화마을과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인 솔피성지 인근에도 각각 기지시

줄다리기의 유네스코 등재와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을 기념하는 벽화 거리가 조성되었다. ④ 합덕읍에는 합덕초등학교에서 시장으로 가는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주변 지역 범죄 예방을 위해 벽화 거리로 재탄생 하였다. ⑤ 당진 북서쪽에 자리 잡은 안섬포구의 벽화는 어촌마을답게 마을 어귀부터 바다와 해양생물과 관련된 벽화가 조성되었다. 시는 서문2길 벽화 거리와 원당동 벽화 거리는 모두 도심권에 자리 잡고 있어 접근성이 좋고, 기지시문화마을과 솔피성지 벽화 거리는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자원과의 연계성으로 차별화된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 합덕초 벽화



당진시, 계림공원 조성사업 설명회 개최

2017.10.19. | 당진시 | 홍보팀

당진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계림공원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0월 30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계림공원은 지난 1968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곳으로, 2020년 7월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개발이 실효된다. 시는 계림공원 조성을 위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를 활용한 공모 사업을 진행해 지난 6월 우선협상자로 (주)서해종합건설을 선정했으며, 현재 우선협상자와 사업계획 협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제안 수용 여부를 우선협상자에게 통보하고 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과 비공원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 계림공원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어둡고 무서웠던 골목길, 안심길이 되다

2017.10.23. | 당진시 | 홍보팀

당진시는 어두운 골목길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한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은 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야간 보행환경이 취약한 골목길의 지면에 태양광 충전식 발광장치인 쏠라표지병을 설치하는 사업이

다. 쏠라표지병은 낮에 태양 빛을 머금고 있다가 밤이 되면 가시거리 800미터 이상의 밝은 빛으로 어두운 밤거리를 밝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 사업추진에 앞서 시는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을 조사해 4개 골목길을 선정, 쏠라병을 설치하였으며, 그 결과 골목길이 밝고 청결해졌을 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만큼 연중 상시 모니터링에 나서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쏠라표지병 설치



보령시, 서해안 최대 규모 무궁화 수목원 개원...사계절 관광도시 '탄력'

2017. 10. 10. | 보령시 | 문화공보실

보령시는 서해안 최대 규모의 무궁화 수목원 개원식을 갖는다. 무궁화 수목원은 무궁화를 계승발전시켜 애국심을 높이고 다양한 볼거리와 관광 인프라도 갖추게 되며, 수목의 유전자원보전과 식물자원의 가치 높이기, 보전·관리역할을 하며 문화체험학습과 환경생태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수목원 조성은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인식전환을 이루고 애국심 고취에도 큰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역의 명산인 성주산에 남포오석 테마거리, 모노레일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그 첫 시발점은 ‘무궁화 수목원’이며,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운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무궁화 수목원 전경



보령시, 해양항만발전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개최

2017.10.23. | 보령시 | 문화공보실

보령시는 해양항만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기본계획으로 ① 해양환경 부문의 연안 생태계 보전, 연안 환경 통합관리체계 및 해양 재난·재해 대응 안전체계 구축, ② 해양관광 부문의 유인 도서(섬) 해양관광 육성, 연안 및 도서 생태 문화 관광 개발, 명품 해수욕장 및 배후지역 조성, 해양레포츠 개발, ③ 해양산업항만 부문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해양 신산업 창출 및 육성, 해양 사회적 경제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생태계 구축, 보령항 및 배후단지 조성 방안 마련, 지역 수산산업 육성으로 미래 산업 가치 창출, ④ 지역 혁신 부문의 해양항만 인프라 및 역량 강화, 전문인력 육성 등이 보고됐다. 또 부서별 검토사항으로 ① 해양정책과는 해양항만 분야 여건 및 변화 전망 분석, ② 기획감사실은 중앙부처, 충청남도, 유관기관 협의 및 지원, ③ 미래사업과 등 3개 부서는 해양 신산업 육성 및 지역 역량 강화 분야 계획수립 등을 추진키로 했고, 공동 과제로 해양항만 분야 발전 방향, 분야별 정책개선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산 원도심 활성화 획기적 전기 마련

2017.06.14. | 아산

아산시가 온천천 주변의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개발 사업을 가시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산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대표하는 성매매 집결지, 속칭 ‘장미마을’도 포함한다. 우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으로 청년특화거리 조성을 추진해 시민들로부터 대한영을 받고 있다. 특히 장미마을 내 유흥주점 소유주들이 아산시 청년창업특화거리 조성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시에 매도 의향서를 4개 업소에서 제출하는 등 업주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 도로 확포장과 관련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마치고 실시설계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보상계획 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도로 확포장 길이 170m, 폭 15m, 사업비는 약 82억 원이다. 시는 당초 내년 3월 말까지 도로 확포장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업소관계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금년 말까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서산시 한다리마을서 전통문화 ‘맥’ 잇는다

2017.08.29. | 서산시 | 건설과

서산시는 전통문화자원의 활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했던 ‘한다리권역 종합정비사업’이 준공됐다고 밝혔다. 한다리마을에는 정순왕후 생가, 김기현 가옥 등의 역사문화자원이 자리 잡고 있고 한다리고택음악회 등 지역 문화행사가 지속해서 열리고 있다. 시는 이러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농촌의 새로운 체험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한다리권역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이곳에는 각종 복지시설을 갖추고 주민들이 모여 전통문화사업을 진행하는 거점으로 활용될 한다리센터, 한다리전통광장이 들어섰다. 또한, 마을 소공원 조성, 전통지붕 개량 등의 지역 경관 사업도 이뤄졌다. 앞으로 시는 정순왕후 등을 주제로 리플릿, 스토리북 등을 제작하고 전통문화체험행사를 진행하며, 이를 토대로 한 관광상품 개발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역량교육과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업의 준공으로 한다리마을이 지역의 전통문화를 익히고 체험할 수 있는 국내 대표의 전통문화 마을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였다.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일원, 아름다운 거리로 ‘탈바꿈’

2017.08.16. | 서산시 | 도시과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일원이 아름다운 거리로 개선된다. 서산시는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하는 ‘2018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여 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이 사업에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또다시 선정되어 탁월한 도시 행정력을 전국에 입증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번에 확보된 국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5억여 원을 들여 이 지역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간판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간판개선 시범사업의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였다.

서산시, 기업체와 상생 발전 여건 마련에 온 힘...

안산공원 조성 ‘첫삽’

2017. 10. 12. | 서산시 | 기업지원과

서산시가 기업체와 상생 발전 여건 마련을 위해 안산공원(대산 제2호 근린공원)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안산공원은 주민과 근로자가 함께 즐기는 커뮤니티의 공간, 여유와 자연을 느끼는 힐링의 공간, 자연과 함께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체험의 공간 등의 콘셉트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시는 2013년에는 충남도에서 추진한 상생산업단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도비 55억 원을 확보했으며, 2015년에는 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을 마쳤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안산공원 조성사업이 착공에 들어가게 됐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30억 원이 투입되며,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옥외 휴게 공간 및 주차장은 2018년 12월까지 들어설 계획이다.

▼ 안산공원(대산 제2호 근린공원)



논산시,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평가 전국 ‘우수’

2017.06.02. | 논산시 | 희망마을건설과

논산시가 ‘2017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 평가결과 전국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다.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으로 평가된 하천은 양촌면 신기리에 위치한 사기소하천으로 친환경적인 하천조성으로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 사례가 되고 있다. 논산시는 해마다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① 재해위험이 있는 하천 집중관리, ② 제방 및 수문 등 하천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시행, ③ 우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수목 제거 등 하천 정비사업을 꾸준히 펼쳐왔다. 시는 앞으로 생태계 보전과 수질 환경 개선을 통해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현장 중심의 활동을 펼쳐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계룡시, 입암 수변공원 탄생

2017.08.24. | 계룡시 | 문화체육과

계룡시는 입암리 주민들의 주도로 계획된 ‘입암 수변공원’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마을 고유한 자원과 특징을 살려 주민 주도로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은 활기찬 농촌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시는 마을 주민과 함께 창조적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참여해 선정됨에 따라 수변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새롭게 탄생한 입암 수변공원은 수변 데크로드가 포함된 둘레길 산책로와 야외 운동기구, 전통정자 및 쉼터 등의 휴식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주변 자연경관을 테마로 특색 있게 조성해 계룡시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단계로 10억 원의 투자가 확정된 입암 마을단위종합개발 분야에도 지속적인 주민 역량을 집중하여 입암 선바위마을 단풍길 및 선바위 정원조성, 전통장류 등 농촌특산물 판매장 설치, 마을광장과 천호산 둘레길 등의 후속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입암 수변공원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깨끗해진다

2017.08.17. | 금산군 | 문화공보관광과

금산군에 따르면 금산시외버스터미널 건물 및 주변의 노후 간판을 정비하는 간판개선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이전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으로, 완료 시 주변 상가와 점포의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예상된다. 간판개선 사업의 총사업비는 4억 4천만 원으로 군에서 사업비의 90%를 지원하고 업주들은 10%를 부담한다. 기 완료된 간판개선 사업과 연계 선상에서 건물특성과 조화를 이룬 개성 넘치는 간판정비로 새로운 이미지 변신이 기대된다. 군은 주민들이 성원하는 간판개선 사업을 지속하여 도시의 아름다움과 업소의 특성이 잘 깃든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며 간판개선사업 구간 점포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금산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간판개선 사업



부여군, 지역수요 맞춤형 공모사업 선정

2017.08.23. | 부여군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17년 지역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에서 ‘시인 신동엽과 부여를 걷다’가 최종 선정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① 이벤트 무대와 주민 쉼터, 주차공간으로 이루어진 ‘신동엽 시인의 언덕’, ② 신동엽 시인이 산책하고 작품을 구상했던 생가 주변 길에 스트

리텔링화하여 주민참여형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신동엽 시인의 길’을 조성, ③ 전시갤러리와 주변 건축물 벽면과 담장을 탈부착이 가능한 조형물을 설치해 마을갤러리를 만들 예정이다. 군은 신동엽시인을 테마로한 조형물 설치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여의 또 하나의 특화 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 신동엽 문학관 전경



서천군, 서천여고 통학 안심길 조성

2017.06.22. | 서천군

서천군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편의 강화를 위해 서천여고 인근에 통학 안심길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통학 안심길 조성에 2억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LED 보안등과 데크 산책로를 설치하는 등 학생들의 등하굣길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편의증진과 도시미관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산책로 조성으로 인해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범죄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난해 범죄 예방 환경설계 조례를 제정한 후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섹테드(CPTED) 기법을 적용하여 주변에 있는 범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다.

▼ 서천여고 인근에 통학 안심길 조성



서천군, 판교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 ‘박차’

2017.07.10. | 서천군

서천군은 판교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농교류센터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노후우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정비사업은 기초생활기반을 위한 다목적센터, 공동생활 홈,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 지역 경관개선을 위한 다목적광장, 산벚꽃길,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과 견학, 홍보마케팅, 컨설팅 등도 함께 추진된다. 판교마을권역 주민 등이 참석한 이번 선진지 견학은 제주도 가시리 권역, 무릉권역, 감골와인 제조공장 등이다. 군은 판교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기존의 하향식 사업이 아닌 주민 스스로가 추진 위원회의를 통해 만들어 가는 상향식 농촌개발사업이며, 지역 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리더교육과 주민참여를 높여 성공하는 권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군, 또 하나의 볼거리, ‘꽃 무릇 논두렁길 조성’

2017.09.27. | 홍성군

홍성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촌 어메니티를 활용한 경관작물 재배로 군민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꽃 무릇 논두렁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꽃 무릇 논두렁길 조성사업은 황금색 벼 이삭과 붉은색 꽃 무릇이 경관을 만들어 농촌관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2년째 추진 중인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인 옥암리 소재울 마을은 홍성에서 유일하게 계곡이나 구릉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계단식 작은 논인 다랑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마을로 예스러운 농촌 경관을 자랑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만족할 만한 경관이 그려질 때까지 연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

홍성군, 호국 보훈의 달 맞아 명품 무궁화길 조성한다

2017.06.09. | 홍성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총 1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명품 무궁화길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홍성군은 무궁화 750여 주를 심어 나라꽃인 무궁화의 위상을 알릴 계획이며, 이미 무궁화 선양 활동의 일환으로 백야 김좌진 생가에서 만해 한용운 선사 생가에 이르는 약 7km의 명품 무궁화길을 조성한 바 있다. 군은 무궁화 나무의 전정 및 주변 정비 등으로 울여름 피어날 아름다운 무궁화길을 준비해왔다. 무궁화 꽃이 관내 곳곳에서 수를 놓는 7월부터 10월간 집중적인 관리로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무궁화 도시홍성을 대외에 전파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예산군, 수암산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으로 아름답고

안전한 등산 환경 마련

2017. 07. 13. | 예산군

예산군은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여유와 사색이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수암산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수암산 둘레길 구간에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한 내포사색길을 조성해 누구나 쉽게 숲길을 체험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총사업비 3억5,900만 원을 투입, 오는 11월 초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사업 구간은 삽교읍 목리 일원 법륜사에서 홍성군계까지 약 1km 구간이다. 해당 구간에 등산로 개설 및 잡관목을 제거하고 방향 안내판과 데크로드, 목교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힐링 공간으로 수암산을 조성해 누구나 쉽게 숲길 체험 기회를 누리고 등산객들이 안전 산행을 할 수 있어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군관광시설사업소, 봉수산자연휴양림 힐링 무장에 숲길 준공으로 관광객 사로잡아

2017. 06. 13. | 예산군

예산군관광시설사업소는 봉수산자연휴양림 내에 힐링 무장에 숲길을 조성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고 밝혔다. 무장에 숲길은 장애인과 어르신, 유아, 임산부 등 산림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보행 약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숲을 거닐 수 있도록 조성된 힐링 산책길이다. 사업소는 총사업비 9천여만 원을 투입하여 누구나 편안하게 숲속을 다닐 수 있도록 폭 1.5~2m, 경사도 10% 이내의 산책로를 조성했다. 총 길이 2km의 무장에 숲길은 휠체어, 유모차가 교행할 수 있으며, 중턱에 통나무 의자를 설치해 보행 약자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사업소는 각종 편의시설과 야생화, 조형물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휴양림과 수목원을 연결하는 무장에 숲길을 확대조성해 단계적으로 순환형 산책길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봉수산자연휴양림



예산군, 골목길 아트갤러리 2차 조성사업 추진

2017.06.14. | 예산군

예산군은 골목길을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골목길 아트갤러리 2차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된 상가와 빈 점포로 인한 삭막한 거리에 벽화를 설치함으로써 거리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 예방 및 테마가 있는 골목길로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사업대상지는 예산읍 신흥길 63-1 일원으로, 이 구간은 공가가 많고 골목에 가로등이 없어 주민들이 불안감을 많이 호소했던 곳이다. 군은 골목길 벽면을 이용한 벽화와 조형물 설치, 쌈지공원 조성, 경관조명 설치 등으로 골목길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지난해 추진한 골목길 아트갤러리 1차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셉테드(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을 적용해 범죄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밝고 쾌적한 거리를 만드는 등 옛날 번성했던 예산읍 내 먹자골목의 추억이 담긴 거리를 오는 9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가로환경 개선을 통한 테마가 있는 골목길 조성으로 정체된 골목에 활력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 골목길 아트갤러리 2차 조성사업



태안군,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만든다!

2017.08.11. | 태안군

태안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간판개선 시범사업은 각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살린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더욱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태안군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서해안 대표 휴양지로서의 발전 가능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은 올해 지중화 사업이 마무리된 태안읍 중앙로 구간을 사업대상지로 지정, 국비확보액 포함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내년 중 93개 점포 337개의 간판을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객 유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도 제70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개최로 태

안군을 찾는 선수단과 도민들에게 쾌적한 관광 태안의 이미지를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태안읍 중앙로



태안군, “전국 최고의 마리나항만 조성할 것!”

2017.07.31. | 태안군

태안군의 미래전략사업인 안흥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태안군은 승인서류를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승인부서인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심의절차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① 2021년까지 항만구역을 지정받은 후 마리나선박 200척을 계류(보관)할 수 있는 전용시설을 조성, ② 해상에는 마리나전용 계류시설과 해양레저 체험장을 조성, ③ 육상에는 클럽하우스와 해양아카데미 컨벤션센터, 시푸드(Sea Food) 거리, 스퀘어광장, 위락시설, 마리나빌리지, 복합리조트 등을 조성해 해상레저복합단지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군은 7만㎡에 달하는 매립용지를 매각해 사업비에 충당하거나 민간 사업자의 참여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성 분석 결과 B/C(비용편익 분석)가 1.23, IRR(내부수익률)이 8.2%인 점을 고려하면 방안 선택과 무관하게 조속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이번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으로 1,443억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와 462억 원의 부가치 유발효과, 844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되며, 연간 58만 명의 관광객이 안흥을 찾을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관광 교류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중부권 마리나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 안흥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



태안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앞장선다!

2017.08.16. | 태안군

태안군이 도시미관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태안읍 동문리 백화초등학교 인근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가로수 식재에 나섰다. 군은 백화초 삼거리에서 교육문화센터 앞 삼거리에 이르는 구간을 사업대상지로 지정, 총사업비 1억9500만 원을 들여 소나무를 식재하고 2,700만 원을 투입해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군민들의 통행이 늘어나고 있는 구간에 대해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활환경을 보다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이번 사업이 무단횡단 등 도로 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중앙분리대 설치 및 가로수 식재



‘태안의 미래 향한 飛上’, 태안군 안흥나래교 11월 15일 개통

2017.11.16. | 태안군

태안군은 태안군 근흥면 정족리 안흥내항에서 ‘안흥나래교’ 개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근흥면 신진도리와 정족리를 잇는 안흥나래교는 총 연장 293m(시점부~종점부), 교량 보행거리 394m의 2경간 연속아치 인도교로, 총사업비 174억 원을 들여 2015년 8월 착공해 2017년 10월 31일 최종 준공됐다. 안흥나래교는 군조(郡鳥)인 갈매기의 비상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각각 45m와 38m 높이의 두 아치가 아름다운 곡선을 그려내며, 다리에 오르면 탁 트인 서해와 신진도 및 안흥항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안흥나래교가 내년 근흥면 신진도에서 개관될 예정인 ‘서해수중유물 전시관’과 인접해 있어 태안군 해저유물의 관광자원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태안군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신진도 및 안흥항의 관광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 안흥나래교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 민관협치 진단하고 혁신 모색

2017.06.13. | 충청남도 | 자치행정국 도민협력새마을과

충청남도는 도의 마을만들기 정책에서의 민·관 협치를 진단하고, 도민 주도 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민·관 협치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주요 내용은 ① 마을만들기 정책 추진 과정의 성과와 한계를 민·관 영역 간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 ② 사업 참여 민·관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지역별 편차를 극복하기 위한 추진 과제를 도출, ③ 마을만들기 정책의 핵심 민·관 협치 과제인 민간위탁의 성과와 한계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마을만들기는 민·관이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충남의 대표적인 민·관 협치 정책 사례다. 도의 마을만들기 정책은 지난 2015년부터 시·군 중간 지원 조직 설립과 민간위탁에 중점을 두고 추진, 민·관 협력으로 8개 시·군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설치·운영 중이며, 올해 부여·태안·청양군에 3개소가 추가 설치된다. 충남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이번 포럼이 지역사회를 위한 새로운 혁신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충남 마을만들기, 3년 연속 ‘전국 1위’

2017.09.18. | 충청남도 | 농정국 농촌마을지원과

충청남도의 ‘마을만들기’가 3년 연속 전국 1위의 성과를 냈다. 지난 2015년 청양 알프스 마을과 지난해 태안 만대마을에 이어 홍성군이 세 번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또 마을 분야에서는 보령 남포 제

석2리 미친(美親)서각마을이 문화·복지 부문에서, 음현리 은고개마을은 깨끗한 농촌운동 부문에서 각각 3위에 올라 동상(장관상)을 받았다. 홍성군은 전국 최초 유기농업특구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 및 조례 제정, 민·관 소통을 위한 ‘홍성통’ 운영, 활발한 공동체 활동 등을 인정받으며 이번 영예를 안았다. 도는 첫 회태안 대야도 마을이 국무총리상을 받은 이후로 3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3농혁신을 통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성과를 발휘한 것으로 풀이되며, 앞으로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도내 모든 마을을 살기 좋은 희망마을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였다.

전국 제패한 ‘소달구지 어촌마을’

2017.11.12. | 충청남도 | 수산자원연구소 기술보급과

충청남도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17 유형별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선정 대회’에서 서산 웅도자율관리어업공동체와 삽시도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각각 전국 최우수 공동체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마을어업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산 웅도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조직한 뒤, 바지락·가무락 등 패류에 대한 채포 크기 제한 설정, 자체 조업일수 기간 설정 및 준수, 생산량 조절, 어장 휴식년제 등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자원 조성사업으로는 가무락 종패장 시범사업, 바지락·가무락 종패 방류 등으로 주민 수익을 확대하며 이번 영예를 안았다. 양식·복합어업 분야 1위를 차지한 삽시도는 1인당 생산량을 정하고, 패류어장 4곳에 대한 어장휴식년제를 돌아가며 실시했다. 이밖에 각종 종패 살포와 더불어 해삼 어장 환경 조성 등을 실시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도내 128개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골고루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다고 하였다.

제8기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 ‘병천마을’ 개강!

2017.06.15. | 천안시 | 도시재생과

천안시는 ‘2017년도 제8기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 병천마을’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천안만의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병천면 일원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했으며, 활성화 지역 내에서 효과적인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제8기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 병천마을은 총 5주 차 과정으로, 특강과 근대문화유산의 도시인 군산 현장견학 등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속적인 도시재생대학의 운영과 다양한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하며, 앞으로도 천안시만의 독특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많은 시민이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천안시 문성동 ‘성황마을’ 도시재생 본격 추진

2017.07.11. | 천안시 | 도시재생과

천안시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인 도시활력증진사업에 선정된 문성동 성황마을의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역량 강화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사업지 60억 원(국비 30억, 시비 30억)을 투입해 2020년 말까지 ① 2개소 마을주차장을 설치하고 썬지공원과 3개소 체육시설 조성, ② 1개소 마을회관 개선, ③ 10개소 CCTV 설치, ④ 소방도로 개설, ⑤ 상·하수도 정비, ⑥ 마을 학교 및 기업 운영, ⑦ 주민 사랑방·도서관 운영, ⑧ 공동텃밭·화단 관리, ⑨ 건강관리시설 운영 등 낙후된 성황마을의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해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시킬 예정이다. 시는 각종 공모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국비확보를 통해 낙후된 주거지 개선과 상권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공주시, 깨끗한 공주 만들기 민·관협약 체결 운영

2017.10.24. | 공주시 | 환경자원과 청소행정팀

공주시가 자율적 청소문화 확산·정착과 사회적 범업 조성을 위해 깨끗한 공주 만들기 민·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깨끗한 공주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동네자치 등 주민자치와 연계해 참여와 확산을 통한 사회적 범업조성과 사후관리 등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세부적으로 ① 읍·면·동별 릴레이 캠페인 실시, ② 클린구역 관리 시범운영 등을 우선 추진하고, 차후 주민자치와 연계, ③ 도시·농촌 등 깨끗한 마을 만들기 유형별 지침 마련, ④ 주민자치 자율적 청소 사후관리 평가제도 마련, ⑤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발굴 및 교육 시행, ⑥ 2년 주기 컨설팅 실시, ⑦ 사후관리 평가, ⑧ 우수 주민자치조직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자치 조직 청소 분야 평가를 통해 선발된 우수 주민자치 조직에는 시상금 형태의 일회성 인센티브가 아닌 클린하우스,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분리수거함 등 청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을 우선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주시, 27일 반포도자문화권역 종합정비사업 준공식 개최

2017.10.30. | 공주시 | 정책사업과 도자문화육성팀

공주시가 계룡산도자문화관에서 계룡산철화분청사기 축제 축하 및 계룡산도자문화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한 반포도자문화권역 종합정비사업은 계룡산도자문화관 신축, 마을공동주차장 및 산책로 조성, 전통유물 복원, 마을안길 포장 등 계룡산도예촌의 활성화와 반포면 상신리, 하신리, 온천1리 주민 복지서

비스 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다. 이번에 준공된 계룡산도자문화관은 철화분청사기 전시관으로 활용됨으로써 계룡산도예촌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 조성된 산책로와 복원된 전통우물 등은 지역민의 건강과 여가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반포면 상하신리, 온천 1리 등 농촌 마을이 계룡산도예촌과 함께 도자문화권역으로 활성화되어 주민복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령시, 청소면 죽림3리 ‘첫마을 가꾸기 사업’ 가시적 성과

2017.10.24. | 보령시 | 문화공보실

보령시가 청소면 죽림3리 의식마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보령 첫마을 가꾸기 사업’ 1단계가 완료돼 거리 환경과 도시경관이 크게 개선됐다. 첫마을 가꾸기 사업 1단계에서는 인도 정비 및 가로등 신설, 벽화 거리 조성, 위험 수목 제거, 방범 CCTV가 설치되었고, 앞으로는 마을 하수시설과 마을주차장 조성, 도로변 주택 정비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사업이 복잡하고 다양해 추진의 애로 사항이 많았음에도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기본조사, 예산확보, 사업추진까지 순조롭게 진행하여 칸막이 없는 협력사업의 성공모델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했다.

아산시 송악면 예꽃재마을, 제12회 한국농촌건축대전 본상수상

2017.10.30. | 아산시

아산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신규마을(일명 예꽃재)이 ‘제12회 한국농촌건축대전’에서 준공부문 최종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예꽃재 설계로 준공부문에 참가한 마루건축은 1차 서면심사 및 2차 현장심사를 거쳐 본상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송악면 신규마을 예꽃재는 통일부 정책현장 방문,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방문, 국회 기후변화포럼 견학방문 등 다양한 기관과 지자체의 벤치마킹 견학이 이어지는 등 신규마을 조성의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예꽃재 마을



부여군 행복마을 만들기 석성면 현내3리 최우수

2017.07.04. | 부여군

부여군은 ‘제4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체험·소득 분야에서 양송이마을이 충청남도 최우수마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양송이마을은 양송이버섯 전국 생산량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테마 마을로, 2004년 정보화 마을사업을 시작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 주도의 상향식 개발로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고, 마을별 역량에 맞는 단계적 마을 만들기 지원체계 구축, 농촌의 전통문화, 자연환경, 도시적 편익이 조화된 색깔 있는 마을개발 등 ‘명품 마을 만들기 사업’이 구체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군은 앞으로 군민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 수 있는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 중이며, 더 나아가 지역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지역 리더 양성, 진정한 3농 혁신 실현, 6차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마을 공동체성 확립과 활성화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하였다.

▼ 부여군 석성면 현내3리 양송이마을



공공시설물 및 매체

내진 보강 대상 공공시설물 전수조사

2017.09.04. | 충청남도 | 재난안전실 재난대응과

충청남도는 9월 말까지 도내 내진보강 대상 공공시설물 31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2단계(2016~2020)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서 누락·변동된 시설물의 계획 반영을 위해 추진한다. 도는 이와 함께 올해 공공시설물 285곳에 내진보강 예산 56억 원을 투자해 이재민 구호대피소를 511곳으로 확대하고, ‘충청남도 지진 방지 대책 수립 용역’ 추진, 지진 안전주간 캠페인 실시 등 안전 충남을 위해 박차를 가하

고 있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진보강 계획을 새롭게 마련,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지진으로부터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어두운 골목길 태양광표지병 설치로 범죄예방

2017.09.29. | 천안시 | 안전방재과

천안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밤길 조성과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원성동 소재 제일고 주변 주택 밀집 지역에 ‘태양광 충전식 표지병’ 200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표지병은 도로바닥에 고정하는 형식으로 보안등보다 쉽게 간격조절이 가능하고, 가시거리가 800m 이상이며, 낮에 저장한 태양광으로 빛을 내기 때문에 경제적·친환경적이다. 시는 새로 설치한 태양광 표지병이 야간에 제일고와 충남학생교육문화원을 이용하는 학생들,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안전한 야간 보행과 차량 운행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10월까지 성환역, 성환이화시장, 남서울대 학사촌 일원에 안심등불(센서등), CCTV-비상벨 안내표지, 보안등 교체와 여성안심구역에 로고젝터와 천안천 등 하천 산책로에 긴급신고 위치표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 태양광 표지병 설치



천안시, 민간투자를 활용한 유개승강장 신설

2017.10.25. | 천안시 | 교통과

천안시는 시내버스 승강장에 작품성이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설치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관내 300여 개 제조업체와 읍면동 자생단체 등을 통해 홍보하고 신청을 받았다. 그중 기존 시설물과의 차별성, 작품성 측면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적용한 공공시설물을 고속버스터미널(아라리오) 승강장에 설치해 도시오브제 1호를 완료하게 됐다. 시는 다수의 기업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참여기준을 간소화했으며, 디자인 등 설치방법에도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해 창의적인 승강장을 만들어 도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민간참여 유개승강장 설치의 지속적인 시행에도 불구하고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의 적절한 보완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시 오브제 1호 유개승강장



공주시, 감영길 좋은간판 나눔 프로젝트 추진

2017.06.15. | 공주시 | 도시정책과 도시경관팀

공주시는 6월 13일 ‘2017 좋은간판 나눔 프로젝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7 좋은간판 나눔 프로젝트는 한국지방행정공제회 산하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으로 지자체, 주민, 예술가, 전문가가 함께 창의적인 간판 디자인을 제시하고 우수간판문화 확산과 소규모 상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과 업종의 특색을 살린 디자인을 개발함으로써 역사문화 거리를 새롭게 되살려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주시, 통합지주이용 연립간판 설치로 도시경관개선

2017.06.30. | 공주시 | 도시정책과 도시경관팀

공주시는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추진한 통합형 지주이용 연립간판 정비사업을 마무리했다. 교체된 곳은 검상교차로, 우성삼거리, 만년교 앞 교차로, 구계삼거리, 학봉삼거리 등 5개소로 입간판, 지주간판 등으로, 기존 간판을 철거하고 역사도시에 어울리는 통합간판 7개를 설치했다. 상세한 업소안내는 물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통합간판 교체 후 업주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통합지주이용 연립간판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주이용 연립간판 정비사업



예천지구 불법공작물 자진철거 완료

2017.09.21. | 서산시 | 도시과

서산시는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설치된 불법공작물이 모두 자진철거 됐다고 밝혔다. 시는 불법공작물을 설치한 업소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건축주 등이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대화하고 소통하여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등 발품행정을 펼쳤다. 아울러 서산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 준수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건축주 및 상인들에게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군, 홍성도 알리고 관광객도 맞이하고!

2017.08.01. | 홍성군

홍성군은 '2018년 홍주천년'에 대비하는 군 홍보안내판 디자인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군 경계 및 차량통행이 잦은 주요 도로 주변에 군 관광자원과 2018년 홍주지명 탄생 천년의 해를 홍보할 목적으로 조형 안내판 신설, 일제 정비 등이 추진되었다. 이에 조형 안내판 신설과 함께 고속도로 IC 입출구 및 주요 도로에 기 설치된 노후 안내판을 일제 정비하였고, 정비된 안내판은 차량운전자의 이동속도를 고려하여 짧은 시간에 홍성을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로 표현된 점이 눈에 띈다. 그리고 캘리그래피와 현대적 패턴을 이용한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기존 안내판과 차별화하여 홍주의 탄생을 알리고 도시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군은 본 사업을 통해 2018년 홍주지명 탄생 천년의 해 홍보는 물론 군 이미지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 홍보안내판 디자인 정비



태안군, 친환경 태양광 LED 도로명판 '눈에 띄네'

2017.09.05. | 태안군

태안군이 고남면과 이원면 내 가로등이 없는 지역 15개소에 태양광 LED 도로명판을 설치, 관광객 및 주민들의 안전확보와 도로명주소의 인지도 제고에 앞장선다. 태양광 LED 도로명판은 주간엔 태양광을 충전해 야간이 되면 글자 및 표면이 자체 발광하는 시설물로, 별도 전력 없이 안내표지의 조명을 밝힐 수 있는 친환경 시설로 최근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전력선의 연결이 어려운 공간에서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덧붙여 충전시간이 맑은 날 4시간, 흐린 날 8시간으로 비교적 짧고, 완충 시 100Lux 정도의 발광이 3일간 이어지는 등 효율성도 높아 이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번 태양광 LED 도로명판 설치로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군민과 관광객들이 야간에도 주요 위치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주민 호응도 및 효과성을 검토해 추후 설치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 태양광 LED 도로명판



태안군, 국내 최초 신개념 '공익형 휴게소' 건립한다!

2017.10.27. | 태안군

서해안을 대표하는 관광거점도시 태안군에 국내 최초의 신개념 '공익형 휴게소'가 건립된다. 군은 '태안 도로역 실시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올해 말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도로역(너니들이 센터) 조성사업' 착공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도로역 조성사업은 남면 당암리 일대에 휴게소와 함께 대규모 농수산물 직판장이 함께 들어서고, 각종 공연이 가능한 이벤트 광장과 공원 등이 함께 조성되는 등 단순히 '쉬어 가는' 휴게소를 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공익형 휴게소'로 건립될 예정이어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태안-보령 간 연륙교가 오는 2019년 완공되는 등 인천에서 목포까지 이어지는 '서해안 관광산업도로(국도77호선)' 연결이 진행되고 있어, 그 중간기착지이자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태안군이 이번 도로역 조성을 계기로 새로운 관광중심지로 떠오를 전망이다.